ENTERTAINMENT FOR ALL

SPECIAL ISSUE

了 E D 赤

플레이보이의 은밀한 색

이달의 플레이메이트 **최석영** 

20Q 뮤지션 진보의 행보

**PLAYBOY OF THE YEAR** 2017년, 〈플레이보이〉가 주목한 40명의 한국 남자들

US PLAYMATE ENIKO MIHALIK

**DECEMBER 2017 | KOREA FICTION** 필립 K. 딕의 단편소설 **〈프로즌 저니〉 INTERVIEW CLASSIC** Miles Davis 1962년, 재즈 왕 마일스 데이비스와의 날 선 인터뷰 **HOLIDAY** GIFT GUIDE 2017





# Special Issue RED\*

마크 퀸이 피로 만든 두상으로부터 20세기를 달군 다섯 명의 팜므 파탈까지, 〈플레이보이〉가 탐구한 진한 빨강의 세계.

#### **102 RED TALK**

THE RED 섹스, 피, 홍등가, 19금, 그리고 생명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빨간색에 대한 다섯 가지 이야기.

#### 112 PEOPLE

SOMETHING RED 다양한 의미를 가진 빨간색에 다양하게 연루된 네 명의 남자들.

#### 116 ESSAY

**새빨간 거짓말** 여기 짜릿한 두 섹스 중 하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답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

#### 118 MUSIC

**DECEMBER SONGS** 흥분과 후회, 숙취와 다짐을 반복하며 맞이하는 12월의 노래들.

#### 120 ITEM

RED FETISH 빨강에 빨강을 더해 만든 또다른 빨강의 세계.

#### **126 PHOTOGRAPHY**

**FEMME FATALE** 팜므 파탈의 치명적인 색을 5명의 사진가가 다시 밝힌다.

#### 2017 | Vol 04

## **DECEMBER**

#### Playboy Picks

#### **019 PARTY**

플레이보이에게 파티는 일상이다. 스타일부터 자동차, 퀴진 그리고 호텔까지. 12월, 〈플레이보이〉가 고른 홀리데이 시즌을 위한 것들.

#### 032 NO FILTER

**COLOR ME RED** DJ Mushxxx의 모험에 빨강은 필수다.

#### Playboy Tastes

#### **037 MY WAY**

**KWAK EURA** 이제 우리의 섹스도 한 발 더나아갈 때가 됐다. 섹스토이숍 플레져랩의 대표, 곽유라는 이미 발을 뗐다.

#### 040 CAR

THE AUTONOMOUS CAR 운전대에서 손을 떼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 042 PLAYTECH

**뜨거운 안녕** 따뜻하게 또는 뜨겁게. 불타는 연말을 위한 열(熱) 테크 모둠.

#### 044 PLAYBOY WITH

3 STARS 20년을 타도 여전히 새롭다는 스케이터, 부쩍 선에 대한 강박이 생겼다는 타투이스트, 아침밥 먹듯 매일 레코드를 찾는다는 디제이를 만났다.

#### **052 GIFT**

**HOLIDAY GIFT GUIDE 2017** 12월은 거리를 수놓은 크리스마스 조명보다 더욱 빛나는 연인에게 마음을 전할 때.

#### **058 SWEETHEART**

CHECKMATE 2017년 체코 〈플레이보이〉가 뽑은 올해의 플레이메이트 예브게니야 페클라너가 서울까지 샴페인을 터뜨렸다.

#### **065 PEOPLE**

PLAYBOY OF THE YEAR 다사다난이란 말도 모자라는 2017년, 그 격랑 속에서 〈플레이보이〉가 주목한 40개의 이름.







### Playboy Talks

#### **071 EXHIBITION**

자코메티의 살과 뼈 모두가 살을 찌우고 싶어 할 때 지독하게 덜어내기 위해 애쓴 조각가가 있다.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살과 뼈로 삶의 허무를 응시했던 알베르토 자코메티가 한국에 처음 온다.

#### **074 ART**

**OBEY THE GIANT** 오베이의 창립자, 셰퍼드 페어리는 세상에 복종할 생각이 없다.

#### **076 POLITICS**

新색깔론 2017년에도 빨강이 진보와 혁명을 의미할까?오늘의 관점으로 다시 보는 정치와 색의 야릇한 관계.

#### 080 20Q

JINBO 진보는 정상적이길 거부한다. 그런 자신과 요상한 음악을 즐기며

#### **084 INTERVIEW**

KIM SANGJIN 애니메이터 김상진은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를 움직이게 한다. 그렇게 스스로 즐겁다.

#### 092 HER

HUMMING BIRD 타투이스트 란지는 모두를 위한 그림을 고민한다.

#### **100 PLAYSCENE**

**내게 거짓말을 해봐** 임영웅이 찍은 여체엔 속임수가 없다.



2017 | Vol.04

## **DECEMBER**

### Playboy Loves

#### **138 PLAYMATE**

CHOI SEOKYEONG 플레이메이트 최석영의 세계는 밝고 아름답고 낭만적인 것으로 가득하다.

#### **146 US PLAYMATE**

**VIVA LA VIDA** 자유로운 영혼의 미국 플레이메이트 에니쾨 미헐리크.

#### **154 US PLAYMATE**

INES RAU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 파리에서 날아온 미국 플레이메이트 이네스 라우.

#### Playboy Reminds

#### **164 ARTIST IN RESIDENCE**

HWANG HYEJUNG 작가 황혜정의 작업은 몰랐던 자신의 이면을 찾으면서 시작된다.

#### 174 FICTION

FROZEN JOURNEY 필립 K. 딕이 창조한 섬뜩한 상상의 세계에서, 빅터 케밍스는 희미한 기억의 우주를 항해한다.

#### **180 INTERVIEW CLASSIC**

MILES DAVIS 재즈의 지평을 넓힐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던 마일스 데이비스, 1962년, 재즈계 최고의 우상 파괴자가 〈플레이보이〉에게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 186 CLASSIC

THE BIG SLEEP 〈깊은 잠〉으로부터 레이먼드 챈들러를 추적한다.

#### **188 HERITAGE**

**MERRY CHRISTMAS, PLAYBOY!** 

플레이보이의 유머러스한 클래식 카툰들.









#### 그룹 발행인 GROUP PUBLISHER

김영철 Youngchull Kim yckceo@playboykorea.com

비서 강주원 Secretary, Juwon Kang

#### 사외이사 EXECUTIVE BOARD MEMBERS

Wanjoo Alexandre Kim Michele Nathalie Lehmann Kim

#### 관리팀 ADMINISTRATION

이사 이성엽 Director, Sungyup Lee 차장 최호영 Assistant Manager, Hoyoung Choi 차장 박지연 Assistant Manager, Jiyeon Park 과장 최영화 Section Chief, Younghwa Choi 대리 강한규 Assistant Section Chief, Hankyu Kang

#### 제작 MANUFACTURING

차장 박선재 Assistant Manager, Sunjae Park

#### 판매영업 DISTRIBUTION

과장 이동남 Section Chief, Dongnam Lee

#### SPE SPECIAL PROJECT TEAM

부장 유정석 Team Leader, Jungsuk You anyou@kayamedia.com 아트 디렉터 계희경 Art Director, Heekyung Kye hkkye@kayamedia.com 디자이너 김완태 Designer, Wantae Kim capcom@kayamedia.com 에디터 윤연숙 Editor, Yeonsuk Yoon yeon@kayamedia.com 에디터 최은혜 Editor, Eunhye Choi gwsay@kayamedia.com



#### KAYA MEDIA CORPORATION

www.kayamedia.com www.imagazinekorea.com www.playboykorea.com



MOTOR 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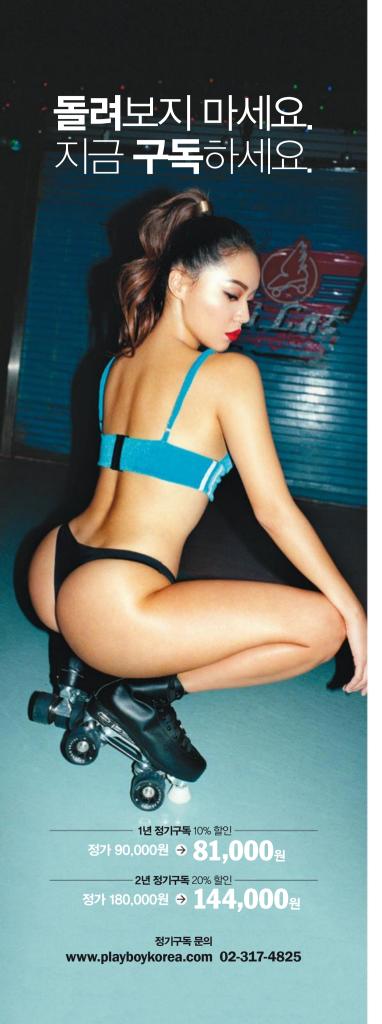
**ENEIGHBOR** 

nce 2017

Since 2005

Since 1996

2017년 12월호 통권 제4호 | 2017년 11월 21일 발행 | 2017년 1월 17일 등록 | 등록번호 강남 라-00905 발행처 (쥐)가이미디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81길 6(따치동) 가이빌딩(우편번호 06195) 대표 번호 02-317-4800 광고 문의 02-317-4851 정기구독 · 독자 관리 02-317-4825 FAX 02-317-4899 홈페이지 www.playboykorea.com 인쇄 (쥐)미래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번지 TEL, 02-800-8890 인쇄인 김영진 시스템 출력 (쥐)새빛그래픽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10번지 TEL, 02-516-8166



## PLAYBOY



#### 큐레이터 김영철

Curator, Youngchull Kim vckceo@playboykorea.com

#### 편집장 김정민

Editor In Chief, Jeongmin Kim boy@playboykorea.com

#### 편집 EDITORIAL

부편집장 유지성 Deputy Chief Editor, Jisung You jisungyou@playboykorea.com 피처 에디터 강예술 Feature Editor, Yesol Kang yesol@playboykorea.com 피처 에디터 양보연 Feature Editor, Boyeon Yang yangbo@playboykorea.com 교정·교열 유지숙 Tech Correction, Jisook Yu 박인경 Tech Correction, Inkyung Park

#### 미술 ART

**아트 디렉터 장웅수 Art Director, Woongsoo Jang** jang2002s@playboykorea.com **디자이너 정선희 Designer, Sunhee Jung** jsh@playboykorea.com

### 전략기획팀 STRATEGIC PLANNING TEAM PLAYBOYKOREA.COM

이사 김정주

Director, Jeongjoo Kim jjkim0730@kayamedia.com

부장 백재은 Manager, Jaeeun Baik jaenee75@kayamedia.com 차장 이유정 Assistant Manager, Yujung Lee klimt9@kayamedia.com 차장 김민경 Assistant Manager, Minkyung Kim minkim@kayamedia.com 대리 허주은 Assistant Section Chief, Jueun Huh huh.jueun@kayamedia.com 대리 이승은 Assistant Section Chief, Judy Lee judy.lee@kayamedia.com 사원 임소연 Assistant Section Chief, Soyeon Lim iponi@kayamedia.com 디지털 디렉터 윤신영 Digital Director, Shinyoung Yoon yoon@playboykorea.com 디지털 메디터 관수연 Digital Film Director, Won Kim bykimwon@kayamedia.com 디지털 메디터 한수연 Digital Editor, Sooyeon Han sooyeon.han@playboykorea.com

#### 광고영업 ADVERTISING BUSINESS

본부장 박동민 Director, Dongmin Park dmpark5@kayamedia.com 부장 오강석 Manager, Kangseok Oh austinoh@kayamedia.com

#### PLAYBOY ENTERPRISES, INTERNATIONAL

Hugh M. Hefner, FOU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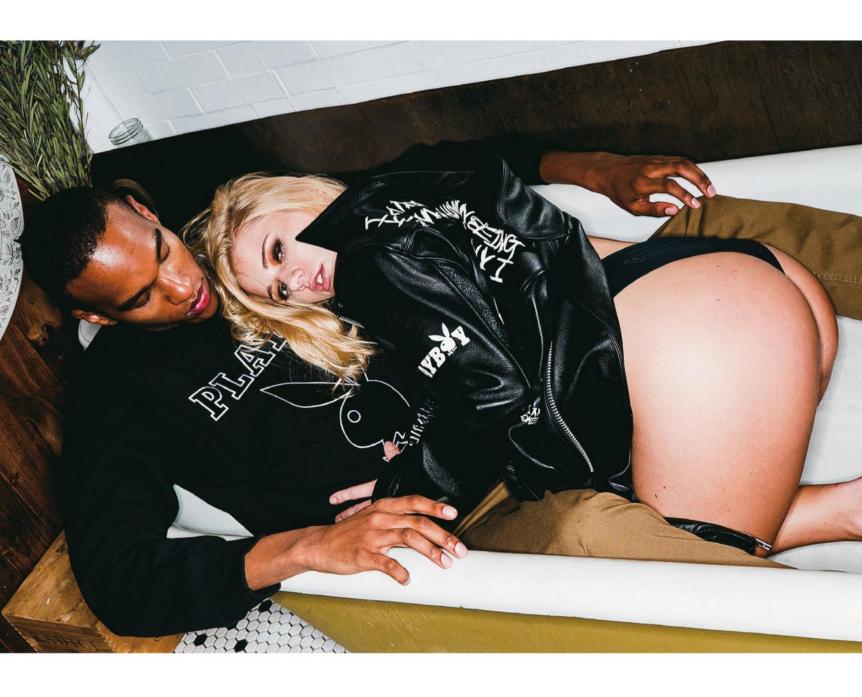
#### **U.S. PLAYBOY**

Ben Kohn, Chief Executive Officer | Cooper Hefner, Chief Creative Officer Michael Phillips, SVP, Digital Products | James Rickman, Executive Editor

#### **PLAYBOY INTERNATIONAL PUBLISHING**

Reena Patel, Chief Commercial Officer & Head of Operations
Hazel Thomson, Licensing
Mary Nastos, Intl Publishing Operations Director
Gabriela Cifuentes, Digital Asset Manager

(c) Playboy 2017 as to material published in September 1962, December 1980, December 2014, December 2015, December 2016, July/August 2017, November/December 2017



**Exclusively from Playboy. Shop Now.** 



## 당신에게 〈플레이보이〉는 어떤 빨강인가요?

도대체 산타클로스 씨는 왜 하필 빨간색 외투만을 고집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섹시한 심장을 가진 플레이보이이기 때문에, 블러드 컬러에 집착하는 위험한 남자라서, 설마 붉은 깃발의 혁명가 출신? 빨간 볼에 복슬복슬하게 기른 흰 수염, 풍만한 뱃살에 선물 보따리까지 온통 빨간색으로 멋을 부린, 우리에게 친숙한 이미지의 산타클로스는 실은 1931년 미국 코카 콜라 사가 완성시킨 캐릭터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의 친근한 인상을 심어주어 겨울철에도 콜라의 판매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죠. 크리스마스 전날 밤,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다니며 주로 굴뚝으로 출입하고, 아이들이 소원하는 선물을 양말 속에 몰래 넣어둔다는 설정은 이미 오랜 크리스마스 풍속이지만, 고된 일과를 마친 산타가 시원하게 콜라 병나발을 부는 광고 콘셉트는 꽤 신선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전설 속에만 간혀 있던 산타클로스는 12월의 유명인사가 됩니다. 코카 콜라 로고의 상징적인 컬러, 레드 슈트를 입고 말입니다.

레드는 유난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색입니다. 지극히 야누스적이기도 한데, 코카 콜라나 맥도날드의 로고처럼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와 욕망을 부추기는 색이면서 동시에 사회주의 혁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실과 부르주아가 선호하는 색이자 노동자의 색이고, 건강과 복을기원하는 색이지만 죽음과 경고의 색으로도 통합니다. 열정과 빛을 담은 신성한 색, 수난과 어둠을 담은 광기의 색이 바로 레드 컬러입니다.

사랑과 관능, 금기의 색으로서 레드는 매우 '플레이보이스러운' 컬러이기도 합니다. 같은 매거진이 분명해도 대하는 이의 관념과 태도, 해석에 따라 그 의미는 천차만별로 달라지니까요. 그렇다면 당신에 게 〈플레이보이〉는 어떤 빨강인가요? 예를 들어 12월의 미국 플레이메이트로 소개하는 최초의 트랜스 젠더 모델 이네스 라우의 화보는 가장 따뜻한 색, 가장 섹시한 색, 가장 위험한 색 중 어떤 빨강으로 다 가오나요? 글쎄요, 어쩌면 그 대립적인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플레이보이〉가 제 고유의 색을 내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의 원초적인 그림, 피터 그리너웨이의 데카던트한 영화. 혹은 기 보대의 아찔한 사진이 품고 있는 휴머니즘의 메타포처럼 말이죠

12월, 〈플레이보이〉에디터들이 준비한 특집은 12월에 가장 어울리는 컬러 '빨강(Red)'입니다. 이 혹독한 추위의 겨울이 약간 따뜻해질 수 있다면 그건 아마 산타클로스 씨의 그 빨간 외투 덕인지도 모릅니다.(그게 비록 콜라 회사에서 협찬 받은 옷일지언정.) 그 레드 컬러에는 분명 사랑과 나눔의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요. 그리고 〈플레이보이〉는 좀 더 뜨거운 빨강을 더했습니다.

2017년은 한국〈플레이보이〉가 정식 출범한 의미 있는 해입니다. 앞서 세 권의 책이 나왔고, 부끄럽지만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잘했다, 수고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플레이보이〉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은 여전히 한겨울 동빙고처럼 차갑습니다.〈플레이보이〉를 저급한 '빨간 책'으로 오해하는 분들보다 더 상처가 되는 건, "(플레이보이〉는 저급하지 않아 재미없다(어렵다)"라거나 "(플레이보이〉인데 '플레이보이'스럽지 않다(너 뭐냐?)"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그럴 때마다 모델을 통째로 빌려 누드 공장처럼 사진을 찍어내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럴수록 더욱 더 2018년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이 시행착오를 차곡차곡 공부하듯 넘기다 보면 언제가는 '균형'이란 게 생길 테니까요.

우리에게는 터뜨릴 샴페인도 없지만, 그저 지금은 이 지면을 통해 한 해 동안 고된 일정과 주변의 천 덕꾸러기 취급에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편집팀에게 각별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편집장 김 정 민

#### Cover Cred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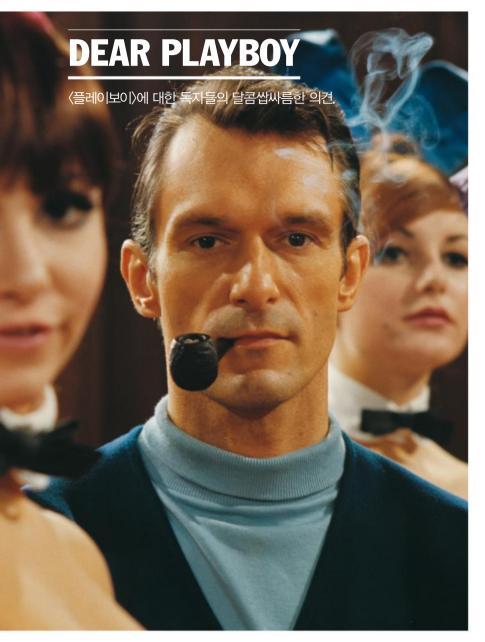
크리스마스 파티에 함께 하고 싶은 매력적인 이 여성은 미국 플레이메이트 에니쾨 미헐리크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 하기를 즐긴다는 그녀는 12월의 마지막 날, 어떤 나라에서 누구와 밤을 지새우게 될까? PHOTOGRAPHY BY **DAVID BELLEMERE** 

## **PLAYBOYKOREA.COM**

〈플레이보이〉와 좀 더 쉽게 친해지는 방법은 잡지보다 빠르고 섹시한 플레이보이코리아닷컴에서!



FOLLOW US ON INSTAGRAM, FACEBOOK, YOUTUBE



#### 다음 데이트는 여기서

〈플레이보이〉를 매달 챙겨 보고 있는 애독자입니다. 애인과 저는 서로 바빠 만날 시간이 별로 없는 회사원 커플이에요. 주말에 만 나도 일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해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데 이트를 하는 게 다인데, 자동차극장을 소개하는 기사를 보고 모 처럼 자극을 받았습니다. 외국에만 있는 줄 알았던 자동자극장이 한국에도 그렇게 여러 곳에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집 앞에 있는 영 화관도 귀찮아서 잘 안 가지만 왠지 자동차극장이라고 하니 더 분 위기가 있을 것 같고 특별한 느낌이라 호시탐탐 애인에게 가자고 조를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왜, 색다른 데이트도 좋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금방 피곤해지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밖으로부터 차단된 차에서라면 애인과 편하게 있을 수 있겠죠? 하루 정도는 멀지 않은 근교로 떠나 남들 신경 쓰지 않고 오붓하게 차에서 영화를 보는 데이트를 즐겨볼까 봐요. 저도 한번 자동차극장 데이트, 도전해봅니다!

한다훈(안양시 만인구 안양동)

#### 나도 초대받고 싶어!

예전에 미국 텔레비전에서 휴 헤프너 여자친구들의 매션에서의 삶 을 보여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챙겨 보는 방송은 아니었지만 한 번 봤던 게 인상 깊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플레이보이의 삶은 모든 남성들의 로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하죠. 커다란 저택과 성공적인 커리어, 거기 에 끊이지 않는 로맨스. 실제로 그런 삶을 살 순 없겠지만 헤프너 의 삶을 되돌아보는 글을 보며 새삼 부러운 마음이 치솟았습니다. '아, 나도 그 맨션에 한번 초대받아봤으면 좋겠다.' 원 없이 마시고 노는 그런 삶은 어떤 느낌일까요? 나도 정말 잘 놀 자신 있는데, 맨 션에는 유명한 사람은 거의 모두 초대돼 황홀한 파티를 즐겼다고 하던데 말이죠. 상상만 해도 기분이 장난 아니네요. 왜. 헤프너가 자신의 침실을 떠나지 않고 사무실처럼 사용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플레이보이 맨션이 이제 어떤 운명을 마주할진 모르지만. 어쨌든 제 상상 속에서 맨션은 영원할 겁니다!

이재현(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 BID 호 웨교너

휴 헤프너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알던 사람은 더욱 아니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사실 그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플레이보이)라는 잡지 그리고 잡지를 넘어 사회 전반에 성에 대한 메시지를 남긴 그의 이름은 왠지 모르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제게도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수십 년간 자신이 창간한 잡지를 지키며 자신의 철학을 전파한 휴 헤프너, 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싶습니다.

신재림(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화끈한 파이터

김동현 선수의 인터뷰는 그의 경기만큼이나 시원시원했습니다. 글로 읽는데도 거침없는 성격이 느껴지는 것 같아 신기했어요. 마치 고미 선수의 얼굴에 펀치를 꽂아 TKO를 받았을 때처럼 말이죠. 특히 1위부터 15위까지 그 어떤 UFC선수와 붙어도 자신 있다는 말이 정말 멋졌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선수의 패기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인터뷰를 보니 김동현 선수에 대한 믿음이 갑니다. 2연패의 아픔을 딛고 통쾌한 승리를 거머쥔 만큼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건투하길 빕니다! 이동휘(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 세계 곳곳의 밤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 밤이란 한 테마를 두고 촬영한 화보가 재미있었다. 여행을 좋아하는 편인데 뭔가 여행 사진집 같기도 하고, 내 집에 누워 세계의 밤을 돌아다닌 기분이랄까? 밤이라는 낭만적인 주제 탓인지 사진들도 작가 개인만의 감성이 진득하게 묻어 보는 맛이 있었다. 사실 낯선 곳에 가면 무서워서 밤에는 잘 돌아다니지 않는데 다음엔 용기를 좀 가져봐야 할 것 같다. 그렇게 하면 나도 도시마다. 나라마다 제각기 다른 분위기의 밤을 느껴볼 수 있으려나.

김현승(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 매력적인 배우, 아오이 유우

〈플레이보이〉에 아오이 유우 인터뷰가 실린다고 해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하긴 그렇지만 솔직히 아오이 유우가 〈플레이보이〉에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으니까요, 전 영화 〈오버 더 펜스〉를 보면서 아오이 유우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던 사토시라는 캐릭터를 동정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걸 보고 그의 팬이 됐어요. 그 영화를 참 인상 깊게 봤는데, 인터뷰를 보니 (이름 없는 새)도 어딘가 씁쓸한 분위기가 제 취향일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김지호(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 **PLAYBOYKOREA.COM**

〈플레이보이〉와 좀 더 쉽게 친해지는 방법은 잡지보다 빠르고 섹시한 플레이보이코리아닷컴에서!



FOLLOW US ON INSTAGRAM, FACEBOOK, YOUTUBE

### **PLAYBILL**

#### 특집 '레드' 와 상관없는 화보와 칼럼에서도 12월호를 뜨겁게 만들어준 이들에게 물었다. '빨강' 하면 떠오르는 그것.



#### 김욱

사진가 김욱이라면. 매혹적이고 빈티지하며 한국 고유의 멋이 느껴지는 화보를 담아줄 것 같았다. 그에게 'Her' 화보 촬영을 의뢰했다. 현장에서 김욱과 모델의 호흡은 두 말할 것 없었다. 김욱은 모델이 가장 예쁠 때만 골라서 셔터를 눌렀고, 모델은 김욱의 시선에서 가장 고혹적인 포즈를 취했다. 상업 사진계에서 김욱이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만큼 오랜 시간 수 없이 많은 멋진 사진과 이정표를 남겼다. 사진가 김욱이 빨강 하면 떠오르는 것은 '자신감과 자유로움'이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살아가는 느낌이란 설명을 보냈다.



#### 조윤희

스타일리스트 조윤희의 스타일링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번 플레이메이트 화보는 '영화 〈나홀로 집에〉의 귀여운 주인공 케빈 대신 사랑스러우면서도 섹시한 소녀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그에게 크리스마스 날 화려하게 꾸며진 집 안에서 혼자 노는 소녀의 모습을 담고 싶다고 전했고, 그는 단순하게 정리한 에디터의 생각을 하나의 영화로 만들어줄 만한 옷과액세서리를 잔뜩 가져왔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스타일로 풀어낸 그녀가좋아하는 빨간색의 분위기는 화려하고 정열적인 쪽보다는 입생로랑의 레드 컬러립스틱처럼 지극히 모던한 느낌이라고.



#### 김침

어른을 촬영할 때의 긴장이 있다. 호들갑보다는 기다림이, 연출보다는 자연스러움이 중요한 때, 한마디로 어렵다. 하지만 그런 어른을 잘 찍은 사진만큼 오래 보고 싶은 것도 드물다. 그럴 때 한없이 모호한 '깊이'라는 말이 좀 이해가 가기도 한다. 김참과 애니메이터 김상진을 촬영했다. 좋은 사진은 결국 그 인물의 어떤 순간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었나? 그날 본 김상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컷 찍을 때 김상진이 이렇게 웃었지, 이 컷에선 어떤 얼굴이었지. 서울이 급격히 추워진 날. "수박 하면 '레드'지만 껍질이 녹색이라 성탄절 같기도 해요." 크리스마스가 여름이었으면 김참에게 수박을 선물했을 텐데.



#### 최석인

〈플레이보이〉의 꽃 플레이메이트가 되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자연스럽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취향이 분명한 여성. 12월의 플레이메이트 최석영은 위의 조건에 부합할 뿐 아니라 밝고 사랑스러운 성격으로 모두를 기분 좋게 만들 줄 안다. 그녀는 낯설고 어려운 화보 촬영장에서 누구보다 활기찬 에너지를 내뿜으며 자신의 매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현장에 있던 수많은 스텝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몰려 있었지만. 오히려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덕분에 종일 이어지는 촬영에도 모두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다. 그녀는 '빨강' 하면 열정. 패기, 자신감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물론 크리스마스도 좋다고.



#### 란지

타투이스트 란지를 처음 본 건 인스타그램이다. 고혹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매력에 단숨에 12월호 'Her' 화보의 주인공으로 낙점했다. 그렇게 만난 그녀와 나눈 인터뷰에서 놀랄 만 한 사실을 여럿 알게 됐다. 10년 넘게 외국에서 생활했고, 4개 국어를 구사하는 여자였다는 것. 더 놀라운 건 그의 마음이었다. "제가 노출이 있는 사진을 찍는 건 크게 타투를 한 여자도 멋지고 섹시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길 하고 싶어서예요." 그리고는 "문신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란지의 빨강 하면 떠오르는 것은 **모란**이다. 수나라 양제에 의하면 꽃 중의 왕이라 불리는, 화왕(化王)이다. 부귀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모란이라니, 란지다운 선택이다.



#### 이정훈

플레이메이트의 화보 촬영은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사진가 이정훈의 공이 가장 크다. 그와 모델 섭외부터 콘셉트를 상의하고, 장소를 둘러보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다. 그는 많은 고민을 거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선 촬영장에 나타났다. 아침에 만난 우리는 저녁 시간이 지난 어둑한 밤에 헤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촬영이 끝난 후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로 했지만. 결국 먹지 못했다. 이 책이 나올 때쯤 그에게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하고 싶다. 그가 따올린 빨간색은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이다. **말보로 한 보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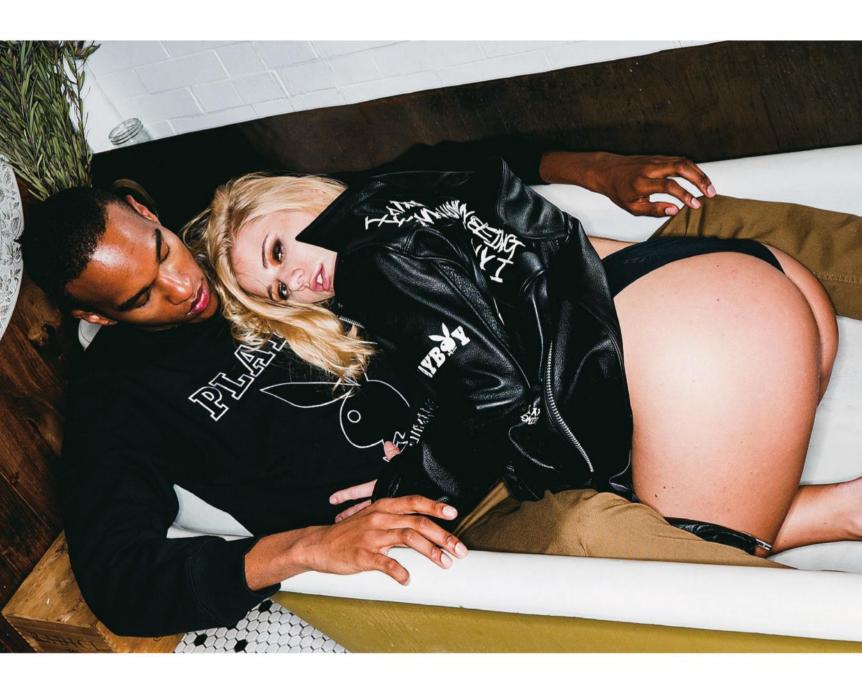
#### 황혜정

아티스트 황혜정에게 제안한 내용은 간단했다. "〈플레이보이〉를 주제로 작업물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시안도, 가이드라인도 없었다. 자유롭게 무엇이든 구상할 수 있다는 건 사실 변명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흔쾌하게 작업을 수락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플레이보이〉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고, 얼마 후 탐이 날 정도로 멋진 작품을 보여줬다. 그는 이상한 것과 아름다운 것 사이의 경계를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그가 만든 작품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주로 검은색과 흰색을 이용해 작품을 만드는 그가 빨간색을 떠올렸을 때 드는 감정은 **'설레고** 두려운 마음'이다. 결혼식에서 하얀 드레스에 네일을 빨간색으로 바른 친구의 모습을 보고 든 감정이라고.



#### 김형준

〈모터 트렌드〉의 편집장 김형준은 매 달 〈플레이보이〉에 매력적인 자동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이번 칼럼의 주제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정해졌다. "손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율 주행 자동차 산업의 현재에 대해 얘기했다. 당시 그 말만 다 주워담았어도 원고 하나 쯤은 나왔을 거다. "근데 운전을 안 해도 되면, 사는 게 좀 재미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의 삶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딱 그만큼이다. 김형준 편집장이 빨강 하면 떠오르는 것으로 고른 건 **레드벨벳의 노래 '빨간 맛'**이다. 그토록 명민해 보이는 김형준 편집장에게서 자동차를 빼니, 이토록 재밌는 대답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Exclusively from Playboy. Shop Now.** 





Pose for Playboy, Be a Playmate!

## 〈플레이보이〉의 메이트, 플레이메이트에 지금 도전하세요!

〈플레이보이〉의 주인공은 플레이메이트입니다. 이 시대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밝고 건강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이달의 플레이메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감추지 말고 맘껏 드러내세요. 지금 〈플레이보이〉가 특별한 당신을 기다립니다.

#### WHO IS A PLAYMATE?

매달 딱 한 명 선정하는 플레이메이트는 〈플레이보이〉를 대표하는 주인공입니다. 미국 〈플레이보이〉의 첫 플레이메이트는 메릴린 먼로였죠. 플레이메이트가 되면 국내외 최고의 사진가와 사진 촬영을 하고, 근사한 화보와 함께 〈플레이보이〉의 상징 센터폴드(Centerfold)를 장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브랜드 광고 촬영, 행사 및 파티 참여 등 〈플레이보이〉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체적이고 매력적인 당신, 무얼 주저하나요?

#### BENEFITS

- · 국내 톱 포토그래퍼, 스타일리스트, 비디오그래퍼와의 화보 및 영상 촬영
- · 플레이메이트 화보 및 영상 출연료 지급
- · PLAYMATE OF THE YEAR로 선정 시 상금 지급
- · 〈플레이보이〉행사 및 파티 참여 시 활동비 지급
- · 플레이메이트로서 대외 활동 시 발생하는 수익 분배



www.playboykorea.com



※ 지원 방법 및 기타 세부 사항은 playboykorea.com 상단의 PLAYMATE 탭을 참조하세요.

광고 문의 02-317-4851 정기구독 신청 문의 02-317-4825

한국 〈플레이보이〉의 세 번째 플레이메이트 김보라



PARTY 플레이보이에게 파티는 일상이다. 스타일부터 자동차, 퀴진 그리고 호텔까지. 12월, 〈플레이보이〉가 고른 홀리데이 시즌을 위한 것들.



### **DRESS CODE**

플레이보이의 파티 애티튜드.

스타일의 완성은 마지막 단계가 아닌 시작에서 이미 결정된다. 화려한 소품보다는 나에게 어울리는 피트의 셔츠를 골라 슈트의 멋을 살려줄 기본에 충실할 것.



누구나 언제든 중요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해줄 옷장 속 결정적인 한 벌이 필요하다. 특히 연말 파티와 송년회로 가득한 12월에는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슈트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진다. 라바르카는 비접착식 수제 슈트를 고집하는 비스포크 전문 브랜드로 오로지 나만을 위한 맞춤 슈트를

제공한다. 고객과 브랜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제작이 시작된다는 라바르카는 마스터 테일러 김영태의 지휘 아래 품격 있는 슈트를 선보이고 있다. 손님 각각을 위한 유일무이한 패턴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심지까지도 최고급 이탈리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수제 슈트를 대하는 라바르카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❷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47-13

**Q** 02-762-1173



## 작은 포켓스퀘어 하나가 슈트 스타일의 분위기를 주도한다. 디자인과 접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 평소 깔끔한 단색의 디자인으로 클래식한 매력을 즐겼다면 연말 파티에서는 짙은 색감에 패턴이 있는 포켓스퀘어를 착용해볼 것.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는 슈트가 좀 더 로맨틱해질 테니까.

화려한 패턴의 포켓스퀘어는 모두 **SPALLA** 제품



## Shoes SPECIAL STEP

특별한 날의 선택.

안전한 블랙 컬러의 구두가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색다른 재질과 컬러로 눈을 돌려보는 게 어떨까? 큰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 조금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으니. 벨벳처럼 부드러운 스웨이드 소재의 구두나 신비로운 푸른색이 포인트로 들어간 구두는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타일에 재미를 더한다.

## **SECRET AFFAIRS**

신비한 향기의 주인공이 되다.

주인공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다. 남보다 궁금한 이야기를 가진 이가 결국 주인공이 되는 것. 펜할리곤스 '포트레이트' 컬렉션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가상의 귀족 가문 인물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 묵묵하고 듬직한 조지 경을 향수로 재해석한 '로드 조지 오 드 퍼품'은 메인 노트인 럼 향에 통카빈 향을 가미해 신뢰감을 주면서도 묘한 남성적 관능미가 느껴진다. 반면 광란의 파티를 즐겼던 그의 사생아 래드클리프를 담아낸 '래드클리프 오 드 퍼품'은 타비코 향에 진저 향을 페어링해 자유분방한 그의 성격을 나타낸다. 그 외 조지 경의 정부를 포함한 총 여섯 인물들의 향을 담은 포트레이트 컬렉션은 모두 매혹적인 사연들로 가득했을 그들의 연회장을 궁금하게 만든다.

가상 인물들의 사연을 녹여낸 '로드 조지 오 드 퍼품'과 '래드클리프 오 드 퍼품'은 모두 **PENHALIGONS** 제품



Mr. Playboy

"특별한 니치 향수는 파티에서 대화를 이끌어내는 데 유용한 비밀 병기다. 럼과 타바코처럼 예상치 못한 향은 뻔한 향들 사이에서 단연 관심을 증폭시킨다."



## Barbershop GENTLEMAN'S PLACE

신사의 완성.

○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9 신라호텔 5층

**Q** 02–2234–1805

완벽한 '첸틀맨'이 되고 싶다면 꼭 들러야 할 곳이 있다. 세계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정통 바버숍, 트루핏앤힐이다. 트루핏앤힐은 영국 왕가의 남성들부터 윈스턴 처칠까지 놀라운 고객 명단을 자랑한다. 무려 1805년에 설립되었다는 이 바버숍은 지금까지도 영국 자사에서 교육 과정을 거친 바버들만으로만 운영되며 사용하는 모든 제품 역시 영국산으로만 고집하고 있다. 이 정도 품격이라면 신사 그루밍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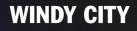






Beauty **TIME MACHINE** 매일 조금씩.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곧 또 한 살을 먹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영양 가득한 세럼을 피부에 골고루 펴 바른 뒤 바나브의 '타임머신'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쓸어보자. 음이온 진동이 피부 깊숙이까지 영양을 침투시켜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든다. 세 가지 음이온 세팅이 가능한 이 뷰티 디바이스는 보습과 주름 케어, 보디 케어까지 가능하다.



차가운 바람이 반가운 컨버터블.

사람들의 옷차림은 추울수록 더 두꺼워지지만, 자동차는 예외다. 하늘로 지붕이 열리는 컨버터블은 바람이 쌀쌀한 가을부터 초봄까지 제 세상을 만난다. 매끈한 유선형의 스포츠카 디자인은 빠르게 달릴수록 머리 위로 바람이 투명한 지붕을 만들고, 차체의 히터로 공기를 데워 사람들의 어깨 위까지 따뜻한 실내를 선사한다. 달릴수록 이늑한 컨버터블은 거리의 화려한 조명과 어우려져 한겨울의 파티장으로도 충분하다. 여기 마세라티 그란카브리오 스포츠는 4.7리터 엔진에 최고출력 460마력, 최고시속 285km의 성능으로 풍만한 엔진음과 더불어 한껏 낭만적인 계절의 프라이빗 파티를 만들어줄 것이다. 단, 이 파티장에 오를 수 있는 손님은 네 명뿐이란 걸 잊지 말 것.

그란카브리오 스포츠는 MASERATI 제품



"사람들의 편견과 달리 컨버터블 자동차는 겨울에 더욱 진면목을 발휘한다. 저속에서는 지붕을 열어 낭만을 만끽하고 감정이 달아오를 때에는 닫고. 밖이 추울수록 차 안의 공기는 따뜻하게 느껴질 것이고 도어마다 서리는 김은 지울 필요가 없는 커튼이 되어줄 테니까. 플레이보이에게 은근한 무드와 긴장을 선사하는 데는 이만한 호사가 없다."

#### Exhibition **FILM DIARY**

앤디 워홀을 감동시킨 감독, 요나스 메카스.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11월 8일~2018년 3월 4일

₩ 4000원 **3** 02-3701-9500

일기나 사진첩을 보다 보면 당시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지금 보니 보물이라도 발굴한 듯한 기분을 들게 하는 순간이 있다. 미국 아방가르드 영화의 선구자 요나스 메카스는 프레임을 축소 촬영하는 기법을 사용해 이런 찰나의 순간들을 마치 멈칫거리는 기억처럼 기록한다. 그의 회고전 〈찰나, 힐긋, 돌아보다〉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 중이다.



## TRUE LOVE STORY

세기의 비극적인 로맨스.

Music

황태자 루돌프와 마리 베첼라의 애절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가 〈더 라스트 키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돌아왔다. 함께하지 못하는 삶 대신 죽음을 택한 두 연인의 이야기에 세계적인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Frank Wildhom)의 선율이 더해져 관객을 압도한다. 새로운 황태자 루돌프 역에는 카이, 전동석, 빅스 레오에 더불어 엑소의 수호가 함께 캐스팅되었다.

-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LG아트센터
- O 12월 15일~2018년 3월 11일
- ₩ 6만~14만 원 🔾 1577-6478



#### Design **COLORS EVERYWHERE**

알렉산더 지라드의 기분 좋아지는 디자인.



다채롭고 풍부한 색감은 디자이너 알렉산더 지라드에게 빼놓을 수 없는 정체성이다. 하트가 새겨진 베어브릭으로 국내에 두터운 팬 층을 보유한 그는 20세기 디자인사를 대표하는 시대의 아이콘이다. 이번 〈디자이너의 세계〉전에서는 그의 유명한 텍스타일 디자인뿐만 아니라 리빙, 토털 디자인 작품까지 전시돼 알렉산더 지라드의 전반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한가람미술관 3층
- O 12월 22일~2018년 3월 4일
- ♡1만3000원 € 02-6273-4242





#### Restaurant **EN CE MOMENT**

지금 이 순간.

종로2가 6

O 02-6952-8849

모든 순간은 소중하다. 지나고 나면 추억으로 남을 테니, 레스토랑 '앙스모멍'은 '지금 이 순간'을 프랑스어로 번역해 이름 지었다. 포크를 내려놓기까지 고객의 모든 순간을 특별히 여기기 때문이다. 푸른 컬러로 통일한 공간에 가지런히 정리된 커트러리는 다이닝에 대한 기대를 높여준다. 메뉴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퀴진에 독창적인 요소를 가미해 파티 만찬처럼 화려하다. 코스를 주문하면 미쉐린 스타 셰프 토니정과 국가대표 소믈리에 노태정이 함께 선사하는 완벽한 마리아주를 즐길 수 있다. 이곳에서 보내는 그와의 순간에 집중하며 오래도록 남을 추억을 만들어보자.





다채롭게 피어난다.

추위가 매서운 12월에도 티에라 플라워는 언제나 봄이다. 꽃들이 먼저 반기는 이곳은 플라워 클래스에 참여하거나 간단한 음료를 즐기며 향긋한 시간을 보내기 좋은 플라워 카페다. 티에라 플라워의 시그너처 메뉴는 '밀크 밤(Milk Bomb)'. 밀크티를 캔에 담은 독특한 패키지에는 'See You Tonight'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낮에 이어 오늘밤에도 만나자는 달콤한 고백. 사랑하는 이와 함께라면, 몸도 마음도 녹아내릴 공간이다.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26길 54 € 070-4130-8008





#### Cafe THE CHRISTMAS TABLE

파티의 시작을 알리는 베이커리 카페.

이른 아침의 한산한 성수동 거리. 일찍부터 내부를 환히 밝힌 카페가 눈에 띈다. 고소한 빵 냄새가 코끝에 부드럽게 감기는 이곳은 베이커리 카페 훔볼트. 오전 7시부터 파티시에가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 이유는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샌드위치부터 스콘과 크루아상, 네 종류의 식빵, 타르트가 속속 금빛 쇼케이스를 채우기 시작한다. 로스팅을 하며 얻은 노하우를 담은 원두 상품도 판매 중이다. 따뜻한 커피 한잔과 함께 대표 메뉴인 팡도르를 권한다. 슈거 파우더를 가득 올리고 안에 커스터드 크림을 넣은 팡도르의 유래는 이탈리아의 베로나에서 크리스마스에 즐겨 먹던 빵. 정성스레 만든 빵으로 테이블을 가득 채우니, 크리스마스 파티를 앞둔 식탁처럼 풍성하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58 ○ 02-465-5122







Bar WITH MUSIC

감미롭게 스며드는 술과 음악.

공간의 분위기를 강력하게 휘어잡는 건 음악이다. 술 한잔을 마시더라도, '귀르가음'까지 느낄 수 있다면 더욱 완벽한 밤을 보낼 수 있다. 최근 바이닐 뮤직 바로 리뉴얼 오픈한더 팀버 하우스는 2천여 개가 넘는 레코드가 턴테이블 위에올려지며, 모던한 공간 곳곳에 배치된 소품은 아날로고감성을 더한다. 셋 리스트만큼 주종도 다양한데, 위스키와사케, 칵테일, 생맥주를 요리와 페어링해 제공한다. 최상급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술에도파티 분위기에도 진하게 취해보자.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06 € 02-2016-1291



#### **1** 상쾌한 버블과 신선한 과실의 풍미가 파티의 흥을 돋워주는 **샤를 뒤푸** Wine '뷜 드 꼼뜨와 #4 비노라마 엑스트라 브뤼' **SOMMELIER'S** 2 입안에 맴도는 탄닌 향과 알코올의 조화 덕분에 자꾸만 잔에 손이 가는 CHOICE 모겐스터 '로렌스 리버 밸리' 올해의 한국 소믈리에 3 고소한 견과류의 향과 달콤한 꿀 내음까지 완벽해 연말에 즐기기에 제격인 도멘 위에 '므왘레 부브레 르 뜰로 뒤 부르' 대회 우승자, 김진범 4 폭발적인 과실 풍미와 부드러운 바닐라 향이 긴 여운을 남기는 소믈리에가 로맨틱한 삐에로판 '소아베 클라시코 라 로카' 파티를 위한 와인을 5 최고의 스타 와인메이커가 컨설팅해 고가의 부르고뉴 와인 못지않게 향긋한 추천했다. 메종 앙보에 '투 메신저스 피노 누아'

3

4

5

2

## Lounge LUXURY NIGHT

샹들리에 아래에서.

매혹적인 공간에서 즐기는 파티. 누구나 미음속에 갖고 있는이 로망을 실현시키고 싶다면, 한남동의 라운지 바 무사를 추천한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커다란 샹들리에에 시선을 빼앗기고, 화려한 밤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하게 된다. 강렬한 붉은색이 돋보이는 바에는 칠레와 프랑스, 스페인등 여러 원산지의 와인과 샴페인, 칵테일이 가득하고, 직접수입해온 가구와 소품으로 장식한 공간은 저녁 7시가 되면리드미컬한 사운드로 채워진다. 무사의 파티는 내내 뜨겁고,화려한 불빛은 새벽 4시까지 꺼질 줄 모른다.





#### Design

#### IN THE PARTY PLACE

파티를 빚내줄. 독특하고 실용적인 디자인 의자들.

- 1 토끼의 글래머러스한 실루엣을 모티브로 제작했다. 쫑긋하게 뻗은 두 귀와 엉덩이의 매끄러운 곡선이 손끝으로 훑어보고픈 충동을 안겨준다. 화려한 금빛으로 칠해 더욱 고급스럽다. QEEBOO by HPIX 제품
- 2 평범한 검은색 스툴이 아니다. 살짝 바깥으로 뻗은 다리 부분의 자연스러운 모양새는 나무를 증기로 쪄내는 벤트우드 기술 덕분. 다리 사이에 위태로이 걸려 있는 골드 링이 안정적인 디자인과 오묘한 조화를 이룬다. GTV by CHAPTER ONE 제품
- 3 의자의 옆면을 붉은 꽃잎으로 부드럽게 감쌌다. 끝이 살짝 말려들어간 매혹적인 디자인은 마치 하나의 오브제처럼 공간의 분위기를 장악한다. 우아하게 걸터앉아도, 꽃잎 안에 둘이 함께 숨어도 좋다. LE WEEKEND 제품
- 4 시끌벅적한 파티일수록 모두에게 매력적인 가구가 더욱 필요한 법, 스톨과 행어가 붙어 있으니 실용적이고, 공간도 적게 차지한다. 마음이 끌리는 상대를 발견한다면, 핑계 삼아 옆에 앉아보자. GTV by CHAPTER ONE 제품









### Item **RED HOLIDAY**

빨갛고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닮았다.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향초는 붉은 외양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크리스마스 파티의 따뜻한 분위기를 닮았다. 시트러스와 시나몬의 감미로운 향은 자연에서 얻은 원료로 이뤄냈고, 수공예로 직접 로고의 금박을 칠하는 등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정성을 다했으니까. 한 번 불을 붙이면 110시간 동안 타들어가며 주위를 밝혀주는 이 향초를 곁에 두고, 진실된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을 나눠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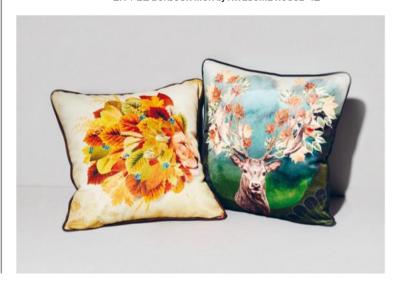
'칸델라 퍼퓨메이트 나탈레' 향초는 SANTA MARIA NOVELLA 제품

#### Living THE VELVET CUSHION 둘만의 푹신한

파티를 위해.

촉감이 부드러운 벨벳은 추운 계절을 맞이하며 방 안을 꾸미기 좋은 소재다. 올겨울엔 푹신하고 부드러운 벨벳 쿠션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 프랑스의 그래픽 아티스트 폴 모로와 스타일리스트 클레어 글리자우드가 론칭한 브랜드 봉주르몽의 벨벳 쿠션은 위트 있는 동물 일러스트를 담은 디자인이 돋보인다. 장식용으로도 좋지만, 크기가 넉넉하고 쿠션감도 좋으니 둘이 나눠 베기에도 괜찮다. 가까이 마주보다 보면, 둘만의 푹신한 파티는 지금부터다.

벨벳 쿠션은 BONJOUR MON by AWESOME HOUSE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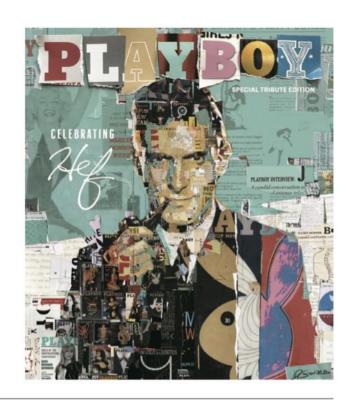
## **POTPOURRI**

신중히 고르고 멋대로 꼽았다. 〈플레이보이〉 편집팀이 선정한 지구를 아우르는 소식.

#### **HUGH HEFNER EDITION**

후 헤프너는 미디어와 문화의 선구자다. 사회적 움직임을 이끈 목소리를 내기도 했던 그를 추모하기 위해 '휴 헤프너 스페셜 트리뷰트' 한정판이 공개됐다. 이 책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사진과 헤프너의 가족, 동료, 친구들이 그를 떠올리며 쓴 에세이로 이루어졌다. 배우 신디 크로퍼드, 뮤지션 제시 잭슨 등 그를 사랑하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다. 미국 코미디언 리처드 루이스는 헤프너가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영원한 불씨와 플레이보이를 파괴시키고 싶어하는 우리 사회 속 가치에 대한 저항을 남기고 떠났다"고 했으며, 고디(Gordy)는 그를 '진정한 운동가'라고 일컬었다. 신디 크로퍼드와 제니 매카시는 〈플레이보이〉를 통해 자신들의 커리어가 어떻게 성공적인 길로 들어설 수 있었는가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휴 헤프너의 진짜 모습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열어볼 것. 플레이보이 온라인숍에서 구매 가능하며, 가격은 17.99달러(약 1만9000원)이다.

www.playboyshop.com





#### **SPEAKEASY NIGHT**

섹스, 재즈, 금주법과 위스키의 시대인 20세기 초로 돌이가는 파티가 열린다. 미국의 'Speakeasy Bar'를 콘셉트로 하는 플레이보이 파티는 음악과 의상은 물론이고 먹고 마시고 보이는 모든 것들을 그때와 똑같이 재현할 예정이다. 영화 〈위대한 개츠비〉의 파티처럼 수트와 드레스를 차려입고, 흥겨운 재즈에 맞춰 춤을 추고 싶은 사람이라면, 1월 20일 CA 오스틴으로 향할 것. ◆ www.playbo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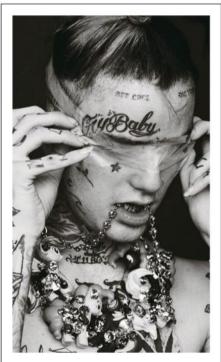
호텔 로비 정중앙에 놓인 귀여운 진저 브레드하우스. 매년 겨울 임페리얼 팰리스 서울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특히 올해는 새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은 동화 속 작은 마을을 실내에 들였다. 과자집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 전액은 서울대병원 어린이후원회에 기부하여 어린 환아에게 희망을 선물한다고, 한편에 붙은 여러 후원처의 로고 중 래빗 헤드가 유독는에 띈다. 올해는 (플레이보이)도 따뜻한 행사에 손을 더했다.

www.imperialpalace.co.kr



#### NOT YOUR FAULT

레이디 가가와 조 바이든 부통령이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힘을 합쳤다. 바이든은 진중한 목소리로 문제를 자각하자며 호소했고, 이어진 가가의 퍼포먼스에서는 'Till It Happens To You'가 애절하게 흘러나왔다.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 나오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팔목에 적혀 있는 'Not Your Fault'라는 문구. 정치와 문화가 융합해 성의 고귀함을 알린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 R.I.P.Lil Peep

합합 신의 새로운 미래라 불렸던 래퍼 릴핍이 얼마 전약물 과다 복용으로 21세에 세상을 떠났다. 2년 3개월 전 데뷔 음반 《Come Over When You're Sober, Pt.1》으로 합합 신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그의음악은 결국 다음 파트로 가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마크론슨, 디플로, 샘 스미스 등 많은 아티스트들이 애도의마음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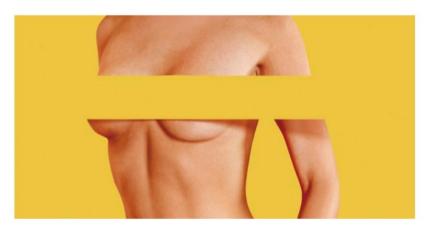




#### THE WIDEST SPECTRUM OF SEX

키탈리스트콘(CatalystCon) 컨벤션에서는 여러 섹스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섹슈얼리티의 이면을 논한다. 섹스 연구자부터 흑인 섹스 테라피스트, 성노동자, 항문 자위 창시자까지. 일반적인 성소수자를 다루는 수많은 여타 단체와는 다르다. 섹스로 먹고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곳에서 야릇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스스로 섹스에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강단 위 마이크가 당신을 기다린다.

www.playboy.com



#### 벗지 않는 사과

애플이 또다시 영상 콘텐츠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사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만을 위한 비디오를 제작하기로 결정한 것. 몇 번 실패의 고충을 겪은 탓인지, 이번엔 자극적인 요소를 줄여 시청자의 연령대를 넓히는 전략을 펼친다. 폭력적인 장면은 물론, 욕설과 음담패설을 자제하고 심지어 논 누드를 지향한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애플의 '무난한' 영상은 과연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결과는 2019년에 확인하자. ◆ www.playboy.com



#### 몸이 가벼운 식사

푸드 매거진 〈이터(Eater)〉에서 파리의 기상천외한 레스토랑 오내추렬(O'naturel)을 소개했다. 이곳에서는 음식을 맛보기 전 거쳐야 할 독특한 관문이 있다. 바로 검은 커튼에 들어가 탈의를 하는 것.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먹는 푸아그라라. 글쎄, 상상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

www.restaurant-onaturel.fr

#### 와인도 콘돔이 필요해?

와인을 땄는데 한 병을 다 못 끝내겠다고? 걱정 마시라. 이제 와인을 공기와 이물질로부터 지켜줄 든든한 와인 콘돔이 나왔으니. 사용법도 간단하다. 멋진 금색 포장지를 뜯어 와인 병 입구에 쓱 씌워주기만 하면 된다. ♂ www.playboy.pl



#### 19금 배트맨

어른들을 위한 배트맨이 온다. 작가 브라이언 어거스틴과 〈헬보이〉 시리즈로 알려진 작화가 마이크 미뇰라가 1989년에 출간한 동명의 만화를 리메이크한 애니메이션 〈배트맨: 가스등 아래의 고담〉이다. 최악의 연쇄 살인마 중 하나인 잭 더 리퍼와 대립하는 브루스 웨인의 이야기를 담은 이번 작품은 이미 개봉하기 전부터 '19금' 판정을 받았다. 내년 개봉을 앞둔 영화는 기다리고 있을 팬들을 위해 1분 35초 분량의 트레일러를 미리 공개했다. 참고로, 트레일러는 전체관람가다. ① www.youtube.com



#### '뱃속'까지 패션광

파스타가 섹시해졌다. 이탈리아 파스타 브랜드 파스티피시오 지 디마르티노와 돌체앤가바나가 손을 잡고 만든 이 파스타는 5천 캔만생산되는 한정판으로 한 캔당 한화로 약 12만원(110달러)나 된다. 파스타 한 움큼이 웬만한 옷의 가격과 맞먹는다. 탱글한 파스타 면이탐나지만 돌체앤가바나 특유의 화려한 패턴이 들어간 패키징을과감하게 찢을 용기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 www.harrods.com





#### 야릇한 비밀이 숨어 있는 뮤직비디오

거대 포르노 스트리밍 사이트 '폰허브(Pornhub)'에서 뮤직비디오를 냈다. 그것도 아주 이상한. 폰허브는 섹트토이를 이용해 만들어내는 소리만을 녹음해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 이 비디오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다양한 토이들이 등장해 악기로 변신한다. 바이브레이터와 딜도를 비롯한 섹스토이들이 만들어내는 하모니가 궁금하다면 폰허브의 뮤직비디오를 확인해보자. 단, 아무도 없는 곳에서 플레이할 것을 추천한다.

www.playboy.pl

## **PLAYBOY & NUMBERS**

야릇한 통계를 모았다. 크리스마스와 섹스, 그리고 숫자들,

ASSISTANT EDITOR KIM SUNHEE, KIM YEUNYOO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연인과 함께 뜨겁게 불태우고 싶다면 호텔 예약은 필수. 여성용 앱 킨다라(Kindara)가 취합한 150만 개의 데이터는 연중 섹스를 가장 많이 하는 시기 1위가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혹시 생일이 9월 16일 즈음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크리스마스 베이비일 가능성이 높다.



본능에 충실하다 보면 잊게 되지만, 섹스의 원초적 목적은 생명의 잉태다.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에 의하면, 건강한 남성이 오르가슴을 느낄 때 최소 4천만 개의 정자가 생산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최소 4천만 분의 1의 확률로 세상에 나온 귀한 존재들.

40,000,000



콘돔 회사 듀렉스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에 관계를 갖는 사람 중 10%가 산타 모자를 쓴다고 밝혔다. 이쉽게도 성별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32 세계 최대 포르노 스트리밍 사이트 폰허브(Pornhub)는 영국인은 다른 날에 비해 크리스마스에 32%나 포르노를 덜 본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는 시청률이 22% 줄지만 일본은 평소보다 시청률이 8% 높게 나왔다.

**50** 

시드니의 여성 성노동자 서머 나이트는 12월에 가장 많은 고객을 받는다고 고백했다. 놀라운 건 그들 중 50% 이상이 한 쌍의 커플로, 그들이 원하는 건 스리섬 섹스다. 크리스마스와 섹스의 상관관계는 취향과 무관한 불변의 진리.



탓일까? 온라인 섹스토이숍 이담이브닷컴(AdamEve.com)의 설문에 따르면 47%의 사람들이 여느 때보다 12월에 섹스토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연인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직 고르지 못했나?

크리스마스 선물

유독 올해 성욕이 덜하다고 느꼈다면 작년을 되돌아보자. 몇 명의 파트너와 관계를 맺었는지를 세어보면 답이 나올지도 모른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12개월간 한 사람과 섹스를 한 사람은 같은 기간 동안 2명 이상과 섹스를 한 사람보다 성욕이 덜하다고 한다. 성욕이 과한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나지만.

황홀한 오르가슴을 선사하고 싶다면 추위를 경계하라. (멘즈헬스)에 의하면 여자는 발이 따뜻하면 오르가슴을 느낄 확률이 30%나 늘어난다고, 때로는 양말이 섹스를 위한 아롯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자.







## New Era KWAK EURA

이제 우리의 섹스도 한 발 더 나아갈 때가 됐다. 섹스토이숍 플레져랩의 대표, 곽유라는 이미 발을 뗐다. EDITOR KANG YESOL 시작할 때부터 일종의 사명감이 있었어요. "여자들은 섹스 토이 잘 안 쓰는데", "호기심에 잠깐 해보다가 시집가면 시 들해지겠지" 같은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그만둘 수 없었어 요. 금방 포기하거나 망하면 그게 여자가 시작한 섹스토이숍의 표본 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해내야겠다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여자가 성적 취향과 만족에 관해서 말하는 게 음란하다 취급받지 않고 자연스러운 발언이 되게끔 하고 싶었어요. 플레져랩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다행히 그 단계는 뛰어넘은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는 플레져랩은 섹스토이숍으로 알려져 있지만, 단순히 섹스토이만 판매하는 곳은 아니에요. 성에 대해서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대화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육이나 세미나, 행사를 진행하기도 해요. 내년부터는 플레져랩을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어볼 생각이에요. 이미 검은색 시트지에 조악하게 만든 '성인용품'이라는 간판을 내건 섹스토이숍은 사라진 지 오래고, 심지어 저희가 만들어낸 밝고 여성진화적인 인테리어조차 한물간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성생활에 관한 흥미로운 콘텐츠를 내놓는 거예요. 사실 섹스토이는 충분히 양질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섹스토이를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그보다 사람들의 뒤쳐진 인식을 앞으로 당겨줄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성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적이고, 숨겨야 한다는 것에 가깝잖아요. 성욕은 기본적인 욕구고, 성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말을 수없이 듣고 있는 데도 말이에요. 또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 외에 섹스를 하는 상대와의 교감에 대해서도 바뀌어야할 인식이 많고요.

일단 섹스토이를 자위 도구로만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꾸고 싶어요. 자위는 섹스토이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일부에 불과해요. 오히려 섹스를 하면서 서로의 불만족을 해결하는 대화의 도구나 더 다양한 방식으로 오르가슴을 느끼고 싶을 때 유용한 게 섹스토이에요. 특히 남성분들은 제발 내 여자친구 혹은 아내를 섹스토이에게 뺏길지도 모른다는 망상은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인간의 도구의 동물이에요. 밥 먹을 때 수저나 젓가락을 쓰듯이 그냥 더 편하고 맛있게 즐기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라고 해요. 섹스토이로 더 관계가 좋아진 커플에 대한 후기나 제가 직접 체험했던 이야기까지 온갖 에피소드를 풀어내지만 아



직도 반응은 반반이에요. 어쩌다 섹스토이가 페니스만큼 남자들의 자존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된 걸까요? 저희의 제품으 로 잃어버린 50년의 섹스 라이프를 되찾은 80대 부부도 있는데 말 이에요.

재미있는 건 이런 현상은 유독 아시아에서만 벌어진다는 거예요. 매년 다양한 나라의 박람회나 섹스토이숍을 찾아다니는데, 유럽이나 미국이라고 무조건 성에 대해 개방적인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섹스토이의 70~80%는 여성이 쓰는 물건이라는 인식이 강해요. 그래서 올리브영 같은 편집매장에 화장품과 함께 섹스토이가 놓여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아시아는 일본의



재킷은 **& OTHER** STORIES 제품 영향을 받아서인지 남자들의 자위 도구로 여겨지고 있어요. 사실 두 가지 인식 모두 선입견이긴 하죠.

경계심과 의심으로 성생활에 대한 인식이 같은 자리에 머무르는 동안 반대로 섹스토이의 세계는 아이폰 못지않게 매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중이에요. 흡입식 자극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든 우머나이저가 대표적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진화된 섹스토이는 따로 있어요. 독일에서 2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브랜드 펀펙토리에서 만드는 제품은 늘 흥미를 유발하는데, 그중에서도 앞뒤로 피스톤 자극이 되는 펄세이터는 정말 획기적이에요. 플레져랩 내에서 가장 핫한 건 크레이브에서 만든 못 모양의 바이브레이터 베스퍼예요. 작은

"자위는 섹스토이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일부에 불과해요. 오히려 섹스를 하면서 서로의 불만족을 해결하는 대화의 도구나 더 다양한 방식으로 오르가슴을 느끼고 싶을 때 유용한 게 섹스토이에요. 특히 남성분들은 제발 내 여자친구 혹은 아내를 섹스토이에게 뺏길지도 모른다는 망상은 멈췄으면 좋겠어요."

클리토리스 내에서도 유독 큰 자극을 느끼는 부분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이전의 바이브레이터가 클리토리스 전체를 자극했다면, 베스퍼는 아주 좁은 부분에 자극이 가능해 자신의 성감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무를 주고받을 때 애매한 곳에서 헤매면서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 없이 "내 클리토리스 왼쪽 아래부분을 자극해줘"라는 말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놀랄 만한 제품들을 보면 플레져랩 이름을 걸고 우리만 의 것을 만들어보고 싶기도 해요. 그렇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 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정말 잘해내고 싶거든요. 다만 성 문화의 개선을 위한 메시지로 만드는 제품이 있긴 해요. 대표적인 게 '노콘노섹' 콘돔이에요. 특별할 것 없는 콘돔이지만, 가격이 파격적이에요. 하나에 300원대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파는 콘돔이 보통 3천 원에서 5천 원 정도 하잖아요. 성인들은 몰라도 청소년들은 부담되는 가격일 거예요. 낙태율을 줄이자면서 아이들을 교실에 앉혀두고 지루한 성교육 비디오를 틀어주는 것보다 최소한 피시방 가는 비용보단 싼 콘돔을 내놓자는 생각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판매수익금은 연말에 모두 기부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건강한 성 문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만한 제품으로 하나씩 시작하려고 해요.

플레져랩을 이어가면서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신뢰, 공감, 제품'이에요. 이곳에서는 섹스 라이프에 관한 어떤 고민이든 편하게 털어놨으면 해요. 센 척할 필요도 없어요. 처음이지만 몇번쯤 와본 듯이 당당하고 싶은 마음과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질문까지 해가며 궁극의 토이를 사고 싶은 상반된 마음이 동시에 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처음오신 분들을 알아보는 것쯤은 제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어떤 질문이든 하는 편이 자신의 성감대와 애욕을 찾기에 훨씬 쉬운 방법이에요. 오르가슴 한번 못 느껴봤으면 어때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당신이 원할때마다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고요. ♥

#### **PLEASURE LAB**

합정동과 가로수길에 위치한 플레져랩은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프리미엄 섹스토이숍이다. 독일의 펀펙토리, 미국의 데임, 영국의 제 주아 등 안전하고 재미있는 섹스토이 브랜드를 국내에 소개하며 보다 즐거운 성 문화를 조장해 나가고 있다. ◑ http://plsl.net

## THE AUTONOMOUS CAR

운전대에서 손을 떼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BY 김형준

우리가 아는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니다. 표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는 영어 단어 'Automobile'에서 오토(Auto)를 자동(自動)이라는 뜻으로 직역해 쓴 대표적 오역 사례다. 오토모빌의 오토는 자동보다는 자신 또는 스스로의 의미에 가깝다. 19세기에 등장한 자동차(오역이지만)는 말의 힘을 빌려 달리던 마차와 달리 몸체에 담긴 엔진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힘을 이용해 달렸다. 그러니까 자동차, 아니 오토모빌은 이를 구분하기 위해 생겨난 당시의 신조어였던 셈이다.

음, 고릿적 얘기를 꺼내는 건 자동차라는 단어를 떳떳하게 써도 좋은 시대가 코앞에 다가와 있어서다. 손목시계에 대고 부르면 알아서 달려오고 좌석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어도 스스로 제 갈길을 가는 진정한 자동(自動) 차(車)의 시대 말이다. 세상사에 밝은 〈플레이보이〉독자라면 분명 들어봤을 거다. 자율주행 자동차

(Autonomous Car)라는 단어를. 자율(自律)이라는 한자어가 다소 딱딱하게 들리긴 하지만 이는 주변 상황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는 차라는 의미인 만큼 현시점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다(이 단어를 처음 떠올린 그에게 축복이 있기를).

의구심을 거두지 못한 독자를 위해 덧붙여 설명하자면, 지금 자동차 세상은 자율주행 시대 준비에 여념이 없다. 스웨덴 볼보자동차는 2021년까지 사람이 끼어들거나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의 완벽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장에 내놓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뿐만 아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토요타, 닛산 등 세계 굴지의자동차 브랜드들 역시 2020년이면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 검색 광고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생태계로 IT 공룡이 된 구글조차 그 무렵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이 2017년 말이니까 이제 겨

김형준은 국내 최고 자동차 전문 매거진 〈모터 트렌드〉의 편집장이다. 그는 자동차에 관한 일이라면 냉정하게 분석하고 파헤치며 매달 매력적인 이슈를 지면에 담는다.





우 3~4년 남았다. 이제 실감이 나는가?

그조차 막연하다면 당장의 이야기를 해드리겠다. ADAS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없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인텔리전트 드라이브나 파일럿 어시스트, 오토파일럿 같은 표현은? 이는 모두 요즘 자동차에 쓰이는 자율주행 근접 기술을 일컫는다. 가격이나 지위에 따라 정도 차이는 있지만 앞차와의 간격에 따라 속력과 주행 방향을 조절하고 어떤 경우 스스로 완전히 멈췄다가 나시 움직이는 일까지는 요즘 차에겐 일도 아니다. 많은 한국인이 하찮게 여기는 현대 자동차조차 소형 SUV 코나에까지 이 같은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을 담고 있는 실정이다. 고도의 기술이 제한적이나마 저렴한 차에도 적용돼 있다는 건 대중화가 멀지 않았다는 의미다. 거듭 말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는 허황된 미래가 아니라 당면한 현실이다.

그런데 차가 알아서 달리고 돌고 멈춘다면 운전자는 왜 필요하지? 그게 지하철이나 버스와 다를 건 뭐고? 그럼 자동차를 구입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닐까? 나는 스스로 움직이는 차 안에서 뭘 해야해? 자동차를 좋아하고 운전 행위를 즐기는 사람의 고민은 이처럼 하염없다. 일부 자동차성애자들은 "자율주행 차는 거세당한 남성과 진배없다"는 과격한 주장을 일삼기도 한다.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음, 그건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산속에 칩거해 사는 일과 다





를 바 없다.

실제로 많은 자동차 회사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공유 자동 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의 소유물이었던 자동차를 공공의 공 유물로 바꾸는 작업이 한창이라는 얘기다. 자동차 기업이 공유 자동 차 보급에 본격적으로 달려들면 운전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 이 들(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은 전에 없는 편리를 누릴 수 있다.

도심환경 개선 효과는 또 어떻고, 예컨대 도심을 자율주행차만으로 채우면 인도와 차도의 경계가 사라진다. 차가 주변 모든 사물을 인식하고 소통하며 움직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타지 않는 시간 동안 타인과 공유하면 차를 하염없이 세워둘 일이 줄고 주차 공간도많이 할애할 이유가 없다. 차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주차 시설을 아예 도심 외곽으로 옮기는 일도 가능하다. 그럼 자동차에 점령 당했던 도심 공간 대부분을 녹지나 편의시설 등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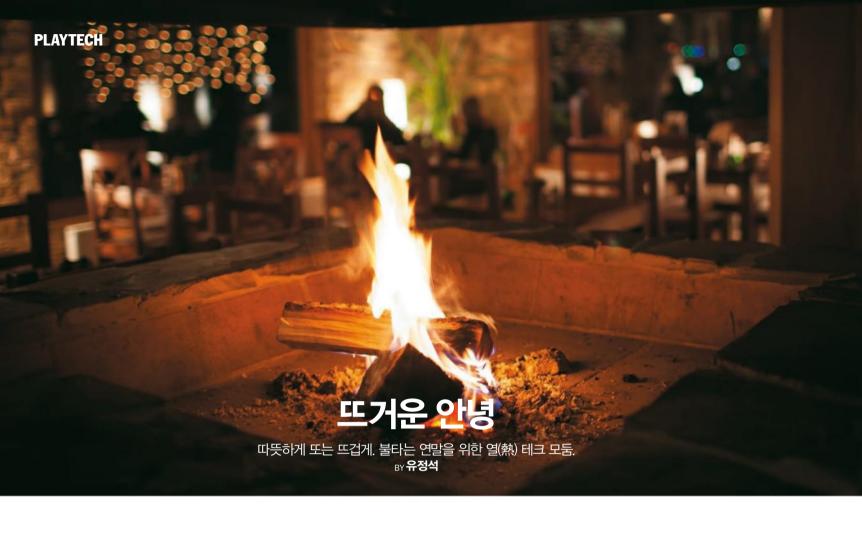
공유가 아닌 소유의 개념이 여전해도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혜택은 결코 적지 않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사고발생률의 현격한 감소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차량 사고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미리부터 운전하는 재미를 포기할 필요도 없다. 아우디, BMW 등 주행의 즐거움을 브랜드의 핵심가치로 두는 회사들은 심지어 자율주행 기술이 더욱 짜릿한 운전 경험을 선사해줄 거라 공언한다. 똑똑한 인공지능이 일러주는 대로만 조작하면 최소한 아마추어 레이서만큼 빠른 주행이 가능하리란 설명이다.

시간을 벌수 있다는 점은 또 어떻고, 몇 년 전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CEO 디터 제체는 자율주행 연구차를 선보이며 "시간은 미래의 럭셔리다"는 말을 남긴 바 있는데, 럭셔리 카 브랜드 CEO니까 꺼낼 법한 명제임을 고려해도 격하게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출퇴근하면서 운전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2시간을 오롯이 내 것으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 안에서라면 운전석 등받이를 길게 늅혀 한잠을 자는 일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한없이 뒤적거리는 일도 모두 가능하다. 최악은 자율주행차가 기껏 벌어준 시간을일하는 데 써버리는 것이지만 그쯤 되면 우리 사회도 '지금은 자율주행 중이므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큼 건강해져 있지 않을까 싶다.

어쨌든 고도의 인공지능이 운전을 대신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하던 다양한 활동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 '클 락할 시간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의미다. 나아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점점 편리하고 매력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그 서비스에 흥미를 느끼면 다음 단계는 구매 내지는 유료 콘텐츠 이용이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3개월 무료체험이라는 미끼부터 던진다. 대부분 사용자는 무료체험을 신청했는지조차 까맣게 잊고 3개월을 보내고, 대부분 제공자는 그런 무감각한 사용자에게 단 1시간의 오차도 없이 '결제 완료' 문자를 보낸다. 자율주행 시대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건 어쩌면 '스트리밍 서비스와 각종 소액결제 폭탄'일지 모른다. 오늘 내가 구글로부터 유튜브 레드 콘텐츠 이용료 결제 문자를 받아서 홧김에 하는 얘기는 정말 아니다. ❸ EDITOR YANG BOYEON

공유가 아닌 소유의 개념이 여전해도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혜택은 결코 적지 않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사고발생률의 현격한 감소다.

1 아우디가 '2017 프랑크 푸르트 모터쇼에서 공개한 '더 뉴 아우디 A8'은 조건부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됐다. 2 '더 뉴 아우디 A8'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와 다차선도로에서 시속 60km 이하로 서행하는 경우 'Al 트래픽 잼 파일럿'이 운전을 책임진다. 3 지난 9월 볼보가 공개한 '더 뉴 XC60'은 반자율주행 기능인 '파일럿 어시스트 2'를 적용한 모델이다.



얼마 전 3D 프린터를 알아보던 중 신기한 걸 발견했다. 릭스 펜이란 물건이다(lixpen,com). 물체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글루건을 펜처럼 만든 것이다. 열가소성을 가진 필라멘트를 펜 뒤쪽에 꽂으면 펜촉 부위의 열선을 통과하며 녹아 흘러나온다. 녹은 필라멘트가 물처럼 출렁거릴 정도로 액화되는 건 아니다. 글루건으로 녹인 글루보다 점도가 높고 더 빠르게 굳는다. '녹였다'기보다는 '무르게 했다'는 게 적절한 표현일지도, 따라서 지지점에 붙어만 있다면 릭스펜을 허공에서 어느 정도 수평에 가깝게 움직여도 '선'이 아래로 무너져(흘러) 내리지 않는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이처럼 전혀 새로운 방식의 물건은 그야 말로 백문이 불여일건. 소개 동영상을 보면 깨닫게 된다. 어떻게 사용 할지는 당신의 창조력에 달렸다는 것을. 선을 입체적으로 얽어 3차원 구조물을 만들 수도 있다. 종이에 프린트한 밑그림을 복제하듯 그린 다음에 종이에서 떼어내는 식으로 근사한 장식물을 만들 수도 있다.

3D 프린터처럼 ABS와 PLA 수지를 사용하며, 11가지 컬러가 있다. 릭스펜의 핵심은 섭씨 200℃까지 가열하는 히터다. 다만 전원은 배터리가 아니라 유선 방식이다. 반도체 회로만을 구동하는 LED 나 녹음기라면 얼마든지 배터리로 해결 가능했겠지만, 히터라는 게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물건이라서 펜이라는 형태상 배터리를 넣을 공간이 없어서다. "에이, 아이코스도 배터리잖아." 요새 유행하는 짤막한 만년필 크기의 전자담배 사용자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한 가열 시간이 짧고 일정한 아이코스와 달리 릭스펜은 마

유정석은 박식(博識)하기를 바라고 하나씩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리지만 알면 알수록 박식(薄識)하다는 사실에 슬퍼하는 잡지쟁이다. 요즘은 기업 사보를 만들고 있다. 냥 오래 사용하기도 하는 도구라서 배터리로 해결할 수가 없다.

전자담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이코스는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다. 필립 모리스는 이미 20년 전에 담배를 빨아들이는 순간에만 가열하는 흡기작동 라이터(Puff-Activated Lighter)를 개발해 어코드(Accord)라는 브랜드로 전자담배를 출시한 적이 있었다. 전용 담배를 꽂아 배터리 전원으로 가열한다는 구조는 동일하다. 어코드는 아이코스보다 컸는데, 오히려 지금의 전자담배 후발 경쟁자인 BAT 글로와 비슷했다.

릭스펜이나 전자담배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열이 필요한 장치지만, 가열 그 자체가 목적인 전기손난로도 있다. 휴대용 배터리 역할을 겸하는 제품이 많으므로 겨울철 아웃도어 활동이 많은 사람이라면 하나쯤 장만하는 것도 좋겠다. 애인이 유독손이 차가운 사람이라면, 몇 만원이면 충분한 데다 늘 들고 다니는 물건이니 볼 때마다 내 생각 하라면서 선물하기에도 손난로가 딱좋다. 매일같이 쓸 게 아니니 굳이 살 필요가 없다면 이런 대안도 있다. 스마트폰에 손난로 앱을 까는 거다. 폰이 아주 그냥 뜨끈뜨끈해질 때까지 게임 좀 해본 사람이라면 쉽게 원리를 이해할 터. 프로세서에 일부러 부하를 쥐 발열시키는 앱이다. 폰(배터리) 수명을 갉아먹기 십상이라는 부작용이 있다.

릭스펜이나 전자담배처럼 일부러 열을 내기 위한 히터든, 열을 안 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열이 나는 스마트폰의 프로세서든 발 열 원리는 같다. 전기가 도체를 흐를 때 발생하는 저항(전자의 충돌)





은 빛이나 열을 낸다. 빛을 잘 발생시키게 만든 도체가 전구(백열전 구)의 필라멘트고 열을 잘 발생시키게 만든 도체가 전열기구의 열선 이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프로세서는 발열이 목적이 아니지만 워낙 미세한 회로가 촘촘히 집적됐고 소모 전력이 커서 작동 부하가 클수록(열심히 일할수록) 심하게 열이 난다. 그나마 사람처럼 땀은 안 나니 다행이지.

고성능 지향의 프로세서일수록 발열이 심해져 수랭식 쿨러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쓰고 보니 생뚱맞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 바 로 11월호 칼럼에서 언급한 AI 섹스 로봇의 프로세서로 쓰면 좋겠다 는. 프로세서에서 데워진 물을 라디에이터와 팬으로 식히는 게 아니 라 로봇의 피부 아래 보일러 배관처럼 깔아서 냉각시키면? 로봇에게 서 체온이 느껴지지 않겠는가! 퇴근하고 집에 가서 로봇과의 대화 상 상: "어우 춥다." "다녀오셨어요, 주인님. 절전 모드 해제. 비트코인 채 굴 모드 전환. 표피 온도 상승. 60초 뒤 예상치 흉곽 섭씨 38℃, 어깨 37℃, 손바닥 36℃. 곧 따뜻해질 거예요. 안아드릴게요."

각설하고, 다시 전열기구로 돌아오자. 전기로 가열하는 전열기 구 중 우리와 가장 가까운 제품이 전기밥솥이다. 그런데 고급 밥솥 은 발열 방식이 다르다. 옛날 밥솥 또는 최신 제품이라도 저렴한 모 델은 전기저항이 큰 열선으로 가열하지만 IH라고 쓰인 고급 제품은 전자기 유도 방식이다. IH는 인덕션 히팅의 머릿글자. 고주파 전류를 코일에 흘려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면 전자기장의 범위 내에 있는 금속 에 열이 발생하는 원리다. 열선 밥솥은 니크롬선이 발생시킨 열을 내

1 릭스펜으로 녹인 필라멘트는 점도가 높아 선을 입체적으로 그리는 데 무리가 없다. 2 인쇄한 이미지를 릭스펜으로 정밀하게 따라 그려 만든 조형물. 3 요트 니니에트에 탑재된 화로. LPG 가스를 쓴다. 4 항공 서비스 기업

제트 에이비에이션이 고공 럭셔리 하우스로 개조한 보잉 737 맥스

솥에 전달하는 거고, IH 밥솥은 유도전류에 의해 내솥이 자체 발열 한다. 요즘 주방의 인기 상품인 인덕션 레인지도 유도가열 방식이라 서 금속 냄비가 아닌 뚝배기를 끓일 수는 없다.

냄비는 뜨겁게 가열할 수 있어도 종이에 불을 붙일 수는 없는 인 덕션은 역설적이지만 차가운 뜨거움이라고나 할까? 인덕션은 열일 뿐 불이 아니라서 그렇다. 자고로 열(熱)과 불[火]은 샴쌍둥이처럼 붙어 있는 존재였는데 첨단 기술로 분리 가능해진 거다. 효율 좋고 안전하고 빠른 최신의 기술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아궁이 장작 불에 얹은 가마솥으로 지은 밥이 가장 맛있다고 주장하는 내 친구 하나는 이처럼 '감흥이 없는' 첨단 기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적지는 않아 디지털 기술인데도 아날로그를 모사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이테크지만 일부러 자동을 버리고 수동 을 택하기도 한다. 최고급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다. 불을 때는 난 방이 표준이던 시절엔 전기히터가 럭셔리였다면, 전기히터가 당연한 지금은 불을 때는 난로가 부의 상징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를 생산하는 부가티는 2015년 요트 장 인 팔머 존슨과 손잡고 니니에트라는 럭셔리 요트를 공개해 화제에 올랐다. 반응이 괜찮았는지 올해 니니에트 66이라는 후속 모델을 내놨다. 1000마력을 터뜨리는 16.2리터 V8 엔진으로 최고속도 44 노트(81km/h)로 달릴 수 있다. 스크루가 아니라 워터제트를 쓴다. 선체는 탄소섬유로 만들었다. 그런데 가장 '부티' 작렬하는 요소는 화로다. 안전과 편의성을 무시할 수 있다면 아마 장작을 실었겠지만, 니니에트 66의 화로는 LPG 가스를 사용한다.

불은 바다에 진출한 것뿐 아니라 하늘에도 올라갔다. 개인용 제트기 또는 비즈니스 제트기 하면 보통 작은 항공기를 생각하는데, 사실상 크기와는 무관하다. 그럴 만한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A380 을 자가용 비행기로 타고 다닐 수도 있다. 그걸 도와주는 회사도 있 다. 제트 에이비에이션은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둔 비즈니스 항공 서 비스 기업이다. 부호 클라이언트가 많은 이 회사의 디자인 스튜디오 는 예전에 보잉 737 맥스(좌석 배치에 따라서 최대 172~230명까지 탈 수 있는 중형 여객기)를 고공의 럭셔리 하우스로 개조하는 인테리 어 디자인을 선보인 적이 있다. 이 또한 벽난로에 눈길이 꽂힌다. 역시 LPG를 사용하는 모조화로(Fake Fireplace)지만, 그렇다고 두근 거림이 쉽게 잦아들지는 않는다. ❸ EDITOR YOU JISUNG





고로 열(熱)과 불[火]은 샴쌍둥이처럼 붙어 있는 존재였는데 첨단 기술로 분리가 가능해졌다.











# 스케이터 조광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조광훈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그것을 찍고, 스케이트보드에 대해 생각한다. 늘 언제나.

스케이트보드 웹 매거진 〈데일리 그라인드〉의 조광훈입니 다. 콘텐츠 기획을 주로 담당하고요. 저를 소개하면서 스케 이터라는 말은 안 쓴 지 오래됐어요. 오글거린다고 해야 하 나. 올해로 딱 20년 탔네요. 힙합바지에 체인을 한 형들이 멋있어서 시작했는데, 기술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저 비디오의 스케이터들처럼 내 개인 비디오를 만들고 싶다. 20대 후반까지만 해도 고집이 셌죠. '포저'란 말도 많이 쓰 고. 쟤네는 페이크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데일리 그라인드〉 운영하면서 시선을 넓히려고 노력해요. 궁극적 목표는 스케이트보드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예전엔 비디오 하나 찍는 데 1~2년씩 걸렸는데 이젠 인스타그램 보면 수많은 짧은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전 히 욕심나고 자극받아요. 20년을 탔는데 오히려 처음 시작 하는 느낌. 남이 타는 것에 영감받아서 그걸 제 것으로 녹여 내고 비디오로 찍는 그 과정이 정말 재밌어요. 같은 기술이 라도 팔 동작, 속도, 몸 모양 다 다르거든요. 푸시 오프부터 착지할 때까지 부드럽게 타는 사람들 있죠? 몸도 가벼워 보 이고. 그런 '스무드'한 스케이터를 좋아해요. 처음 스케이트 보드에 딱 올라간 날. 뭔가 내가 되게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 어요. 내가 스케이트보드 위에 있구나. 엄청 넘어졌는데도 즐거웠죠. 지금도 다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언제 다시 탈 수 있을까, 예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참지? 그래서 몸이 낫질 않아요. 움직일 수 있을 정도만 되면 계속 타니까.



@kwangstavision

# 타투이스트 미래

이 사람이라면 내 살을 맡겨도 될 것 같다는 신뢰. 한 번 그린 선은 지울 수가 없고, 타투이스트 미래는 흔들리지 않는다.

7년 됐어요. 고3 때 모은 돈으로 바로 타투를 배우기 시작 했죠. 사실 '꼭 타투이스트를 해야겠다'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게 제 길이더라고요. 성격이랑 잘 맞아요. 그림은 망치면 다시 그리면 되지만, 타투는 너무 소심하게 하면 안 돼요. 물론 '팍팍' 찌르다 미안한 경우도 가끔 생기지만…. 처음엔 다 재미있었어요. 도안 하나를 그려도 '와, 나 천재 같아!' 그 랬죠. 이제는 머리가 컸잖아요. 스스로를 연구하다 보니 오 히려 겸손해졌어요. 그래도 저는 매력적인 사람? 매력적인 사람한테 타투 받고 싶잖아요. 하루 이틀 몸에 남았다 없 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담할 때 우물쭈물하고 그러면 안 되 죠. "이 타투는 여기에 해요, 여기가 예뻐요." 하는 타투이스 트가 믿음이 가지 않아요? 우리끼리만의 교류 같은 게 있어 요. 고객이랑 살과 살이 맞닿고, 평생 갈 걸 제가 부모님도 아닌데 몸에 남긴 거니까. 사람은 다 기억 못해도 제가 한 타투는 다 기억해요. 타투에 꼭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고 생각해요. 하고 나서 의미를 담으면 되죠. 예를 들어, 이 건 내가 네팔에서 너무 좋아하는 친구한테 그냥 그때 받고 싶어서 받은 거. 상황과 순간 자체가 의미예요. 나무, 바다. 산 같은 자연 그리는 거 좋아해요. 그걸 만다라 문양이랑 어 떻게 섞어볼까 계속 고민하죠. 컬러보단 흑백. 컬러는 좀 질 릴 것 같아서, 제 몸에도 컬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만 다라 타투는 선이 일정해야 예쁘거든요. 그래서 요즘 변태 적인 강박이 생겼어요. 오늘도 이제 만다라 타투 시술할 거 예요. 발목이랑 발등. 아파 죽을걸요?



@rrrrro\_o

















# DJ 타이거 디스코

생경한 음악을 찾아내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트는 용기, 좀 다르거나 틀려도 밀어붙이는 뚝심. 타이거 디스코는 낯선 이름이 아니지만, 그의 음악은 그렇게 새롭다.

이스트 디스코 웨이브 크루 멤버이자. 남조선을 대표하는 비운의 디스크자키 타이거 디스코입니다. 요리도 하고 그 림도 그리고요. '비운'이란 말은 농담이지만 농담이 아니기 도 해요. 실제로 가요 틀다 무대에서 쫓겨나고, 욕먹고 그런 적이 꽤 있거든요. 사실 70년대 솔이나 훵크 같은 한국 가 요는 음원화된 게 드물어서, 레코드 디깅할 때도 어려워요. 사전정보 없이 흔히 말하는 '블라인드 디깅'을 하는 경우 가 많죠. 그래서 더 널리 알리고 싶어요. 사진의 구도나 글 씨 폰트, 가사, 작곡가 등 모든 게 단서가 돼요. 예전엔 그렇 게 찾은 노래를 틀면서 조마조마했는데, 별의별 일을 다 겪 다보니까 이제 두려움은 덜해요. 그렇다고 가요만 고집하 는 건 아니에요. 처음 디제잉을 시작하게 된 계기인 디스코 는 물론이고 시티팝이나 나이지리언 부기 같은 것도 즐겨 틀어요. 어쨌든 옛 음악을 다루는 디제이라는 점에는 변함 이 없죠. 사람들이 클럽에 오면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 무 대에 선 디제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옷도 음악과 어울 리게 입으려고 해요. 특히 중요한 날엔 이렇게 옛날식 정장 에 2:8 가르마를 하고 나서죠. 디제이라면 디깅이 습관이 돼 있어야 해요. 누군가에겐 아침밥 먹고 책 읽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거죠.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서울 곳 곳으로 나가고, 항상 온라인으로 새로운 노래를 찾아봐요. 무덤까지 갖고 가고 싶은 음반은 아소토 유니온 1집. 사실 1970~80년대 가요 음반엔 짜깁기 곡도 많고 군가도 들어 있고, 전곡이 다 좋은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갈 수록 더 아끼는 음반이 됐어요. 전반적 흐름이나 스토리가 훌륭한 음반이니까. 연말에 나이지리아로 요리를 하러 떠나 는데, 레코드 한 짐 사 와야죠. 😵



@tigerdisco



# **@** GREEK ISLANDS

섬 크롤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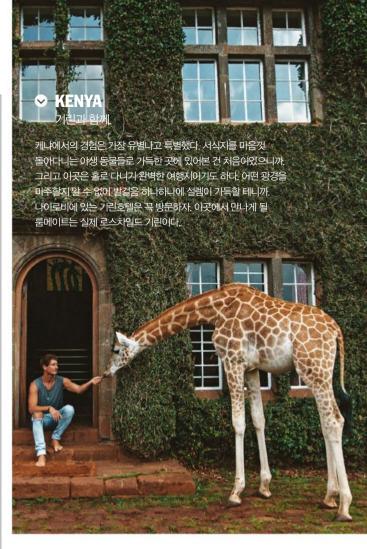
점을 돌아다니며 유랑할 곳을 찾는다면, 그리스가 제격이다. 우선, 인상적인 흰색 건물들과 저무는 해를 감상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산토리니섬이 있다. 그 근처의 이오스섬은 언제나 신나는 파티가 열리는 곳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사실 이곳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넘쳐나는 탐험 장소, 수정처럼 맑은 물속으로 다이빙을 하거나, 섬을 한 바퀴 돌면서 자연을 만끽하기도 좋다. 미코노스섬은 파랗고 하얀 주택으로 유명한데, 바라보고 있으면 영화 촬영장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한산한 섬으로는 자킨토스섬을 추천한다. 아테네에서 비행기로 쉽게 갈 수 있는 이곳은 당신의 필수 방문 리스트 중 첫 번째 순위에 자리 잡어야 마땅하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난파선 해변'으로 잘 알려진 나바지오 해변을 마주하게 된다. 절벽 꼭대기에 올라가 주위를 돌아보는 건 어떨까. 마지막으로, 그리스에서 내가 가장 좋이하는 섬은 산토리니섬에서 남서쪽으로 96km쯤 떨어진 밀로스섬이다. 나 홀로 호젓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정처 없이 떠돌면서 매력적인 자연을 가까이 느껴보자.



# MONTANA

밤에도 낮에도.

몬태나는 경이로운 곳이다. 몬태나 관광청에서 근무할 때, 밤이 되면 일몰을 감상할 장소를 찾아 로키산맥 안쪽으로 치를 몰곤 했다. 낮에는 글레이셔 국립공원의 맥도널드 호수로 향했다. 빼어난 산악 지형과 다채로운 돌멩이를 볼 수 있는 곳.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북부 지역으로 하이킹을 떠났을 때다.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르고 거대한 크래커 호수를 마주했을 때의 기분이란!



# SOUTHEAST ASIA

따로 또 같이.

혼자 동남아시아로 떠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마음이 잘 맞는 여행객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발리,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를 많이 찾는데, 그중 딱 한 곳만 골라야 한다면 발리다. 발리는 모든 것을 갖췄다. 개성 넘치는 카페와 해변, 그 경치와 어울리는 문화와 태평한 분위기까지.





# MOROCCO

카사블랑카 스타일.

모로코를 가로질러 드라이브를 한 적이 있다. 대부분 사막이었는데, 낡은 차는 시속 80km로 달리면서 요동을 처댔고, 모래폭풍과 폭우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와이퍼가 작동을 멈췄다. 마라케시에서 렌터카를 구한 다음 출발하는 걸 추천한다. 모로코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사막에서의 캠핑이었다. 텐트 바깥에 자리를 깔고 누워 별들이 수놓은 청명한 밤하늘 아래에서 단잠을 청했다. 마라케시에서 북쪽으로 560km쯤 떨어진 셰프사우엔은 파란색으로 물들인 15세기 건물로 가득해 '블루 시티'라고도 불린다. 가는 길에 카사블랑카에 들러 험프리 보가트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도 잊지 마시길.



# SRI LANKA

열반의 계단.

하이킹에 열광하지는 않지만, 스리랑카의 애덤스 피크는 놀라운 경험이었다. 수천 개의 계단을 밟고 올라 정상에 닿는 데 4시간이나 걸린다. 하지만 그곳에 서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경관을 마주하게 된다. 그곳에서 70대 여자가 종교의식을 거행하러 정상에 오르는 모습을 내내 지켜봤다. 꼭대기에 위치한 1.8m 길이의 '스리파다(성스러운 발자국)' 바위를 부처님이 남긴 발자국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 해수면 근처에서 즐길 거리를 모색 중이라면, 스리랑카 남쪽 끄트머리의 우나와투나 바다 위에 설치한 외줄 그네를 찾아보자.

# JORDAN

불가사의를 마주한 순간.

시리아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요르단을 오해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요르단은 안전한 나라고, 요르단 국민은 외지인에게 매우 우호적이다. 이곳에서 최고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당신 나름대로 모험을 떠나는 거다. 남서쪽 사막의 유명한 유적지 페트라는 밤에 방문하면 수백 개의 촛불이 페트라의 시크(Siq, 출입구)와 보물 창고를 밝히고 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에서 느긋한 마음으로 흘러나오는 베두인 음악에 귀 기울여보자.





# THE GEAR EVERY TRAVEL NERD NEE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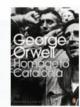
잭이 가장 좋아하는 카메라부터 낯선 곳에서 한잔하는 데 필요한 용기까지. 당신의 즉흥 여행을 위한 필수품 5가지를 추천한다.



ALL-WEATHER ALL STAR 풀오버는 PATAGONIA 제품



SHOOT IT 풀 프레임 카메라는 CANON 제품



**TRAVEL COMPANION** 조지 오웰의 소설 **〈카탈로니아 찬가〉** 



**DOUBLE THE UTILITY**USB 겸 포켓 나이프는 **VICTORINOX**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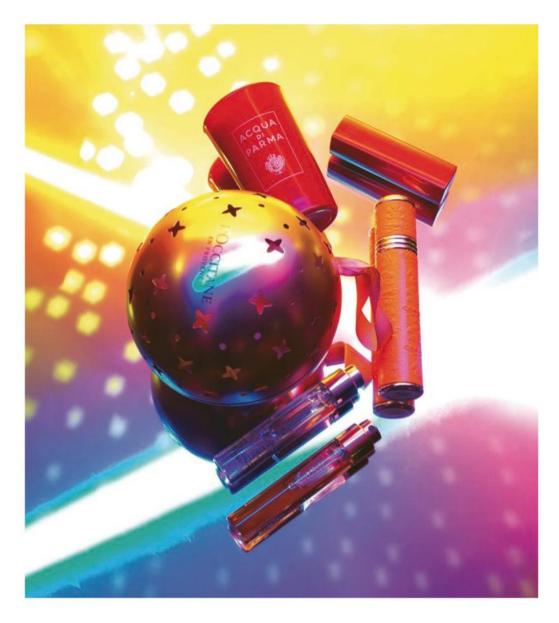


BOTTOMS UP 클래식한 플라스크는 STANLEY 제품



12월은 크리스마스 조명보다 빛나는 연인에게 마음을 전할 때.

GUEST EDITOR LEE SUNYOUNG PHOTOGRAPHY BY PARK JAEYONG



# **BEAUTY**

매해 연말이면 뷰티 브랜드들은 홀리데이 에디션 제품들을 출시한다. 개성 있는 체취를 만들어주는 향수, 강렬한 패키지로 다시 태어난 아이코닉 제품. 여기에 반짝임을 입힌 패키지라면 선물하는 마음도 뿌듯해질 거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미니어처 사이즈의 체리 블로섬 향 보디로션. 샤워젤. 핸드크림이 들어 있는 원형 트리 장식 오너먼트는 L'OCCITANE, 세 개의 미니어처 항초로 구성된 '크리스마스 미니 캔들 세트'는 ACQUA DI PARMA, 빨간색 패키지로 특별함을 더한 홀리데이 에디션 립스틱 '루쥬 알뤼르' N'1 인텐스 레드 컬러 립스틱은 CHANEL, 미니 사이즈 향수를 휴대하기 좋은 '레더 포켓 아토마이저'는 CREED, 사진 속 '아쿠아 셀레스티아', '그랑 수아'를 포함. 총 8개의 미니어처 남성 향수로 구성된 '프레그런스 워드로브 포 힘' 선물 세트는 MAISON FRANCIS KURKDJIAN 제품







# **TECH**

테크 마니아들의 연말 최대의 이슈는 역시 새로 출시된 아이폰이다. 그중 아이폰 X은 소프트웨어적 새로움을 더해 사용의 즐거움을 강화했다. 사용자의 표정을 따라 움직이는 애니모지에 상대방의 짓궂은 표정을 담아보는 건 어떨까.

1천2백만 화소 듀얼 픽셀 센서의 후면 카메라와 베젤리스 디자인으로 더욱 넓어진 OLED 화면, 홍채와 얼굴, 지문 인식으로 강화된 보안 체계, 음성과 이미지로 더 쉬운 스마트폰 사용을 돕는 인공지능 빅스비, 그리고 삼성페이가 가능한 '갤럭시 8'은 **SAMSUNG,** 홈 버튼을 없애 더욱 넓고 선명해진 OLED 화면, 3D 센터 장착으로 얼굴 인식 보안 시스템인 '페이스 ID'와 이미지를 합성할 수 있는 AR 가능, 사용자의 표정을 따라 움직이는 이모티콘 애니모지 같은 기능을 더한 '아이폰 X'는 **APPLE**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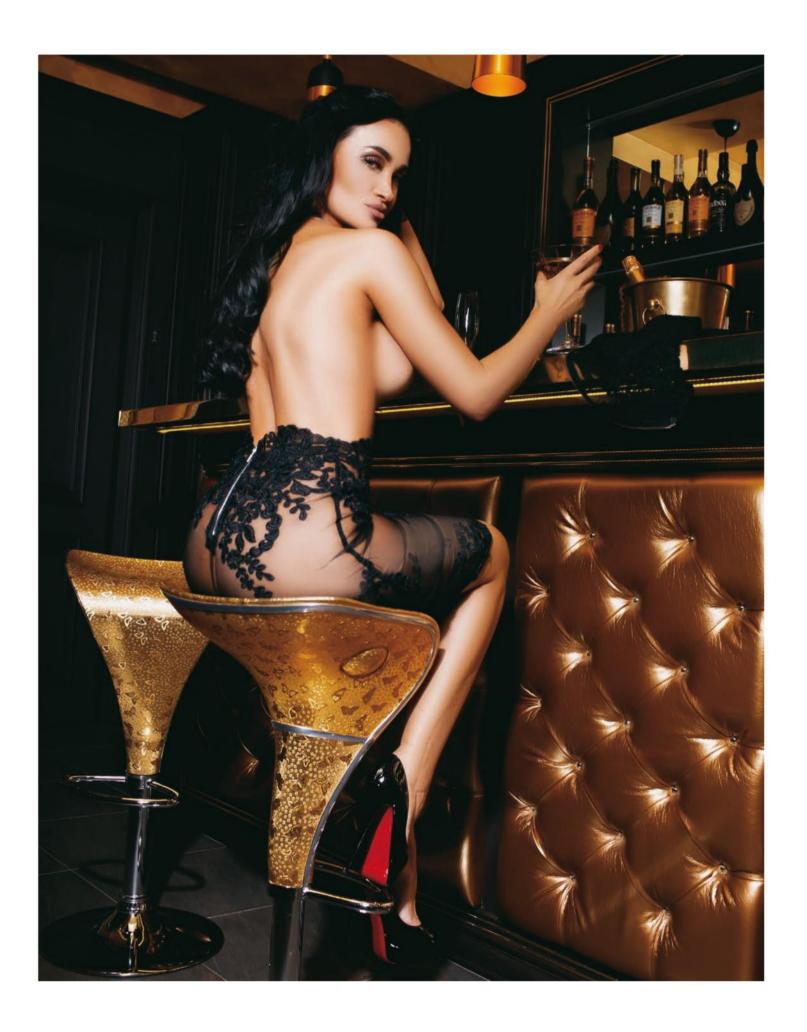
# **DRINK**

만남의 목적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이는 현자라면 알코올 도수가 높지 않은 가벼운 술 선택은 기본이다. 그중에서도 과일 향이 향긋하고 달콤한 술이라면 더욱 높은 스코어를 기록하게 될 것.

(왼쪽부터) 라즈베리 특유의 달콤한 맛과 풍부한 향, 3%의 낮은 도수로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호가는 로제' 맥주는 HOEGAARDEN, 은근한 라즈베리와 스트로베리의 맛과 향이 남자들에게도 부담스럽지 않은 '버니니 블러쉬' 스파클링 로제 와인은 BERNINI, 프랑스 노르망디산 사과를 수공으로 착줍해 풍부하고 신선한 과일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쎄시 시드르 로제' 와인은 SASSY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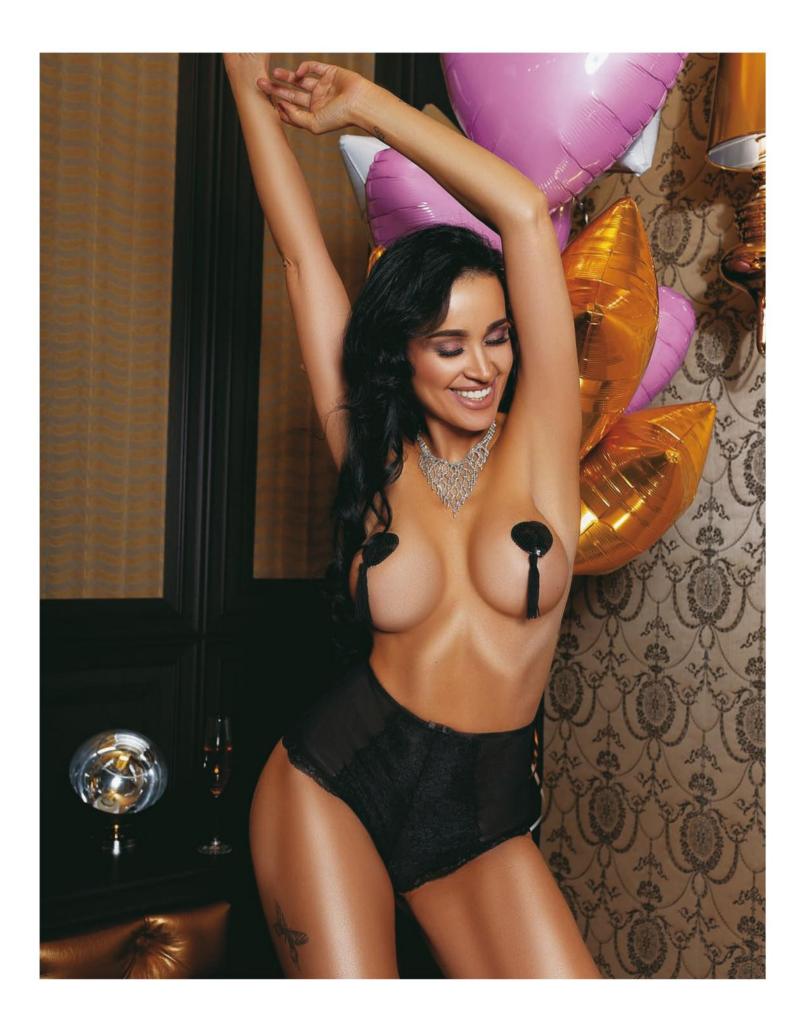














다사다는이란 말도 모자라는 2017년, 그 격랑 속에서 〈플레이보이〉가 주목한 40명의 한국 남자들.

EDITORS YOU JISUNG, KANG YESOL, YANG BOYEON

문재인

2017년도 언젠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거다. 지금이 어떻게

기록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첫 줄에 누구의 이름이 쓰여 있을지는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내내 사람들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남자임이 분명하다.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며 청와대에 입성한 날, 대통령은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하는 날이라 말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다시 불리기 시작했고, 사드는 결국 배치되었다. 트럼프는 위안부 할머니와 포옹을 나눴고, 대통령은 "한국은 베트남에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무능'이라 표현했고, 다른 이는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라고 말한다. 그리고 앞으로 5년이 남았다.

이승엽은 시즌 전 미리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고도 올해 홈런을 24개나 기록했다.

하지만 그의 단단한 결심엔 변함이 없었다. "이제 정말 은퇴를 해야 할 때가 됐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홈런 하나에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시원한 라인드라이브 타구로 22번째 홈런을 날린 뒤였다. 그리고 맞은 시즌 최종전이자 은퇴 경기. 이승엽은 첫 타석부터 홈런을 쳤다. 하나로 모자라 연달아 한 개 더. 그리고 언제나처럼, 두 손 번쩍 드는 대신 고개 숙이고 빠르게 그라운드를 돌았다. 만화 같은 결말, 품위 있는 퇴장. 5번의 MVP,

한일통산 626개의 홈런.

어쩌면 봉준호가 할리우드의 호출을 받은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의 전작에서

한국적인 색을 덜어내고 SF 장르적 특성을 부각하면 할리우드 SF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위기 앞에 놓인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이 빚어낸 이야기 〈옥자〉의 골조가 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옥자〉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가 제작한 영화라는 점도 특별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옥자〉를 기대하면서도 걱정한 이유가 된다. 세계를 무대로 두 번째 영화를 준비한 한국 감독은 어떤 영화를 선보일까? 넷플릭스 제작 영화가 멀티플렉스를 대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 전자는 각자 감상이 달랐을지 몰라도. 후자는 특별한 선례를 남겼다. 멀티플렉스가 아닌 극장과 독립예술영화전용관 등에서 100여 개의 스크린을 확보했고, 그 안에서도 유의미한 관객 수를 기록했다. 다양성 영화를 독과점한다는 문제를 낳았지만, 〈옥자〉가 상영된다는 이유만으로 관객은 소규모 극장을 찾아갔다 〈옥자〉의 관객 수 32만 명은 한국 영화에 특별한 숫자다.

우워재는 〈쇼미더머니〉를 별로 즐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삶이

항상 재미난 게 아닌데, 굳이 여기라고 즐거울 필요가 있냐는 태도 같았다.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 조마조마하고, 긴 문장에 숨이 모자랄까 맘 졸이게 되지만 꼭 긴장해서 그런 것 같진 않았다. 대신 아슬아슬한 것을 집중해서 볼 때의 긴장이 생겼다. 가까이서 보니 더 선명했다. 요즘 누가 저렇게 옷을 입나. 누가 저렇게 랩을 하나. 그래서 요즘 저런 래퍼가 어디 있나? 없다. "오늘도 똑같은 밤을 맞어. 그래서 똑같은 가살 썼고 그래서 똑같은 모잘 눌러쓰고 똑같이 눈을 깔어, 나." 그렇게 똑같은 우워재가 일종의 성장 드라마인 서바이벌을 성장 대신 '스타일'로 이겨낸 통쾌한 순간.

카카오는 2017년 3분기에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분기 영업이익도

2015년 1분기 이후 최대다. 그 중심에는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국내 500대 기업 CEO 중 최연소인 임지훈 대표가 있다. 그는 실적 발표와 함께 카카오의 인공지능(AI) 플랫폼 '카카오 아이' 서비스를 소개했다. 20~30대는 그를 롤모델로 꼽고 카카오는 가장 들어가고 싶은 기업을 묻는 설문에 매번 1위를 차지한다. 그리고 그는 리더십에 관해 "문화는 사원이 바꿀 수 없다. 리더만 바꿀 수 있다. 리더는 변명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 젊은 CEO는 많지만, 성공적이면서 젊은 CEO는 흔치 않다. 그리고 그는 그중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다.

양세형

2003년 '쭤뻐쭤뻐'로 데뷔한 양세형은 14년 뒤 '바리바리 양세바리 에블바리

쉑더바리 렛츠고바리 컴온바리 제주도엔 다금바리 살아있는 다금바리…'로 전성기를 맞았다. 오탈자 투성이지만 고치지 않겠다. 명확하게 말하는 양세형의 발음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양세형은 14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한결같았다. 바가지 머리도, 앳된 얼굴도, 그 얼굴로 뻔뻔하게 놀려대듯 말하는 말투도. 지나치게 명확한 발음도. 그가 2017년 〈플레이보이〉가 꼽은 '올해의 남자'가 됐다. 몇 년 전에는 그를 예의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도 지금은 귀엽다고 말한다. 눈치는 보지만 주눅 들지는 않는 그의 뻔뻔함이 이제 통하기 시작한 거다. 특히 고압적이고 마초적인 성향이 강한 캐릭터와 만났을 때 그의 태도에

> 사람들은 묘한 희열을 느낀다. 이상한 논리로 몰아붙이다가 뜬금없이 폴짝 안긴다. 온갖 깨방정을 떨다가도 허를 찌르는 한마디로 상대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예상 가능한 아무 말 3행시도 여전히 웃긴다. 이만하면 볼링 점수는 200이지만 키는 167cm인데 만하지 않나?(사실 그의





송강호

송강호의 얼굴이 스크린에 나오는 건 익숙하다. 아니,

당연하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영화의 얼굴 중 하나다. 송강호는 그런 배우다. 그가 출연한 〈택시운전사〉는 올해 8월 개봉했다. 유독 부끄럽고, 시끄럽고,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보낸 국민에게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뼈아픈 역사를 다시 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다. 그런데도 수많은 관객이 〈택시운전사〉를 보며 울고 웃었다. 그 중심엔 송강호가 있었다. "영화 한 편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냐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말해요. 영화는 그럴 수 있다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그는 〈뉴스룸〉에서 80년대 광주 배경의 〈택시운전사〉 시나리오를 받고 고민했다고 한다. "처음엔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제가 느낀 '뜨거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졌고.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송강호라는 영화배우의 마음에서 나온 뜨거운 촛불은 1200만 명에게 나눠졌다.

#### 윤종신

국내 음악계에서 윤종신만큼 꾸준한 뮤지션을 꼽으라면, 없다. 7년째 매달

한 곡 이상 〈월간 윤종신〉을 발표했고 그 사이사이 본인 앨범이나 동료 뮤지션의 음악에도 자주 참여했기 때문이다. 꾸준함이 낳은 성과일까? 그가 지난 6월 발매한 '좋니'는 각종 음원 차트 정상은 물론 윤종신에게 음악 프로그램 1위까지 선물했다. 돌아보면, 윤종신은 우리 곁에서 멀어진 적이 없었다. 그의 음악은 물론 거의 매일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왔다. 기억나는 게, 2011년 "진짜 가수가 뭔지 보여주겠다"며 등장한 (나는 가수다〉에서 윤종신은 가수가 아닌, 진행을 맡았다. 그의 뮤지션으로서의 역량과 별개로 그 무대에 서기엔 '요즘 가수' 같아서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 가수들 틈에 서기에도, 오래된 가수들 사이에서도 어색한 그런 가수. "이런 소중한 상은 직접 나가서 받아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영광이에요." 쟁쟁한 인기의 아이돌 가수 사이에서 '좋니'로 〈뮤직뱅크〉 1위를 차지한 윤종신은 수상 소감을 말했다. 그리고 그가 수상 소감을 말하는

이국종

지난 11월 13일, 총격을 당한 귀순 북한 병사가 향한 곳은 서울이 아닌 수원의

아주대학교병원 중증외상센터였다. 이국종 교수는 그곳의 센터장이다. 생사의 갈림길, 같은 말이 수사가 아닌 현실인 곳. 남의 생사를 다루는 곳에서 그는 목숨을 건다. 한 해 200차례가 넘도록 야간헬기를 타고 환자에게 날아간다. 그러다 어깨가 부러지고 무릎을 다치고 왼쪽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는 여전히 거기에 있다. "한국 사회에 오더를 내릴 사람은 많아. 근데 어떤 분야나 노가다를 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출연한 그는 분노했지만 체념하지 않았다.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고 했다. "갈등하는 상황이 되면 과감하게 들어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환자 당장 수술할까 말까 생각이 들 때 힘든 길을 가라는 거죠."(MBC FM 〈푸른 밤 이동진입니다〉 中) 올해 이국종의 말은 사람들을 깨우고 뒤흔들었지만, 정작 그는 낮밤 없이 마스크를 쓰고 메스부터 쥔다. "말로 하는 거 소용없고요, 실제 수술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내공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 마광수

"난 실패한 인생입니다. 착잡하네요. 내가 쓴 문학은 인정받지 못했고,

학계나 문단에서도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지난 9월 세상을 떠난 마광수 교수가 〈중앙일보〉와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다. 그의 말처럼 세상은 그를 외면했다. 1992년 발표한 〈즐거운 사라〉는 '음란문서'로 취급 받아 마 교수를 감옥에 보냈다. 고민해봤다. 그의 작품을 들여다본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는 정말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멸시한 걸까? 세상이 말하는 마광수로만 그를 판단하진 않았을까? 그가 떠나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를 들여다본다. "문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빼면 문학은 시체고요. 그리고 단언컨대 사랑의 본질은 섹스예요." 마광수는 누구나 그렇듯, 섹스를 좋아했다. 솔직했을 뿐이다. 그리고 자신의 문학적 상상에 섹슈얼리티를 더해, 깊은 서사를 녹여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작가였다. 섹스는 감춰야 할 부끄러운 행위가

신동엽

TV만 켜면 신동엽이 보였다. 그는 올해에만 11개의 예능에 출연했다. 농밀한

언변은 여전했고, 당연하다는 듯 웃겼다. 하지만 작년처럼 '신동엽 레전드' 같은 식의 웃긴 영상이 마구 퍼진 건 아니었다. 그렇다고 그가 출연한 예능이 인기가 없던 건 더욱 아니다. 〈SNL〉,〈인생술집〉,〈미운 우리 새까〉등 올해 가장 유명했던 프로그램의 중심엔 언제나 신동엽이 있었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그는 함께 출연한 이들보다 조금 뒤에서, 그들을 빛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신동엽은 한국에서 제일 웃기는 남자에서 존재만으로 코믹한 기조를 형성하는 MC가 됐다. 판을 까는 남자. 올해의 신동엽은 그랬다.

윤계상

"무시무시했으면 좋겠어요. 〈범죄도시〉의 장첸은 악(惡)이 곧 이미지인

인물이거든요."((맥스무비) 인터뷰 中) 윤계상이 연기 인생 14년 만에 처음으로 꺼낸 악랄한 얼굴은 특별했다. 색다른 악역의 등장은 입소문을 탔고 흥행은 물론 장첸은 특히 주목받았다. 장첸의 얼굴과 대사 "니 내가 누군지 아니?"가 그려진 이미지를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쓰는 사람까지 보일 정도다. (범죄도시)는 680만 관객 수를 돌파했고 2017년 박스오피스 4위, 19금 영화 관객 수 역대 2위 등,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며 기염을 토하는 중이다. "(올드보이) 하면 최민식, 〈살인의 추억〉하면 송강호가 떠오르잖아요. 저도 〈범죄도시〉하면 윤계상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의 바람은 현실이 되는 중이다.

# 강형욱

"개를 어떻게 만지면 내 손끝이 짜릿할까?' 말고 '내가 어떻게 인사를

건네면 네가 더 편하겠니?'라는 마음의 반려견 보호자를 봤을 때 기분이 좋아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Sellev'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고통받는 개들의 뉴스를 쉽게 접하는 요즘, '개통령'의 등장은 어떤 위로였다. 강형욱은 〈라디오스타〉를 비롯한 인기 있는 예능에도 종종 등장했다. 하지만 그는 한결같았다. 전문 직업인에서 엔터테이너가 되기 위해 방송에 나온 모습이 아니었다. 관심을 끌기 위한 과한 행동과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녹화가 끝나면 돌아가서 개를 쓰다듬고 안아줄 것처럼 보였다. 전문 직업인이 방송에 나와 지켜야 할 태도와 본업을 잊지 않는 마음.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은 치밀하게 팬덤을 다졌다. 아이돌 팬덤이란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던 H.O.T('전사의 후예')나 젝스키스('학원별곡') 같은 '1세대 아이돌'이 팬덤을 형성하던 방식과 일견 비슷했다. '학교 3부작'과 '청춘 2부작' 시리즈 음반으로 동년배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동시에 V라이브, 유튜브, 블로그 등을 이용해 교실 옆자리 친구처럼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케이팝 칼럼니스트 제프 벤자민은 올해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어워즈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 수상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케이팝 그룹은 이런 식으로 미국 대중에 다가간 적이 없어요. 싸이와는 달라요.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의 팬덤을 이긴 거죠." 〈화양연화〉라는 음반 이름처럼, 방탄소년단의 시대가 만개했다.

### 최승호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일에 언론이 질문을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외쳤는데, 진짜 4년 뒤에 나라가 망했어요." 영화 〈공범자들〉에서 최승호 PD는 '웃프게' 말했다. 믿고 싶지 않지만, 〈공범자들〉은 다큐멘터리 영화다. 이토록 썩은 국영방송의 실태가 현실이란 생각에, 보는 내내 아팠다. 그래도 희망을 봤다. 최승호가 저널리즘과 사명감을 안고 공영방송을 망친 '공범자들'을 잡으러 다녔기 때문이다. 그가 가서 질문을 날리면, '공범자들'은 숨거나 도망치거나 눈도 못 맞췄다. 히어로 같았다. 올해의 액션 스타를 꼽는다면, 〈공범자들〉의 최승호는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

# 김상조

그는 '삼성 저격수'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됐다. 대통령이 바뀌었다. 김상조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이다. 그는 칼춤을 추는 대신 당연하고 상식적인 과제를 스스로에 던지는 것으로 취임사를 대신했다. "한편으로는 너무 거칠다.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약하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균형'이라 해석해보면 어떨까. 그는 "문재인 후보의 경제 철학은 케인스 주의"라 규정한다. 김상조에 거는 기대로서,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말을 옮긴다. "경제학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김생민

늦여름쯤이었나? 직장인들의 출퇴근길에 팟캐스트 채널

하나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렇게 김생민은 데뷔 25년 만에 첫 번째 전성기를 맞았다. 15분 분량의 팟캐스트 〈김생민의 영수증〉으로 그는 정말 스타가 되었다. 그리고 21년 동안 리포터로 활동한 〈연예가중계〉에서 처음으로 인터뷰이가 된 그는 지난 시간에 대한 감정을 눈물로 쏟아냈다. 올해, 그는 우리에게 두 마디의 명언을 남겼다. "스튜핏", "그뤠잇",

이승우

이승우는 1981년 23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한

소설가다. 이후 여섯 번의 문학상을 받았으며 프랑스의 소설가 르 클레지오는 한국 작가 중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사람으로 이승우를 꼽았다. 문학계에서 이승우가 남다른 이유는 성실하다는 점도 있다. 그의 열 번째 소설 〈모르는 사람들〉 책 소개란에 이런 문장이 있다. "'쓴다'는 동사의 힘을 믿는 사람, '매일 쓴다'는 것으로 인생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36년 동안 '소설가로 산다는 것'을 흔들림 없는 작품들로 몸소 보여주는 사람." 글을 쓰지 못한다면 사는 게 아니라고, 뭐든 써야 살 것 같다고, 이승우의 책에선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 절박함과는 다른 직업 의식이자 성실함이다.

올해 초 개봉한 〈그 후〉에는 누가 봐도 '그 사건' 이후에 관한 삶이 들어가

있었다. 〈그 후〉를 보고 나니, 의문이 남았다. 그는 영화로 자신의 사생활을 은밀히 합리화하려는 감독인지, 혹은 사적인 삶을 영화에 회상하며 반영하는 감독인지에 대해서. 홍상수와 김민희는 올해 일거수일투족 화제였다. 그만큼 〈그 후〉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홍상수는 이랑곳 않고 영화 두 편을 더 공개했다. 지난 10월엔 차기작 〈풀잎들〉까지 촬영을 마쳤다고 한다. 〈풀잎들〉엔 김민희도 출연한다. 지금 홍상수는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영화를

페이커가 울었다. 지난 11월 롤드컵 결승에서 패한 뒤, 손에 얼굴을 파묻고

일어나질 못했다.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었으면, 지금 '페이커'를 검색하면 '페이커 눈물'이 곧장 연관검색어로 나온다. 대개 이기는 것만 봤으니까. 대단한 승리 후에도 울지 않았으니까. 누구나 한번쯤 질 수 있는 거니까. 그는 전 세계 E스포츠 역사상 가장 압도적 성과를 올린 선수고, 한국 프로 스포츠를 통틀어 최고액 연봉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눈물을 닦아낸 페이커는 얼마나 강해져 있을까.

장태산

장태산은 1982년 〈불꽃〉으로 데뷔한 만화가다. 요즘은 웹툰 〈몽홀〉을 3년째

연재 중이다. 흑백에서 컬러로, 연필에서 전자펜으로 창작 환경이 변했어도 그의 화풍은 종이에 그릴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인물엔 꼿꼿한 펜 선이, 배경엔 수묵화 같은 '터치'가 있다. 다만 그는 구력을 자랑할 생각이 없다. "내가 너희들 태어나기 전부터 만화를 그리던 사람이야, 라는 식의 지질한 태도. 지난 40년의 경력으로 지금의 작업을 폄하했다가는 도태될 수 있는 거다."(네이버 인터뷰中) 매주 금요일. 장태산이 그린 만화를 본다.

올해도 JTBC의 손석희 사장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에

압도적인 지지율로 1위를 거머쥐었다.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쟁자는 없다. 아마 그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다. 그렇지만 조금도 흥분하거나 흔들린 모습을 내비치지는 않는다. MBC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하마평에 그는 "우리 구성원들만 괜찮다면 여기 5층에 남아 있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원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손석희의 시대는 쉽게 저물지 않을 것 같다.

TV를 켜면 딘딘이 나왔다. 딘딘이 웃으면 같이 웃었다. 딘딘이 시무룩해지면

남들이 웃었다. 드세고 위태로운 농담으로 자기들끼리만 웃긴 '한남'들의 텔레비전에서 딘딘을 만나면 일단 반가웠다. 리모컨 내려놓고 걱정 없이 웃을 준비를 할 수 있었다. 힙합을 잘하는 예능인이 되고 싶다. 는 그의 오랜 바람이 이제는 이뤄진 걸까? 그의 팬클럽 이름



김태호

카풀 앱 풀러스(Poolus)는 올해 신임 대표로 김태호를 선임했다.

그는 얼마 전 220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동시에 '시간선택제' 서비스와 관련해 또 다른 고비를 맞았다. 사실 풀러스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늘 성과와 위기, 화제와 논란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무소의 뿔처럼 나아간다. 의심과 경계, 법적 규제쯤은 당연하다는 듯한 배포도 있다. 스타트 업이 성공하기 힘든 나라에서 풀러스는 꽤 현명한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구교환** "연기한 모든 인물을 '만난다'고 생각해요. 연기했다는 말고, '만나서 옮겼다'는 게

저한텐 맞아요."((맥스무비) 인터뷰 中) 구교환이 말했다. 〈꿈의 제인〉의 제인은 영락없는 트랜스젠더였다. 때로는 구교환이 성소수자의 고통을 아는 것처럼 리얼했다. 성소수자를 보는 시선에서 '특별함'을 걷어내고 그대로의 제인을 만나야 가능한 연기였다. 지금 그는 영화계에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백승욱

미국의 스타 셰프 아키라 백이라는 이름 대신 '백승욱'이라는 한국

이름을 내걸고 'DOSA by 백승욱'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 의아해했다. 음식도 생소했다. 그렇지만 그는 확신이 있었다. 정확히 1년 6개월 만에 그는 미쉐린의 별을 받아냈다. 그를 닮아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맛은 이렇게 성공을 알렸다.

주진우

주진우 기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추적한 지 벌써 10년이 됐다. 그

사이 그는 100번이 넘는 고소와 고발을 당했지만 아직까지 감옥에 가지 않았다. 많은 실패를 겪었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도 했지만, 아직도 알아내지 못한 문제가 산더미다. 끈질기게 파헤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는 그저 외면할 수가 없었다고 말한다. 올해 첫날, 박지만 회장의 수행비서 사망 사건이 있었다. 그는 페이스북에 한 문장을 남겼다. "저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끈질기게 취재를 하고 있다.

강운구 몇 해 전, 사진가로서 자신의 의무 복무가 끝났다고 말했던 강운구 작가. 그는 국내

다큐멘터리 사진계의 기반을 다진 주요한 작가 중 한명이다. 그가 의무감을 덜어내고 즐기듯 찍은 사진을 모아9년 만에 새로운 전시 〈네모 그림자〉를 열었다. 그는 이사진들을 "주웠다"고 표현했다. 평생 네모난 틀로 세상을 포착했던 그가 반대로 세상에 흩어진 네모난 틀을 모은 작품들은 놀랍게도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거였다. 76세의 사진가 강운구의 작품은 나이 드는 법을 모른다.

박재범

잠은 자는 걸까? 작년 말 정규 음반을 발표한 지 얼마나 됐다고, 올해는

7장의 싱글을 냈고, 새 레이블(하이어 뮤직)을 세웠고, 〈쇼미더머니〉에 출연했다. 2017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의 음악인'과 한국 힙합 어워즈 '올해의 아티스트' 부문을 독식하기도 했다. 제이 지의 레이블 락 네이션의 멤버가 됐다는 낭보까지. 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장님이라니.

신보선

심보선 시인은 6년 만에 세 번째 시집을 발표했다. 6년이나 쓰고 지우다 결심한

시집이지만, 제목은 〈오늘은 잘 모르겠어〉다. 그는 이를 관통하는 철학적 화두는 '불확실성'이지만 그것도 확실하진 않다고 말한다. 시집은 출간 한 달 만에 1만2천 권을 찍었고, SNS에는 유행어처럼 그의 글이 돌아다녔다. 그의 시는 일종의 공감이고, 위로였다.

유병재

유병재의 캐릭터는 좀 애매하다.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할 말은

한다. 쉽게 수긍하지만, 듣고만 있지는 않는다. 누구도 불러주지 않지만, 스스로 개그맨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그가 블랙코미디를 택한 건 당연한 일이다. 아이러니한 상황을 웃기게 넘길 줄 아는 그의 센스는 스탠딩 코미디 쇼와 책 〈블랙코미디〉로 발현됐다. 그는 천생 개그매이다

백현진

백현진을 음악가로 알았든, 배우로 알았든, 시인으로 알았든 상관없다.

내년이면 또 달라져 있을 테니. 올해는 개인전 〈그 근처〉를 열었고, '올해의 작가상' 최종 후보에 오르며, 미술가로서 돋보였다. 그의 올해의 작가상 전시작은 '실직폐업이혼부채자살 휴게실'이다. 그 '휴게실'에는 그가 쓴 동명의 시와 아날로그 신시사이저로 만든 소리가 있다. 그곳에서 전방위적 백현진을 만나는 일.

배정남

'제3의 전성기.' 농담 반 진담 반, 올해 배정남에게 붙어 다닌 수식어다.

터닝 포인트는 〈라디오스타〉였다. '형남'들 사이에서 능청스러운 존재감을 뽐내던 중 던진 한마디, "슈어, 와이 낫." 터졌다. 이 한마디로 그가 다시 전성기를 맞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여기에 몇 년 전 '클럽 난투극'에 대한 해명과 상대인 마르코를 배려하는 배포까지. 독설과 시기, 질투가 난무하는 〈라디오스타〉에서 배정남은 선한 이미지와 호감을 길어 올린 몇 안 되는 남자다.

김범준

'35회 서울시 건축상'에서 상을 받은 솔로 하우스는 김범준 건축가의

작품이다. 그는 다가구 주택의 기존 틀은 유지한 채 철강 구조물을 덧대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했다. 단순해 보이는 그의 방식이 인정받은 이유역시 단순하다. 멀쩡한 건물을 허물지 않았다는 것. 바로 지금 서울 건축이 지향해야 할 방식이다.

김오키

김오키는 올해 두 장의 음반을 발매했다. 지난해 12월 말에 낸 〈LUVOKI〉까지

'소급'하면 세 장. 근면이 음악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할 수는 없겠으나, 밴드 멤버에게도 "천재"나 "짐승"이라불리는(자라섬 재즈페스티벌 인터뷰 中) 뮤지션이 작업에 몰두할 때 생기는 믿음이 있다. "저는 삶에 일람이 있는 사람이죠." 세 장의 음반을 다 듣고 눈이 번쩍 뜨였다.

한현민

그가 린웨이에 서면 쳐다보게 된다. 〈타임〉지도 그를 봤다.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30인' 중 한 명으로 그를 선정했다. SNS 사진 한 장으로 모델이 된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은 5만 명이 넘는 팔로어를 거느린 명사가 됐다. 그를 '혼혈 모델'이라 소개하는 것 또한 차별일 터. 힘차게 걷는 한현민에게 박수를 보내며, 남은 벽을 허무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권문수

패션 브랜드 '문수권'의 디자이너, 권문수. 그가 올해 밀라노에서 첫

컬렉션을 치렀다. 조르지오 아르마니 재단에서 후원한 디자이너로서. 컬렉션의 주제는 'YOLO(You Only Live Once)'. 다양한 패턴이 혼재된 컬렉션에는 그만의 유머가 담겨 있었다. 재미있는 건 뭐든 시도해보는 그의 호기심은 이제 더 넓은 곳을 향하기 시작했다.

정가람

올해 영화 〈시인의 사랑〉에서 소년을 연기한 정가람은 특별했다. 베테랑

연기자 양익준과 전혜진 사이에서도 그는 주눅 든 기색 따윈 없었다. 오히려 남다른 존재감을 뽐냈다. '연기 잘하는 신인' 정도의 말로 호명하기엔 작년의 〈4등〉과 올해 〈시인의 사랑〉에서 보여준 정가람의 배우 재능은 남다르다. 눈부신 소년과 호젓한 남자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이 배우의 내일이 궁금해진다.

이상순

사랑하는 아내와 제주도에 산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재능도

있다. 그렇지만 그 일로 악착같이 살지는 않는다. 행복의 기준이야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상순의 삶은 부럽다. 〈효리네 민박〉이 방영된 이후 그는 '국민 남편'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제주도의 작은 클럽에서 틀던 음악을 이제 청담동의 행사장에서도 튼다. 좋지 아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삶이다.

김주혁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난해 〈하퍼스

바자〉와의 인터뷰, 김주혁이 떠났다. 갑작스러운 비보 '구탱이 형'이거나 '광식이 형'이거나,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날' 것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일까. 그를 잘 안다는 입장으로 결례를 범하는 대신, 조심스레 유작 〈흥부〉와 〈독전〉을 기다린다. 그러면 이 진한 슬픔의 이유를 조금이나마 더 찾을 수 있을까.



# BE A BLACK SWAN, BE A PLAYBOY!

크로크마담 서울의 파격적이고 아름다운 '블랙 스완 파티'를 다녀왔다

EDITOR KANG YESOL

파격적이고 획기적이고 섹시한 콘텐츠만 만들어내는 크로 크마담 서울(Croque Madame Seoul)이 또 한 번 사건을 벌였다. 잔혹하면서도 아름다운 영화〈블랙 스완〉을 콘셉트로 파티를 기획한 것. 지난 11월 11일, 진부하게 빼빼로를 주고받는 대신 크로크마담 서울은 한남동 D뮤지엄 내의 바 에타(ETA)에서 음악과술과 춤. 그리고 '블랙 스완'으로 가득 찬 파티를 열었다. 그리고 이들만큼 파티를 사랑하는〈플레이보이〉가 '블랙 스완' 파티'를 좀 더 특별하게 장식했다.

DJ EMU와 리그리에(Ligrye), 그리드(Grid)의 음악으로 채워진 파티는 드레스 코드인 블랙을 제 식대로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열기가 더해졌다. 이들은 〈플레이보이〉의 래빗 헤드 스티커를 팔과 등, 가슴과 허벅지에 붙인 채 본격적으로 파티를 즐겼다. 한껏 술에 취하고, 춤을 추고, 가장 멋진 '블랙 스완'을 찾고, '말레피센트'로 변장한 파티의 호스트 니콜라스(Nicolas)

1 눈을 뗄수 없는 퍼포먼스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2 파티의 호스트 니콜라스와 댄서. DJ 리그리예 3, 4, 5 파티엔 드레스 코드 블랙으로 치장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6 하우스 오브 티즈의 과감하고 아찔한 공연 7, 8 파티의 베스트 드레서 9 '블랙 스완 파티'는 〈플레이보이〉의 참여로 더 화려해졌다.

와 사진을 찍는 등이 파티를 즐기는 데 룰은 없었다.

파티의 절정은 매혹적인 공연이었다. 파티의 메인 테마 음악에 맞춰 시작된 흑인 남성 댄서들의 춤에 이어 퍼포먼스 팀 하우스 오 브 티즈(House of Tease)의 아슬아슬한 후프 댄스, 발레리나 고다을의 아름다운 발레 쇼,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섹스 토이 스토어 푸시베리의 파격적인 퍼포먼스까지. 사람들은 영화 〈블랙 스완〉속 니나 세이어스의 마지막 무대를 보듯 몰입했고, 파티는 끝이 나지 않을 듯 격정적으로 이어졌다. 온통 블랙 일색이었지만, 가장 화려했던 토요일 밖이었다.

아쉬움을 남긴 채 마무리된 크로크마담 서울의 파티는 '블랙 스 완 파티에 이어 올해의 마지막 12월에는 '핑크 스완'이 되어 다시 돌아 올 예정이다. 가장 섹슈얼한 핑크의 향연을 즐기고 싶다면, 크로크마 담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corquemadameseoul)을 미리 들여 다보자.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 환영이다. \*



온통 블랙 일색이었지만, 가장 화려했던 토요일 밤이었다.













# **DECEMBER** × GIFT

**줄** 것도, 받을 것도 많은 연말. 당신의 연애를 더욱 뜨겁게 해줄 선물을 별들이 골랐다. <sub>BY</sub> **김은하** 



# **SAGITTARIUS** 11.23-12.24

이국적이면서도 클래식한 수집욕이 발동한다. 너무 생생해서 되레 지루한 아동 대신 생략과 비약이 대담하고 흥미진진한 춘화(春畵)의 세계로 관심을 돌려라. 일본의 춘화는 화려한 색감으로 몸을 달아오르게 하며, 인도의 춘화는 상대를 남신과 여신으로 숭배하는 탄트리카(Tantrika)의 초심(?)을 일깨운다. 그(그녀)와 함께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동짓달 기나긴 밤을 굽이굽이 펼쳐보라.



## **CAPRICORN** 12.25-1.19

생혹한 현실주의자인 염소자리에게 적합한 **선물은 주**얼리도, 명품 백도, 콘서트 타켓도 아니다. 그건 어릴 때 이미 다 했다. 그보다 훨씬 실용적인 것이어야 성인끼리 주고받을 만한 선물이다. 예컨대 주식이나 채권 골드바 같은. 달랑 몇 주라도 좋다. 그(그녀) 앞으로 유망하다고 소문난 주식을 사서 선물해보라. 당신을 보는 그(그녀)의 눈빛이 달라질 거다. 닥치고 쇼미더머니, 당신이 해낸 게 그거다.



#### **AQUARIUS** 1.20-2.18

테크놀로지의 숭배자, 물병자리의 욕망이 가 닿아야 마땅한 장르는 첨단 IT 기기, 드론, 액션캠, 모바일 프로젝터, 블루투스 스피커 등 그(그녀)를 뜨겁게 할 아이템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도록 마음에 꽂힐 아이템은 단연 VR 기기다. 360도 회전은 물론 보고 싶은 방향과 지점을 선택할 수 있어 '우동'과 함께라면 혼자 보내는 겨울밤도 훈훈하기 이를 데 없다.



#### **PISCES** 2.19-3.20

물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 12월, 물고기자리의 운이 흘러가는 방향이다. 따뜻한 온천수로 건강을 돌보는 게 이로우며, 다양한 입욕제나 스파 이용권이 선물로 적합하다. 레몬. 라벤더, 자몽 등 다양한 향기를 지닌 바스밤(Bathbomb)의 세계를 탐닉하라. 목욕용 오일을 넣고 플로팅 캔들, 장미 꽃잎 등을 수면 위에 둥둥 띄워놓으면 둘만의 프라이悓 스파가 더욱 로맨틱해자다



#### **ARIES** 3.21-4.19

기억해야 할 것은 '최초의 법칙'이다. 명심하라. 양자리는 첫 번째 것에만 반응한다. 두 번째는 지루해하고, 세 번째는 시시해한다. 모두에게 유명한 베스트셀러 리오더보다 알 사람만 아는 신상 리미티드 에디션을 택하라는 뜻이다. '최초'가 꼭 사물일 필요는 없다. 그(그녀)와 맞는 첫 번째 눈꽃 여행일 수도 있다. 꼭 첫눈이 아니라도 좋다. 둘이서 처음 맞는 눈은 다 첫눈이니까.



#### **TAURUS** 4.20-5.20

손끝의 감각이 예민해진다. 그(그녀)에게 '출장 마사지'를 선물할 때다. 정식으로 강좌를 수강한다면 금상첨화지만, 유튜브 동영상에 의존하는 정도라도 좋다. 단. 매트와 오일. 괄사 도구 등 기본 아이템은 꼭 구비할 것. 찌뿌드드한 시즌에 마사지는 섹스보다 황홀하다. 마사지를 전희의 일종으로 기대하는 사심(?)은 버리는 게 바람직하지만,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바람이긴 하다.



#### **GEMINI** 5.21-6.21

생동이자리의 도발적인 재치가 항해야 마땅한 곳은 '커플 속옷'이다. 비기너용 물방울 무늬, 도회적인 블랙 앤 화이트, 글래머러스한 호피 팬티 모두 좋다. 베컴 부부의 란제리 룩 화보를 보며 영감을 얻고 농도(?)를 조절하라. 특별한 데이트를 위한 두 사람만의 은밀한 드레스 코드로 삼아도 좋다. 그(그네)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온 순간부터 심장은 쿵쾅대고 시선은 짜릿해질 거다.



#### **CANCER** 6.22-7.22

직접 짠 스웨터나 직접 만든 초콜릿은 잊어라. 하지만 게자리를 위한 선물에 그런 요소가 완전히 배제돼도 곤란하다. 아무런 히스토리가 없는 선물, 상대에 대한 관심은 1그램도 없는 선물에 게자리는 헛헛해한다. 엄마의 결혼반지를 리세팅한 반지를 끼워줄 수 없다면, 쇼윈도 앞에서 보인 상대의 반응에 집중하라. 온 세상이 다 알도록 타를 냈으면서도 "내 맘을 어떻게 안 거야"라며 감동할 거다.



#### LEO 723-822

12월에 찾아오는 대형 오페라나 뮤지컬 콘서트는 모두 사자자리를 위한 것이다. 화려한 조명, 웅장한 스케일, 공간을 가득 채우는 음악에 세포 하나하나가 전율한다. 최상위 클래스 좌석으로, 스스로에게 또는 그(그녀)에게 인상적인 이벤트를 선물하라. 다소 사치스러운 데이트 코스를 전후에 배치해 하루를 디자인해볼 것. 의기소취했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내면의 보양식이다.



# VIRGO 8.23-9.23

오거나이저 다이어리를 연말연시의 빤한 아이템이라고 일축하지 마라. 정리벽 처녀자리에게는 영원히 흥미진진한 아이템이니까. 어떤 플래너와 함께 새해를 살아갈 것인지는, 결혼 상대를 정하는 일 못지않게 심각하고 진지한 문제다. 그(그녀)가 애용하는 제품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수용하라. 플래너에 사랑의 기념일과 당신의 마법 주기 또는 리비도 주기를 표시해주는 재치만 잊지 마라.



#### LIBRA 9.24-10.22

천칭자리에게 중요한 건 선물 내용이 아니다. 포장법은 물론 선물이 전달되는 매너에도 감각적인 멋을 원한다. 예상을 비껴나가는 의외성과 장난꾸러기 같은 유머, 노골적인 관능성이 포함된 선물 이벤트를 구상해보라. 예컨대 페미돔에 넣어 포장한 주얼리 같은. 혹 아이스크림이나 칵테일에 반지를 넣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면, 당장 잊어라. 식상한 건 물론 연애 전선이 위험해질지 모른다.



#### SCORPIO 10.23-11.22

선물이나 이벤트에 가장 냉소적인 유형이다. 그런 일상적 경험으로 만족하기에 전갈자리는 너무나 비일상적 욕구의 소유자다. 그(그녀)를 자극하는 건 전생 퇴행이나 퇴마 의식 같은 초자연적 경험이다. 차라리 용한 점집을 찾아 살아온 날과 살아갈 날을 짚어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배화교도처럼 호마(呼魔) 의식을 하는 것도 낭만적인 송년식이 될 거다.

**PLAYBOY** 











- 2 '바뱅 가의 술집 셰자드리엥 III', 1961년경 3 '두상', 자크 뒤팽의
- 3 누상, 사크 뒤팽의 〈알베르토 자코메티〉 책 표지를 위한 프로젝트, 1960~1962년
- **4** '서있는 아네트', 1954년경
- 5 '자크 뒤팽', 1965년경 6 '아마이트 나다이
- 6 '앉아있는 남자의 흉상(로타르 III)', 1965~1966년 **7** '재킷을 입은 남자', 1953년

자코메티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적어도 철근처럼 가늘고 긴 그의 인체 조각상은 미술 문외한이라 한들 아는 착하기 쉽다. 알베르토 자코메티(1901~1966)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조각가로, 그의 작품엔 천문학적 가격이 매겨진다. 하지만 그가 왜 그토록 치열하게 앙상해지기위해 노력했는지, 그의 삶과 작업 세계를 온전히이해하는 이는 많지 않다.

스위스에서 후기인상파 화가의 아들로 태어난 자코메티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짜감치 제도권 교육을 거부하고 이탈리아 여행 등을 하며 작가의 꿈을 키웠다. 스물한 살이 되던 해 마침내 예술가들의 메카 파리에 입성한 그는 근대 구상조각의 거장 앙투안 부르델의 문하로 들어가 5년간 조각을 배운다. 하지만 오히려 그의 흥미를 끈 건 자크 립시츠나 앙

리 로랑스 등 입체주의 작가 혹은 아프리카 조각이나 민속공예품이었다. 급기야 추상조각으로 나아카던 그를 완전히 전율시킨 건 브랑쿠시의 '공간 속 새'였다. 도무지 새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술품 논란을 일으킨 그 유명한 작품 말이다.

미켈란젤로부터 로댕에 이르기까지 과장되고 부풀려진 웅장한 조각에 반기를 든 그는 그 시절 파리를 주름잡던 초현실주의자들과 어울리며 그에게 처음 국제적 명성을 안겨준 초현실주의 작품을 내놓 기도 하지만, 어쩐지 그조차도 다 시시했던 모양이 다. 이미 엄청난 전쟁을 겪었고, 그보다 더 잔혹한 전 쟁을 앞둔 불안과 공포 속에서 무의식, 꿈, 욕망을 좇는 작업은 그저 허공 속 사치였을까? 자코메티는 초현실주의 그룹과 단호히 결별한 뒤 다시 형상을 찾 아 외롭고 치열한 모색의 길을 걸었다. 전쟁을 단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세대로서 미증유의 전쟁을 두 번이나 겪은 세대의 고충을 해아리기는 어렵다. 20세기 초·중반을 오로지 낭만이 가득했던 시절이라고 함부로 추측할 수 없는 이유다. 1945년,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이 끝났고, 자코메티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조각은 점점 더 야위어갔다.

일반적인 조각의 기법이 조금씩 살을 붙여나가 면서 형태를 만드는 것이라면, 자코메티의 조각은 그 반대다. 형태를 완성해놓고 조금씩 살을 떼어나가는 방식이다. 전통적 작가들이 '비움'에 대해 고찰하지 않고 절대적이며 충만한 존재에 연연할 때, 자코메티 의 고민은 '비움'을 어떻게 조각할 것인가였다. 그 비 우고 덜어내는 과정에서 많은 작품이 허망하게 사라 지기도 했지만, 존재의 덧없음을 이미 알아차린 고독



②2017년 12월 21일~2018년 4월 15일
 ③ 02-580-1300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1F



#### "거리의 사람들을 보라. 그들에게는 무게가 없다. 어떤 경우든 죽은 사람보다도, 의식이 없는 사람보다도 가볍다. 내가 보여주려는 건 바로 그것, 그 가벼움이다."

한 아티스트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계속해서 살과 뼈를 깎아냈다.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만큼 가늘고 길게, 선과 선 사이의 공허한 틈이 더욱 넓어질 때까지. 그렇게 앙상한 몰골로 살아남은 작품은 지금 1000억 원대를 호가하는 이 시대 가장 비싼 조각이 됐다.

자코메티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12월 22일부터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는 〈알베르토 자코메티〉전은 한국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자코메티 전시라 더욱 기대를 모은다. 작가의 초기 시절부터 말기의 작품 120여 점을 조명하는데, 주목해야할 대표작은 자코메티 생애 최고 결작이라 불리는 '걸어가는 사람'(1960)과 작가가 죽기 바로 직전까지 작업한 '로타르 흉상'(1965~1966), 그리고 그의 아내 아네트를 모델로 삼은 '서 있는 아네트' (1954), '아네트의 홍상'(1962) 등이다.

빼기는 분명 더하기보다 어렵다. 여전히 우리는 과식에 시달리고 명성을 탐닉하고 통장의 부피와 집 평수를 늘리기 위해 애를 쓴다. 많은 이들이 자코메 티를 이야기할 때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 장 폴 사르 트르를 운운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작업에 '실존'이 라는 거창한 단어를 더하기조차 꺼려했다. 그리고 그 는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고도 피카소와 달리 남은 생을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7평 남짓한 궁색한 작 업실에서 살았다. 그렇다고 그가 평생 청빈한 생활만 을 고집한 것 같지는 않다. 말년의 그는 아내를 제쳐 두고 죽고 못 살던 40세 연하의 연인 카롤린에게만 큼은 비싼 보석과 현금, 스포츠카 등 물질 공세를 퍼 부었다니까. 하지만 그 뜨거운 열정도 잠시, 육체적 한계에 부딪힌 그는 심장병으로 고생을 하다 자신의 작품처럼 비쩍 마른 육신만을 남긴 채 홀연히 세상 을 떠났다. 그의 지나치게 가벼운 조각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이유는 삶의 '간극'을 생각 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진정한 대화는 말하는 행위 가 아닌 말과 말 사이의 간극에서 이루어지듯이. 우 리가 그의 전시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눈에 보이는 작품 자체가 아니다. 그 앙상함 사이로 드러난 텅 빈 허무다. 🔞



#### 대부분의 정치적, 문화적 표현이 디지털 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요즘, 종이 미디어와 시위 포스터처럼 이미 때 지난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의 태도에서조차 반항적인 기운이 드러난다.

동영상 전문 사이트 '홀루'에서 방영될 새 다큐멘터리 《Obey Giant》에서 셰퍼드 페어리는 그를 아티스트로서 성장시켜준 안드레 더 자이언트 스티커가 사실은 반쯤 장난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명문 예술학교 RISD(Rhode Island School of Design)를 다니는 동안 스케이트보드 숍에서 보드나 스티커를 디자인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던 중 당시 그의 친구가 프로 레슬링 선수 안드레 더자이언트의 사진을 보여줬고, 그에 영감을 받은 페어리는 거칠고 얼룩덜룩한 흑백 스티커를 만들었다. 그는 스티커 밑에 "Andre The Giant Has A Posse"라는 문구를 더해 동네 곳곳에 붙이기 시작했다.

안드레 더 자이언트의 위협적인 표정과 페어리가 후에 추가한 'OBEY(복종하라)' 문구는 사람들에게 컬트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를 남겼다. 이 스티커의 모호함과 거기에 뒤따른 다양한 해석은 많은 사람의 흥미를 이끌어냈다. 그때부터 페어리는 작품이 어떻게 보이는가와 작품의 진짜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에서 오는 차이를 28년째 연구 중이다. 페어리는 11월

새 다큐멘터리 방영과 동시에 야심찬 전시회를 연다. 전시 이름인 〈Damaged(훼손된 분노〉〉는 블랙 플래그의 하드코어 음반에서 빌려온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며, 150점이 넘는 페인팅과 조각상, 설치예술, 스텐실, 신문(《The Damaged Times》), 그

리고 페어리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 D·I·Y 도구"라 자신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모두 예술과 투쟁 그사이 어딘가에 있는 작품들이다. 서서히 떠오르는 공포와 증오의시대를 무마시키기 위한 페어리의 외침,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페어리가 모래 위에 그린

선이 예술로 탄생했다. "저는 요즘 벌어지는 여러 문제들을 '훼손'이라는 관점으로 봐요.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문제가 뭔지 진단해봐야하죠." 페어리가 말했다. "예술이 하나의 해결 방법이될 수 있고요. 사람들이 그저 무시하거나 살펴보기 싫은 문제들을 들여다보게 만드니까요."

그는 다짜고짜 해결하려 들기보다, 묵묵히 관찰자의 시선을 취한다. 알쏭달쏭한 초상화 안에는 정치적 심벌과 은근한 주장이 적절하게 버무려져 있다. 성조기를 히잡처럼 쓰고 있는 여자, 여자의 얼굴을 거의 다 가린 2차 세계대전 선전물 콜라주. 이런

저런 날카로운 헤드라인으로 감싼 또 다른 여자의 얼굴…. 전체적으로 붉은빛이 도는 색감과 단순과감하게 '레이어시킨 패턴들, 거기에 선전원을 넣는(러시아 구성주의 식의) 그의 작업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미스터리하다. 또한 대부분의 정치적, 문화적 표현이 디

지털 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요즘, 종이 미디어와 시위 포스터처럼 이미 때 지난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의 태도에서조차 반항적인 기운이 드러난다. "망가진 미디어와 거기서 오는 저열함이 거북스러워요." 페어리가 말했다. "저는 우리가 의미 있는 정보를 직접 찾고, 가치 있는 콘텐츠와 그것을 소개할 미디어를 스스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전시도 요즘 '대세'인 소셜플랫폼을 비난하려는 의도일까? 꼭 그렇진 않다. "소셜미디어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하자는 거죠(이번 전시는 페어리의 새로운 밴드, 노이즈(Nøise)의 신곡 발매도 포함하고 있다)"

그의 유명세와 수많은 사람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페어리는 아날로그 방식의 스트리트 아트에 집중한다. 여러 번 체포 당했음에도 아직도 허가 없이스티커나 그림을 곳곳에 붙이거나 칠하고 다닌다. 이렇게 포기를 모르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작품을 만드는 그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메시지'가 아닐까? "세상엔 혼란스럽고 화나는 일이 아주많죠. 하지만 저는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아주 큰 동기를 얻어요. 조 스트러머의 '미래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The future is unwritten)'라는 말을 좋아해요. 만약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새롭게 쓰면되는 거죠." ❸ EDITOR YOU JISUNG







'Peace Guard 2'와 'No Future'. 두 스텐실 작품 모두 셰퍼드 페어리의 새 전시 (Damaged)에서 공개됐다.

2012년 2월,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 을 바꾸면서 당의 상징색을 파란색에서 빨 간색으로 바꾼다. 상징색을 바꾸는 데 주도적인 역할 을 한 사람은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카 피를 만들었던 조동원, 당시 홍보기획본부장이었다. 그는 새누리당의 빨간색을 2002년의 붉은 악마에서 가져다 썼다고 말했다. 2016년 〈중앙일보〉와의 인터 뷰에서 그는 "한나라당의 당 색인 파란색은 사람의 마음을 차갑고 차분하게 만든다. 이 때문에 선거 캠 페인에서 흥분을 유도하지 못한다. 빨간색은 굉장히 감성적인 색깔이다. '레드 콤플렉스'(공산주의에 대 한 반감)의 빨간색과 2002년 붉은 악마의 빨간색, 두 가지가 공존한다.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하면 역동 적으로 사람을 흥분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통해 변화의 상징으로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 고 "총선뿐 아니라 겨울에 있는 대선을 생각했다"며, "빨간색 하트는 사랑을 의미하고, 여성 대통령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와 잘 어울린다고 봤다. 대통령 선거일(12월 19일)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근접 한 것까지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제 와 돌이켜보면, 어쩌다 붉은 악마, 크리스마스, 사랑이 단순히 붉은색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돼 고생했는지 알 수없는 일이지만, 새누리당, 그리고 현재의 자유한국당이 빨간색을 상징색으로 쓰는 데는 이런 기원이 있었다.

'빨갱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낙인처럼 사용되는 분단국가에서 보수당이 상징색으로 빨간색을 쓴다 는 건 당시에도 논란이었지만, 지금 봐도 여전히 재 미있다. 빨간색은 공산주의의 상징색이지 않은가. 북 한의 인공기에 차용된 빨간색이 상징하는 것이 공 산주의이고, 북한의 국장에 그려진 붉은 별이 뜻하 는 것이 '혁명의 영광'이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빨갱 이라는 단어를 가장 효과적인 낙인으로 이곳저곳에 남발한 역사가 있는 당의 상징색이 빨간색이라는 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빨갱이, 좌빨이라는 단어는 늘 자신들의 대척점에 있는 척했던 것이 자유한국당 이었다. 몇 번의 선거를 거치다 보니 이젠 빨간색의

#### '빨갱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낙인처럼 사용되는 분단국가에서 보수당이 상징색으로 빨간색을 쓴다는 건 당시에도 논란이었지만, 지금 봐도 여전히 재미있다. 빨간색은 공산주의의 상징색이지 않은가.

보수당이 그리 어색하지 않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과 빨간색은 잘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빨간색은 세계적, 그리고 전통적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연관됐다. 역사를 살펴보자면, 빨간색과 사회주의의 연관성은 18세기 프랑스 혁명까지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전부터도 붉은색은 저항의상징으로 사용됐지만, 1871년 파리 코뮌에서 사회주의 정부가 붉은 깃발을 상징으로 사용하면서부터 현대의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됐다. 그 외에도 소련의 정식 군대이름은 붉은 군대였고, 1970년대 일본과 독일의 좌익 테러 단체들은 자신들을 적군파라고 불렀다. 공산주의 역사를 가진 국가 중 국기에 빨간색이없는 나라는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붉은색국기를 가지고 있고, 앞서 언급한 북한의 인공기 또한 빨간색이 들어가 있다.

조금만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현대의 일 반적인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빨간색을 만날 수 있 게 된다. 프랑스 혁명 이후 빨간색이 자본주의와 맞 서 싸운 노동자들의 피와 연관지어졌다면, 그 이전 과거의 빨간색은 예수의 피를 상징했다. 그래서 당시 의 빨간색은 교회, 혹은 왕정을 상징하는 색이었다. 샤를마뉴 대제는 궁전을 붉은색으로 칠하고, 붉은 신발을 신었다고 전해진다. 종교적으로는 지금도 가 톨릭의 교황과 추기경이 붉은색 의복을 입는다. 색 채의 역사학을 연구한 프랑스의 미셸 파스투로 교수 는 "서구에서 붉은색은 수천 년간 색이라고 할 수 있 는 유일한 것이었고, 진정한 단 하나의 색이었다"라 고 말한다. 현대에서도 붉은색은 다양한 문화적 맥 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의 변화와 함께 붉은색의 의미가 변해 왔음은 분명하다.

시간의 변화가 붉은색의 의미를 바꾼 대표적인 예는 2012년의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2000년의 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빨간색은 공화당, 파란색은 민주당이라는 도식이 바로 이때부터 생겼다. 레드 스테이트, 블루 스테이트란 표현을 아마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각각 공화당 우세 지역, 민주당

우세 지역을 뜻한다. 이런 구분법이 생긴 것이 겨우 2000년부터였다니,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히 최근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이전까진 그런 도식이 명확하지 않았다. 1976년 ABC의 대선 개표 방송을 보면, 민주당의 지미 카터를 파란색으로, 공화당의 제럴드 포드를 주황색으로 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공화당의 붉은색과 민주당의 파란색을 정한 것은 부시와 앨고어가 경합한 2000년 대선 때의 언론이었다.

2000년 이전엔 그런 도식이 없었다. 때론 공화당이 파란색이었고, 때론 민주당이 빨간색이었다. 왜 였을까? NBC 뉴스의 척 토드는 "수년간 두 당은 때 때로 파란색이기도, 빨간색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상대를 빨간색으로 만들었죠. 냉전 시기에누가 빨간색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실제로 소련이 해체되기 전, 미국에서 붉은색은 조롱거리를 뜻했다. 한국에서 빨갱이가 공산주의자를 뜻하는 속어였듯이, 미국에서는 레즈(Reds)가 공산주의자를 뜻하는 속어였듯이, 미국에서는 레즈(Reds)가 공산주의자를 뜻하는 박속어였다. 냉전의 시기엔 미국에서도 붉은색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연관시키는 색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1976년부터 1988년까지의 선거를 보면, 미국의 방송사들은 한 번도 당을 상징하는 색을 바 꾸지 않았다. 당시엔 공화당이 파란색이었고, 민주 당이 붉은색이었다. 스미소니언의 기사에 따르면, 이 유는 간단했다. 영국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영국 은 그때나 지금이나 파란색이 보수 정당을, 붉은색 이 진보 정당을 상징한다. 미국이 그것을 그대로 가 져다 쓴 것이다.

그러던 것이 2000년 부시와 앨 고어의 선거에서 바뀐 것이다. 당시〈뉴욕 타임스〉와〈USA 투데이〉는 공화당에 빨간색을 쓰고, 민주당에 파란색을 썼다. 바뀐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뉴욕 타임스〉의 그래픽 에디터 아키 체는 빨간색을 뜻하는 'Red'가 'R'로 시작하듯, 공화당을 뜻하는 'Republican'이 'R'로 시작해서 공화당과 빨간색을 매칭시켰다고 말했다.〈USA 투데이〉의 경우는 그보다도 간단하다. 다른 언론들이 모두 그렇게 써서 자신들도 따랐다는

게 이유다. 게다가 2000년의 선거는 플로리다에서의 재검표 때문에 12월 중순까지 길게 이어졌고, 그 기간 미국인들은 빨간색의 공화당, 파란색의 민주당을 보아야 했다. 거창한 이유를 기대했다면, 조금 실망스러운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미국이 처음 상징색을 가져다 썼다는 영국은 왜보수가 파란색을 쓰고, 진보가 빨간색을 쓰게 된 걸까? 영국에서 진보 정당인 노동당이 빨간색을 상징색으로 쓰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프랑스 혁명 때문이다. 당시의 붉은 깃발은 '성난 노동자들의 피'를 상징했다. 1997년 선거에서 고든 브라운이 "보라색은 열정의 색"이라며 잠깐 붉은색을 떠나기도 했지만, 영국에서 노동당은 대부분의 기간 붉은색을 성징색으로 썼다. 한편으로 보수당은 상징색을 영국의 국기인유니언 잭에서 가져다 썼다. 유니언 잭의 파란색, 빨간색, 흰색 중빨간색을 노동당이 가져가면서 보수당은 남은 흰색과 파란색을 주로 쓰게 됐고, 시간이지나면선 점차 파란색을 상징색으로 쓰게 됐다. 그리고 그 전통이 세계 곳곳으로 퍼지면서, 파란색은보수 정당의 상징색이 된 것이다.

이처럼 정치와 색의 역사는 재밌다. 하지만 당연 하게도 색은 흥미로운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 치인이나 정당이 상징색을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 나 유권자들에게 좀 더 인상적으로 다가가려는 노력 의 일환일 뿐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상징색보다 중 요한 것이 정당의 이념과 정책이다. 정당의 정치색은 상징색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정치 성향을 뜻하는 정치색의 '색' 자가 색채에서의 '색' 자와 똑같은 빛 '색 (色)'을 쓴다는 건 재미있는 일이다. 어쩌면 그래서 정 치와 색이 흥미로운 관계가 됐는지도 모르겠다. 게다 가 단순히 글자만 같은 한자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람 들에게 분명하고 뚜렷하게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은 정치와 색의 또 다른 공통점이지 않은가. ❖

EDITOR YOU JISUNG

칼럼니스트 윤지만은 수의사지만, 잡다한 관심사로 IT, 정치, 사회에 관한 글을 쓴다. 블로그 yoonjiman,net을 운영하고 있다.

## HOOKING UP IN HOLIDAY

연말을 쓸쓸히 보낼지 모르는 솔로를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미국 〈플레이보이〉로 날아든 한 남자의 깊은 고민에 섹스 칼럼니스트 브리짓 페터시가 확신에 찬 말투로 조언한다. –

BY BRIDGET PHETASY



QUESTION

매해 명절엔 고향에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편입

니다. 여자친구와 보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솔로거든요.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 유일하게요. 이 생각만 하면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저도 데이트를 핑계로 명절에 부모님 집을 탈출하고 싶은데 말이죠. 문제는 애인을 만나려면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을 염탐하며오래전에 꺼진 인연의 불씨를 찾아야 하는 걸까요? 만약 페이스북에서 인연이 닿아 잘된다면, 그리고그 여자가 제 집에 가서 놀고 싶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PHETASY: 우울해진다는 면에서 술에 취해 정치 얘기나 들먹이는 사촌들과 보내는 지루한 시간과 비슷한 주제군요. 본가에서 연말을 보내는 건 12월이 면 사골처럼 우려먹는 〈나 홀로 집에〉를 또 시청해야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잘 지내니? 결혼은? 하는일은?" 따위 가시 돋은 질문에 멋진 척할 수 있는 대답도 준비해야 할 거고요. 연말이 지루한 솔로라면명심하세요. 첨단과학은 당신의 친구라는 걸. 인류가 발전시킨 문명은 당신에게 틴더, 범블, 오케이큐피드 같은 데이트 이벤트를 선사합니다. 데이트 앱을보면, 당신이 사는 곳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여자들이 보일 거예요. 당신은 그저 그들의 직업과 성격을비롯한 옵션 따윈 문지도 따지지도 말고 스와이프

(Swipe)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앱에서 동창이나 전 여친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명절에 한다는 게 고작 틴더냐? 너도 참 눈 물겹다.' 그런데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그들도 당신 을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그러니 상 대를 이성적으로 고르겠다는 생각 따윈 접고 앱에 뜬 상대의 모든 게 마음에 든다는 생각으로 그 여자 의 사진을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세요. 그럼 당신 은 그 여자에게 호감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당신에게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쌍해서 한번 준다'는 마음가짐의 전 여친과 하는 섹스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당신도 분명 침대에서 즐거웠을 테니까요. 무엇보다 제 주변엔 전 여친과 한 섹스가 '인생 섹스'인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처음 만난상대가 당신의 성적 취향을 완벽히 이해하고 오르가슴을 느끼게 해주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 알죠? 엑스 섹스(Ex Sex)가 즐거웠다면 당신의 몸을 기억하고 있는 상대라는 뜻이에요. 다만 당신이 전 여친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상태라면 엑스섹스는 끔찍한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경기'를 벌였다가는 기억속에 묻어둔 감정이 터져나와 더 힘든 연말을 보내게 될 수 있어요. 상대와의 관계가 여전히 복잡한 상태라면, 이 사람은 거절한다는 뜻으로 왼쪽으로 스와이프하세요.

남들 눈을 피할 수 있는 호젓한 경기장을 찾는

게 경기 상대를 찾는 것보다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어릴 때 쓰던 침실이 처박아둔 운동기구로 가득 차 있지 않은 경우, 완벽한 경기장이에요. 싸구려 술집 화장실, 한적한 영화관, 차고와 지하실도 괜찮은 경 기장이에요. 특별한 팁을 하나 더하면, 제가 애용하 는 곳은 차 안이에요. 하지만 자동차 시트 때문에 차 안에선 전희에 필요한 공간이 넉넉하지 않으니, 주의 하고요. 그리고 데이팅 앱 '범블'로 만난 상대를 외진 주차장으로 데려가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요. 부모님 차를 써야 한다면 현장에 남은 당신의 DNA 와 콘돔 포장지를 깨끗이 청소하세요. 경기 중에는 창문을 열고 사후에는 꼭 환기시키고요.

마지막으로 연말에 전 국민이 좋아하는 활동, 음주에 대해 한마디 할게요. 술에 취해 질척거리지 마세요. 혹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상대를 집으로 데려오는 건 피하시고요. 여자를 집에 데려오면 소파에서 경기를 벌이는 결말을 맞게 될 거고, 크리스마스 아침에 당신 부모님은 거기서 잠든 여자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요, 내가 그 여자였어요. 엄청난 두통에 시달리며 비틀비틀 일어나 아버지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브리짓. 커피 좀 줄까?"라는 말을 들은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거든요. 내가 겪은 불운을 교훈 삼아 당신의 원 나이트 상대에게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주세요. 그녀를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줄 택시를. 🏵 EDITOR YANG BOYEON



"여기 산타클로스가 오네, 여기 산타클로스가 오네, 산타클로스가 길을 따라 여기 아래로…!"





Q1: 진보를 인터뷰 한다니까. 어떤 깍쟁이 같은 여자가 그랬어요. "나 걔랑 자고 싶어"라고. 이유를 물으니, 진보 음악을 들으면 참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JINBO: 요즘은 덜한 편인데, 전에는 더 노골적으로 섹시한 음악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 노래 중 'Tape It Slow Baby' 같은 건 특히 음란하거든요. 이상한 소리 나오고, 듣고 있으면 뭐가 막 발사되는 것 같고, 적당히 편안하게 야한 무드가 있는 노래죠. 좀 '꼴떡꼴딱' 하달까?(웃음)

**Q2**: 요즘은 그렇지 않고요?

JINBO: 섹슈얼하지 않은 노래도 많아요. 저는 균형과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뭐든 한쪽으로 치우친 건 별로예요. R&B가 꼭 섹시한 음악만은 아니니까. 제 음악도 욕정과 순정을 오가는 거죠

Q3: 그럼 최근 파트를 나눠 발매 중인 리메이크 앨범 (KRNB2)는 욕정과 순정 중 어디에 가깝죠?

JINBO: 둘 다 있어요. 어떤 노래에선 섹시하고, 어떤 노래는 순정에 가깝고 그래요. 〈KRNB2〉는 보다 한국적인 정서가 담긴 노래를 제 스타일로 리메이크한 음반이에요.

Q4: 아이돌 트와이스부터 김현식, 윤수일, 김성재 등 장르적으로, 시대적으로 한데 묶이기 어려운 가수들의 음악이 진보의 색을 입고 다시 태어났어요. 곡을 고르는 특정한 기준이 있었나요?

JINBO: 우선 '좋은 곡'이어야 했어요. 곡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모두가 좋아할 만큼 유명한 노래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 트와이스의 'TT'는 전 국민이알고 있는 노래잖아요. 그런 노래가 편곡으로 어떻게 'R&B스럽게' 바뀌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도 누구나 기억하는 멜로디의 노래죠. 이런 곡에 R&B를 입히면, 진보가 하면 어떻게 달라질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한국 음악이 가진 멋을 진보만의 색으로 녹이고 싶었달까?

Q5: 〈KRNB2〉는 세 번째 파트까지 여섯 곡이 공개 됐어요. 아직 들려줄 게 더 남았나요?

JINBO: 총 10곡이 나올 거예요. 더 나올 곡에 대해 다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설명할게요. 우선 계절과 어울릴 노래가 있을 거예요. 위로와 감동을 전할 음악도 있을 거고, 어떤 노래는 좀 영적인 무드예요. 내면에서 고요하게 기도하는 마음처럼.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곡은 모두 다른 뮤지션과 함께했는데, 솔로 곡도 하나 있을 거예요.

**Q6**: 크러쉬, 지소울 등 모든 곡에 피처링 아티스트 가 있어요. 거의 'R&B 뮤지션'으로 구분할 수 있는.

JINBO: 이유가 있는 게, 국내에서 힙합은 '한국 힙합'이란 이름이 있잖아요. 'K—팝'도 있고요. 근데 R&B엔 아직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KRNB'란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국내 R&B 신이 몇 년 전에 힙합이 그랬던 것처럼, 곧 음원 차트를 휩쓸거나 DOK2 같은 스타가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 세대인 자이언티, 딘의 다음 세대 뮤지션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R&B 신 자체, 프레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있어요.

Q7: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R&B 신에 곧 큰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JINBO: 저는 그렇게 봐요, 10여 년 전엔 "어떻게 한국어로 랩을 하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음악 적 완성도는 물론 대중적으로도 자리를 잡았죠. 시 대마다 유행하는 장르가 다르고, 유행이 된 장르에 선 군계일학처럼 튀어오르는 신인들이 나타나요. 록이 유행일 땐 서태지가 그랬죠. 이제 R&B의 차례가 왔다고 봐요

**Q8**: 박재범의 참여는 좀 놀랐어요. 지금까지 진보 와 교점이 없었으니까.

JINBO: 엄청난 자극과 영감을 받았어요. 박재범은 이미 세계적인 뮤지션이자 엔터테이너잖아요. 그만큼 프로페셔널하고, 예의 바르기까지 한 친구였어요. 제가 곡을 함께하자는 제안에 신기할 만큼 쿨하게 수락했는데 나중에 이유를 물어보니, "오랫동안 언더그라운드 신에서 이룬 업적에 대한 리스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고마웠죠.

Q9: ⟨KRNB1⟩를 듣고 4년 전의 ⟨KRNB1⟩을 다시들었어요. 전작 보다 덜 자극적이란 말은 어때요? JINBO: ⟨KRNB1⟩에서 작사, 작곡, 편곡, 보컬 등모든 걸 혼자서 다할 수 있는 뮤지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면, ⟨KRNB2⟩는 남녀노소 불문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넣은 앨범이에요. 프로듀서로서 피처링 아티스트를 밀어주고 싶기도 했고요. 그 동안 뮤지션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는다거나, 음악을 잘 아는 사람들이 환호할 수 있게 음악을 만들었다면, ⟨KRNB2⟩는 흔히 말하는 '대중적인 음악'에 대한 욕심을 낸 거예요.

Q10: 그동안의 언더그라운드 뮤지션 진보를 아는 사람이라면 놀랄 만한 이야긴데요?

JINBO: 그런 말 있잖아요. "유명해지면, 그 맛 들려서 옛날의 모습으론 돌아오지 않겠구나."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도 전보다 더 대중적인 음악을 만들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다시 용기가 생겼죠. 예전의 실험적인 음악을 하던 나, 슈퍼프릭 레코즈의 나, 과거의 어떤 음악을 하던 내 모습을 언제든 꺼낼 수 있다는 확신이 서고 난 뒤부터.

Q11: 뮤지션으로서 다음 챕터로 가기 위한 선택이





라고 봐도 되나요?

JINBO: 저는 음악이든 뭐든 예술 분야에 속한 사람들은 다 '배우'라고 생각해요. 영화로 치면 한 가지연기를 잘하는 것도 훌륭한 배우지만,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는 것도 멋진 배우잖아요. 저는 뮤지션으로서 제 커리어를 그렇게 쌓고 싶어요. 음악은 물론음악의 외적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Q12: 외적인 부분이라면요?

JINBO: 〈KRNB2〉는 특별한 걸 할 거예요. 처음 얘기하는 건데, 바이닐도 만들 거예요. 그 바이닐의 하이라이트는 책자가 될 거고. 제 야망은 〈KRNB2〉에 실린 노래 원곡자의 인터뷰와 옛날 사진을 싣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대와 단둘이서'를 만든 장기호 선생님, '말하자면'의 이현도 형, 'TT'를 쓴 블랙아이 드필승 등등. 〈KRNB2〉를 만들며 다 직접 만나게 됐거든요. 〈KRNB2〉가 한국 소울, R&B 음악의 전체적인 가이드가 될 만한 음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이에요.

Q13: 기록의 의미가 있을까요?

JINBO: 해봐야죠. 장기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요. "진보 씨 같은 젊은 뮤지션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한다"고. 〈KRNB2〉를 만들며 80년대 이후 한국의현대 음악사와 놀랄 만한 스토리를 모으게 됐는데, 뮤지션으로서 전승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앨범

의 골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Q14**: 한국 R&B만의 매력은 뭘까요?

JINBO: '정(情)'. 소울은 영어잖아요. 직역하면 음 악과는 꽤 다른 뜻이 되죠. 의역으론 정인 것 같아요. 다양하잖아요. 온정. 우정. 애정 그리고 욕정.

Q15: 진보는 어떤 음악을 추구하나요?

JINBO: 절제. 박수칠 때 더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박수칠 때 한 걸음 물러서고, 아무도 안 볼때 나서서 보여줘요. 저만의 방식이에요. 가사도 비트도 섹시한 듯 아닌 듯 만드는 편이고요. 어떤 음악을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Q16: 아이돌 그룹과의 협업은 어때요? 레드벨벳, 방 탄소년단의 곡을 쓰기도 했어요.

JINBO: SM과 저는 추구하는 음악의 뿌리가 같아요. SM이 제일 좋아하는 뮤지션과 프로듀서가 마이클 잭슨과 테디 라일라인데,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레드벨벳 2집의 '봐(Look)'의 작사, 작곡 참여하다 좀 막힐 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테디라일리가레드벨벳의 곡을 만든다면 어떻게 할까?" 해답은 늘거기에 있었어요.

Q17: 슈퍼프릭 레코즈의 진보일 때는 좀 다르겠죠?
JINBO: 슈퍼프릭 레코즈의 모토는 "정상이란 건 없다"예요. 저는 정상, 보통 이런 말이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저도 더 '요상한' 음악을 해요. 한국에서 살다 보면 남들하고 비슷하게 살아야 할 것 같은 압력을 받잖아요. 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슈퍼프릭 레코즈는 래퍼, 프로듀서, DJ, 그래 픽 아티스트 등 나름의 재능을 바탕으로 자기 분야 에서 특출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정상의 범 위를 넘어선 비범한 사람들

Q18: 눈여겨보는 신인이 있나요?

JINBO: 볼 때마다 놀라운 아티스트 수민이 있고 요. 래퍼 중엔 쿤디판다. 아직 어린 친군데 그런 랩 실 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부러울 정도예요. 이 중에 누가 '별'이 될진 모르겠지만.

Q19: 아직도 작업하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나요?

JINBO: 보아. 예전부터 원했는데, 아직 못했어요. 그리고 CL, 015B의 정석원 형, 김건모. 너무 많은데, 다 말할까요?

**Q20**: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깍쟁이가 진보가 여자를 녹일 때 트는 음악을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JINBO: 먼저 제 노래 중 하나 고르자면 'Tape It Slow'. 그 노래를 부른 제 창법이나 정서가 애끓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즐리 브라더스의 'Between the Sheets' 로맨틱하면서도 고급스러워요. 마지막으론 릭 제임스의 'Super Freak'. 이 노래를 들으면 음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의식 같은 거없이. ❸



## The Animator KIM SANGJIN

애니메이터 김상진은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를 움직이게 한다. 그렇게 스스로 즐겁다.

PLAYBOY: 요즘도 매일 그림을 그리세요?

SANGJIN: 그렇죠. 제 직업이 그건데요.

PLAYBOY: 최근 몇 년 동안은 애니메이터보다 캐 릭터 디자이너로 더 활발히 활동하셨죠.

SANGJIN: 디즈니에 있을 때 처음 10년은 애니메이터로, 다음 10년은 캐릭터 디자이너로 일했어요. 애니메이터는 개별 신 하나를 책임지고 작업하고, 캐릭터 디자이너는 영화 전체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디자인하게 되죠. 부분을 보느냐, 전체를 보느냐의 차

PLAYBOY: 실제 그림과 씨름하는 애니메이터와 달리, 캐릭터 디자인은 상상력의 비중이 더 큰 게 아 난가 생각했어요

이랄까요

SANGJIN: 지금 로커스에서 제작 중인 〈빨간 구두와 일곱 난쟁이〉는 캐릭터 디자인이 다 끝났어요. 저는 현재 단계에서 다시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죠. 애니메이션 슈퍼바이징이랑 디렉팅. 아무래도 제가 캐릭터 디자인을 했으니까, 생각했던 표정이나 연기가잘 나오나 검토하고 수정합니다. 작품 감독은 따로 있으니, 전 그중 애니메이션을 감독하는 거죠.

PLAYBOY: 영화에 비교하면 촬영감독의 역할 같은 걸까요?

SANGJIN: 영화엔 아마 이런 역할이 없을 거예요. 그보다는 연기감독?

PLAYBOY: 한 인터뷰에서 애니메이터란 직업을 설명하며 "캐릭터에게 연기를 시키는 것"이란 표현을 썼죠

SANGJIN: 그렇죠. 애니메이터는 "연필로 연기를 하는 배우"란 말이 있어요.

PLAYBOY: 그러다 보면 스스로를 배우처럼 여기 는 순간도 오겠네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거울 앞에 서 동작도 지어보고.

SANGJIN: 처음 하는 일이 카메라 켜놓고 자기가 연기를 해보는 거예요. 배우인 셈이죠. 그걸 참고해 서 CG 캐릭터에 입혀보고.

PLAYBOY: 캐릭터 디자이너도 큰 틀에선 애니메 이터의 범주에 넣을 수 있나요?

SANGJIN: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일하는 아티스트를 통칭 애니메이터라고 부르기도 해요. 정확히 따지면 실제 캐릭터의 연기와 움직임을 만드는 사람들이고요. 저도 소개할 때는 애니메이터 김상진이라고하죠 애니메이터 겸 캐릭터 디자이너라든가.

PLAYBOY: 캐릭터 디자이너의 역할은 어디까지 인가요? 원하는 표정과 동작의 가이드라인까지 모 두 정하나요?

SANGJIN: 디자이너마다 달라요. 저는 예전부터 CG 모델링이나 캐릭터에 뼈대를 심는 작업에까지 다 관여했어요. 제가 처음에 2D 그림을 그리면서 원했던 느낌이 있는데, 그게 CG로 잘 구현되도록 돕는 거죠. 일반적으로 2D 작품은 애니메이터들이 그림으로 애니메이션을 하면, 그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그림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 비트윈, 동화(動畵)라고 하죠. CG엔 그런 파트가 없어요.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애니메이터가 몇 가지 주요 포즈만 잡으면, 컴퓨터가 이어 붙이는 거죠.

PLAYBOY: 2D 애니메이션의 전성기부터 그림을 그려왔지만, 디즈니도 사실상 2D 애니메이션 제작을 중단한 상태죠. 위기감을 느낀 적도 있나요?

SANGJIN: 그렇지 않아요. 회사에서는 오히려 2D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을 훈련시키고자 했어 요. 미술하는 사람들의 기본 중의 기본이 드로잉이 나까요. 저도 전공자가 아니라. 처음엔 그게 굉장한

콤플렉스였어요. 디즈니 입사하고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것 같은 과정을 거쳤죠. 드로잉 수업 듣고.

PLAYBOY: 디즈니에 입사한 1995년은 흔히 말하는 '디즈니 1차 르네상스'가 정점을 찍은 직후였죠. 〈라이온 킹〉이 1994년에 나왔으니까.

SANGJIN: 막 내리막길을 탈 때 들어간 셈이죠.

PLAYBOY: 이미 그런 분위기였나요?

SANGJIN: 처음에야 황금기의 맛에 좀 취해 있던 때였죠. 2~3년 지나면서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꼈어요. 저는 그래도 디즈니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이후 회사가 2D 작업을 안 하겠다고 선포했을 때,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CG 트레이닝을 받고 CG로 넘어가느냐, 디즈니를 나가느냐의 선택지가 주어졌으니까요.

PLAYBOY: 2010년 〈라푼젤〉부터 2016년 〈주토 파아〉까지, 지금은 디즈니의 '2차 르네상스'로 불리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 기간 동안 캐릭터 디자이너로 〈라푼젤〉, 〈겨울왕국〉, 〈빅 히어로〉, 〈모아나〉 등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불현듯 퇴사 후 귀국을 결정했어요. 이만하면 됐다. 같은 심정이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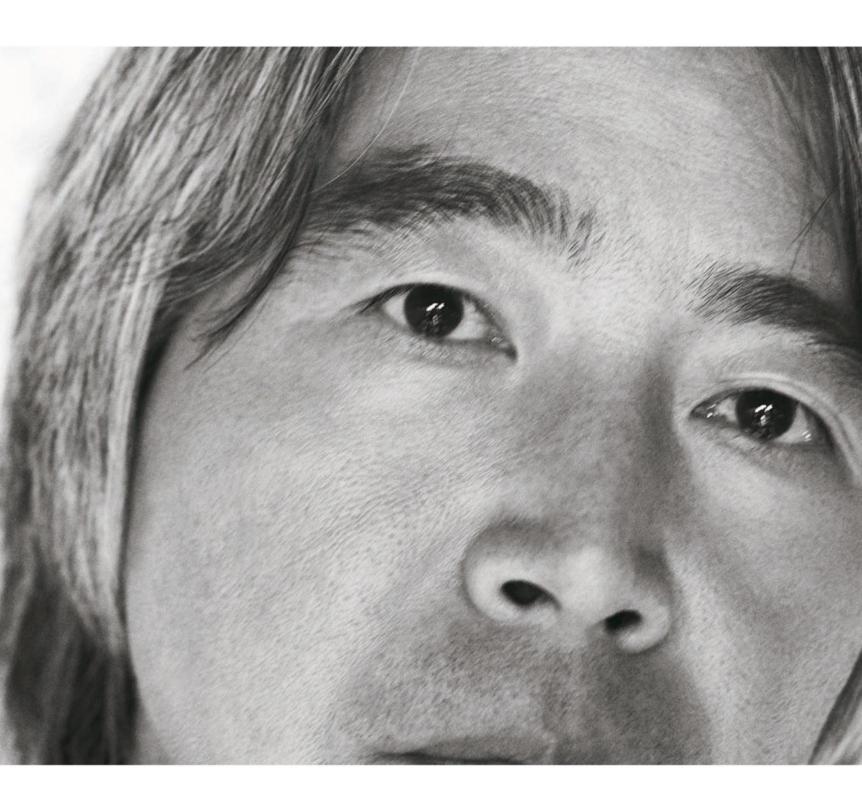
SANGJIN: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일단 디즈니에서 20년이나 일을 하다 보니 다른 세상은 어떤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디즈니의 다음 라인업이 속편들(〈주먹왕 랄프 2〉와 〈겨울왕국 2〉)로 잡혀 있었고요. 캐릭터 디자이너로서, 속편은 크게 흥미롭지 않거든요.

PLAYBOY: 그렇다면 원작이 있는 작품과 원작이 없는 작품을 비교한다면요?

SANGJIN: 〈빅 히어로〉같은 경우엔 시작 단계에서 마블의 원작을 전혀 안봤어요. 나중에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찾아봤죠. 개인적으로는 원작







####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뭐랄까, 한국에서 태어난 슈퍼히어로를 그려보고 싶어요. 마블식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진짜 영웅. 꼭 슈퍼파워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의 영향을 받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몰라 야 완전히 다른 뭔가가 나올 수 있고. 사실 대부분의 작품은 감독의 아이디어 스케치라는 게 있어요.

PLAYBOY: 캐릭터 디자이너로서 관람객의 연령을 고려하기도 하나요?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 관객도 즐겼으면 하는 맘으로 어떤 캐릭터를 어른스럽게 그려본다거나.

SANGJIN: 글쎄요. 캐릭터 디자이너로는 디즈니에서만 일을 했으니까, 이미 제 그림도 디즈니스타일에 익숙해졌죠. 너무 틀에 박힌 그림을 그리고 있나, 란 생각을 가끔 해보지만 그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PLAYBOY: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야말로 결코 아이들만 보는 작품은 아니죠.

SANGJIN: 애니메이션에 대한 편견이랄까? 어른 되면 극장 가서 안 보는 장르가 돼버린 느낌이 있죠.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한국은 더 심한 것 같아요. 미국 영화엔 등급이 있잖아요, PG13, R 레이티드 같은. 거기선 R 레이티드 작품도 심심찮게 나와요. 하지만 디즈니나 픽사 같은 메이저 스튜디오 에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고

PLAYBOY: 꼭 등급을 떠나서라도, 디즈니에서는 왜 〈치코와 리타〉나 〈카우보이 비밥〉 같은 애니메이 션을 시도하지 않는 걸까요?

SANGJIN: 방침이겠죠. 그런 걸 다른 데서 하고 있기도 하고. 디즈니가 잘하는 걸 하는 거죠.

PLAYBOY: '디즈니 스타일' 그림체에서 탈피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나요?

SANGJIN: 가끔요. 좀 다른 얘긴데, 기본적으로 다양한 작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 애니메이션 중에 연상호 감독의 작품들은 아이들이 볼수 있을 만한 건 아니죠. 그런 게 많아져야 해요. 〈마당을 나온 암탉〉도 인상적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치와 씨팍〉을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언젠가 제가디즈니에서 해온 것들과 결이 다른 작업에 참여할 기회가 생기면 해보고 싶어요.

PLAYBOY: 하필 성인용이라고 하면 꼭 '19금 콘텐츠'를 다룬 작품이란 고정관념이 있어요. 90년대의 〈블루 시걸〉이라든가.

SANGJIN: 맞아요. 퀄리티에 대한 얘길 안 할 수 없죠. 이를테면 성인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질적으로 우수한 애니메이션이 필요해요. 〈블루시걸〉은 저도 좀 보다 말았어요.

PLAYBOY: 가장 그리기 성가시고 귀찮은 부분은 역시나 머리카락인가요?

SANGJIN: 인체 중에는 눈이에요. 제일 어려워요. PLAYBOY: 표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까요?

SANGJIN: 〈빨간 구두와 일곱 난쟁이〉하면서도 고치고 또 고치고 수정한 부분이 눈이에요. 아주 자그마한 차이로 뉘앙스가 바뀌니까요. 눈썹 각도와 눈꼬리 각도가 1밀리미터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 전체 표정의 느낌이 달라지고.

PLAYBOY: 동작에서라면요?

SANGJIN: 동작도 표정처럼 뉘앙스를 담긴 하지만, 눈만큼 어렵진 않아요. 특히 클로즈업 장면의 눈처럼 연기가 힘든 부분이 없어요.

PLAYBOY: 주요 캐릭터 플린 라이더와 고델을 디자인한 〈라푼젤〉을 두고 "가장 까다로운 CG 모델링 소재들로 도배되다시피 한 이 야심 찬 애니메이션은 기존 디즈니—픽사 스튜디오의 성과물을 뛰어넘는 기술적 완성도(〈인크레더블〉의 옷감 질감과 머리카락(!) 표현을 멀찌감치 뛰어넘는다)"란 평(허지웅)이 있었어요. "불빛과 머릿결이 만져져요"(박평식)도.

SANGJIN: 동의합니다. 저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 〈라푼젤〉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픽사와 경쟁하고, 픽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준 영화. 그전만 해도 픽사의 독주였죠. 〈라푼젤〉은 원래 2D로 만들려고 한 작품이에요. 그런 긴 머리를 우리가 CG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PLAYBOY**: 머리카락은 2D보다 3D 구현이 어려 우 건가요?

SANGJIN: 아직도 그렇죠. 오히려 CG로 하는 게 더 힘득어요

PLAYBOY: 2013년〈겨울왕국〉신드롬 이후, 김 상진이란 이름이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졌어요. 예능 처럼 묻는다면, 이사님(그는 현재 로커스 스튜디오 이사를 맡고 있다)에게〈겨울왕국〉이란?

SANGJIN: 어떤 가능성? 어마어마한 흥행이었

죠. 당시 느낌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에 가까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와 좋은 캐릭터가 있다면 한국 관객들도 애니메이션을 볼 준비가 되어 있구나. 란 사실을 알게 된 가능성.

PLAYBOY: OST의 'Let It Go'를 비롯한 여러 성 공 요인이 있었죠. 하지만 〈겨울왕국〉이 사회 현상이라 부를 만한 의미를 가진 건, 결국 캐릭터의 힘이 아니었나 싶어요. 엘사와 안나의 관계, 둘의 성격, '러브라인' 등이 전통적 디즈니 여성 캐릭터와 달랐죠. 단순하게는 주체적이라 말할 수도 있겠고요. 캐릭터를 그림 때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나요?

SANGJIN: 디자이너는 우선 외모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에 가장 집중하긴 하죠. 두 자매가 달라야 하고, 캐릭터의 성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을 고민하고, 옷을 입히고. 무엇보다 애니메이터들의 연기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엘시가 산 정상에 오를 때 'Let It Go'를 부르면서 변해가잖아요. 자아를 찾는 모습. 그게 완벽한 연기로 표현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겨울왕국〉은 디즈니 최초로 여성 감독이 공동 감독으로 참여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성 캐릭터의 변화가 더욱 도드라졌지 않았나 생각해요.

PLAYBOY: 지난해 개봉한 〈모아나〉역시 여성영화비평가협회상 'Best Animated Female' 부문을수상했죠. 수상작을 선정할 때 성격이나 행동뿐만아니라 외형까지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SANGJIN: 디즈니의 여성 캐릭터는 조금씩 변해 왔어요. 〈미녀와 야수〉의 벨 캐릭터부터 〈뮬란〉을 거쳐 지금에 오기까지. 〈겨울왕국〉의 엘사와 안나는 그래도 바비인형 같은 체형이었죠. 〈모아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진일보한 거고요.

PLAYBOY: 세상의 수많은 애니메이션 중, 단 하나의 캐릭터를 맡아 디자인해볼 수 있다면요?

SANGJIN: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뭐 랄까, 한국에서 태어난 슈퍼히어로를 그려보고 싶어 요. 마블식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진짜 영웅. 꼭 슈퍼 파워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보다는 많은 사 람들의 존경을 받는.

PLAYBOY: 너무 만화적 영웅보단 실제 현실에서 의 영웅 같은 캐릭터인가요?





# HAIR & MAKEUP ARTIST KOO HYUNMI ASSISTANT EDITOR KIM SUNHEE

####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감독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참여한 모든 크루의 총합인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잘하고 싶어요. 그게 더 필요한 것 같고. 감독은 좋은 스토리가 있거나, 내가 해보고 싶은 얘기가 생기면 글쎄요. 생각이 있긴 합니다. 지금으로선 모르겠고.

SANGJIN: 그렇죠. 어떤 여자아이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중년의 남자일 수도 있고. 현 실에 발을 붙이고 있는 캐릭터였으면 좋겠어요.

PLAYBOY: 만화적 상상력으로 캐릭터를 만드는 디자이너의 이상이라기엔 꽤 의외인데요?

SANGJIN: 원래 캐릭터 디자인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많이 참조해요. 관객이 믿을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죠. 최종본에서는 편집됐지만, 〈모아나〉에 갓난아이 모아나가 태어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아기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 제 딸아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머리가 되게 곱슬곱슬했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생머리가 됐지만. 토실토실한 볼, 동그란 눈도. 〈라푼젤〉의 마녀 고텔은 제 와이프의 친구를 참조했고요(웃음)

PLAYBOY: (웃음) 당사자도 알고 있나요?

SANGJIN: 영화 다 끝나고 얘기해줬죠. 좋아하더라고요. 그전엔 와이프한테 몰래 친구 사진 좀 많이모아달라고 했죠. 그런 게 결국 캐릭터를 현실적이고생동감 있게 만들거든요.

PLAYBOY : 관찰력과 상상력, 어느 쪽이 더 중요 학까요?

SANGJIN: 똑같이 가야죠. 디즈니의 수장 존 래 시터가 항상 제일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리서치! 캐 릭터든 배경이든

PLAYBOY: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는 뭔가요? SANGJIN: 애착이 가는 건 〈라푼젤〉의 고델이에 요. 그리는 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고, 고생도 많이 했거든요. 〈모아나〉 캐릭터도 기억에 많이 남고요.

PLAYBOY: 〈빨간 구두와 일곱 난쟁이〉가 내년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디즈니에서 일할 때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SANGJIN: 많이 다르죠. 환경도 규모도 제작비도. 경험 면에서도 많이 부족하고. 물론 큰 틀은 비슷하게 가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꽤 도전이 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PLAYBOY: 이미 충분한 경력이지만, 여전히 성장 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나요?

SANGJIN: (웃음) 좀 그렇죠. 매번 다른 작품 할 때마다 내가 이전에 안 하던 걸 집어넣어볼까, 계속 생각해요.

PLAYBOY : 〈빨간 구두와 일곱 난쟁이〉의 차별점 을 꼽는다면요?

SANGJIN: 스토리로든 영화 전체의 비주얼로든, 미국 대형 상업 스튜디오에서 만드는 애니메이션에 감히 도전장을 내밀어보려 합니다. 전통적 애니메이션의 꼴을 따르지만, 우리식의 트위스트를 넣어보려 했고요. 예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일곱 난쟁이의 비밀이 있다, 라는 설정으로요. 전반적으로는 외모만 중시하는 사회에 대한 우화랄까요? 이 작품의 가장 큰 장점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참된 내면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얼마 전 인천공항 단기 체류자들을위한 성형 클리닉을 만든다는 뉴스를 봤어요. 너무어이가 없었습니다. 더불어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지금까지 많은 한국 애니메이션이 아이들을 위한 영화라면서 질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PLAYBOY: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쉬워야 한다, 혹은 쉬워도 된다.

SANGJIN: 아이들을 위한 영화라면 오히려 더 품질에 신경 써야죠. 아이들 먹거리는 내 먹거리보다 주의를 기울이잖아요. 그런데 왜 볼거리엔 그렇게 하지않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감히 말하자면, 저나감독님이나 모든 크루들이나 한국 애니메이션의 차원을 조금이라도 올려놨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입니다.

PLAYBOY: 더빙에 클로이 모레츠와 지나 거손이 참여하는 등, 영어로 녹음해 '월드와이드' 배급에 집 중하게 되나요?

SANGJIN: 기획 단계부터 그게 목적이었어요.

PLAYBOY: 한껏 기대를 품게 되는 소식인 한편, '로컬'이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다소 생겨요. 예를 들어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은 '로컬'로 제작되어, 해외로 팔려나가는 방식이죠. 언어야말로 그 애니메이션이 어디서 왔는지 판단하는 기본 요소가 되고요.

SANGJIN: 그러면 당연히 좋죠. 맞는 말이지만, 일본 애니메이션은 그만큼 역량이 돼요.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고요. 한국에서 만들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만들어서 해외 시장에 릴리스하는 건 모든 애니메이션 종사자들의 꿈일 거예요. 하지만 아직 시기상조고, 지금은 전략적으로 해외 시장과 관

객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을 우선적으로 제작하는 거랄까.

PLAYBOY: 국내 시장 자체가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SANGJIN: 그게 제일 크죠. 인프라카 탄탄해지면, 지브리 같은 스튜디오가 생길 분위기가 형성될 거예요. 역량 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오! 한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이라 인식하고 찾아볼 테고.

PLAYBOY: 다음 세대에 맡겨야 할 몫일까요?

SANGJIN: 제가 활동하는 동안 그런 풍경을 볼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르죠. 곧 그렇게 될지. PLAYBOY: 감독 욕심은 없나요? '1인 제작 시스템'으로 이름을 떨친 〈너의 이름은〉의 신카이 마코토 감독처럼

SANGJIN: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감독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참여한 모든 크루의 총합인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잘하고 싶어요. 그게 더 필요한 것 같고. 감독은 좋은 스토리가 있거나, 내가 해보고 싶은 얘기가 생기면 글쎄요. 생각이 있긴 합니다. 지금으로선 모르겠고

PLAYBOY: '필생의 작품' 같은 것에 대해 고민해 보기도 하나요?

SANGJIN: 구체적으로 그려본 건 없어요. 저는 그 냥 일을 하면서 재미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듯해요. 〈빨간 구두와 일곱 난쟁이〉도 굉장히 고생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재미가 있어요. 그게 뭔가를 계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네요.

PLAYBOY: 매순간 재미없으면 동력을 잃는 사람이 있을 테고, 목표 지향적으로 거기 도달하기 위해 힘든 순간도 견디는 사람이 있을 테죠.

SANGJIN: 저는 전자 쪽인 것 같네요.

PLAYBOY: 그래야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수 있는 거겠죠? 내가 재미없이 그리는데, 보는 사람이 재미있을 수 있나 싶어요.

SANGJIN: 제가 애니메이터들한테 주문하는 것도 그거예요. "야, 좀 재밌게 해봐! 그냥 재밌게 해!" 어차피 애니메이션이 다 재밌자고 하는 일인데. 우리가 로켓 과학자도 아니고,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들이 잖아요. 스스로가 즐겁지 않으면 누굴 즐겁게 만들수 있겠습니까. ♥

















## 내게 거짓말을 해봐

임영웅이 찍은 여체엔 속임수가 없다. EDITOR **YOU JISUNG** PHOTOGRAPHY BY **YIM YOUNGWOONG** 



Fukan, 2017

"당신을 평범하게 대하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말라." -Oscar Wilde -

## Special Issue:



## **RED**

빨강은 그 어떤 색보다 강력한 상징이지만, 그 속뜻은 제각기 다르다. 혁명의 빨강, 광기의 빨강, 죽음의 빨강, 사랑의 빨강… 빨강을 더 잘 알기 위해, 홍등가를 찍은 조문호의 사진과 마크 퀸이 제 피로 만든 작품을 가까이에서 봤다. 셀 수 없이 많은 빨간 로고를 살폈다. '19금' 영화는 대체 왜 '19금'일까. 〈빨간 책〉을 읽고 빨강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의 얘길 들었다. 뜨거운 진실 혹은 새빨간 거짓말, 그 중 진짜를 가릴 수 있을까? 그리고 온통 빨간 12월의 노래 31곡을 골랐다. 빨갛고 화끈한 물건을 불이 나도록 더 빨갛게 찍었다. 그리고 시대를 붉게 물들인 다섯 명의 팜므 파탈을 다시 만났다.

EDITOR YOU JISUNG

## EDITOR YANG BOYEON PHOTOGRAPHER KIM JANDEE

## THE RED

섹스, 피, 홍등가, 19금, 그리고 생명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빨간색에 대한 다섯 가지 이야기.

### **BLOODY FACE**

마크 퀸은 제 피를 뽑아 자화상을 만들었다. 살아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BY **김재석** 

마크 퀸, 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작품이 '자 아(Self)'다. 2014년 공간 사옥을 개조해 문 을 연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의 개관전에서 이 악명 높은(?) 작업의 실체를 확인했다. 투명한 정사 각형 박스 정중앙에 검붉은 빛깔의 얼굴 형상이 얌 전히 놓여 있다. 거친 표면 질감과 색깔 때문에 산화 한 철이나 브론즈로 만든 조각처럼 보이다. 혹은 좀 오래된 고무나 고깃덩어리 같기도 하다. 투명 디스플 레이 장치 아래에 기단 역할을 하는 스테인리스스틸 냉장 시설이 전시장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다. 아라리 오뮤지엄의 붉은 벽돌을 배경으로 설치된 작품은 어 딘가 을씨년스러워 보였다. (기억이 맞는다면) 냉각 장치가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이 작업은 현대미술을 '스캔들'로만 소비하는 사람들에겐 제물과 다름없다. '자야'는 파격과 엽기 로 쓴 미술의 전당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조각 의 재료가 작가의 실제 피라는 점 때문이다. 마크 퀸 은 자신의 피를 주기적으로 뽑아서 모았다.

'자이'는 1991년 제이 조플링/그롭 갤러리에서 열 린 개인전 《Out of Time》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 전 시에는 '자이' 이외에 '5~9월, 1991년'이 전시장 벽면 을 채우고 있었다. '5~9월, 1991년'은 밀가루 반죽 에 작가의 손바닥을 떠서 구운 빵 수백 개로 구성 한 작품이다 '자이'와 '5~9월, 1991년'은 모두 작가 의 신체가 남긴 흔적이었다. 마크 퀸의 홈페이지에는 해당 작업의 제작 방식과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 다. 먼저, '5~9월, 1991년'의 "전체 조각은 우리의 미 래를 구성할 무한한 순간을 제시"한다. '자아'는 "작 가의 초상이지만, 문자 그대로 자신의 몸의 일부를 물질로 사용한 작업이다. 퀸은 자신의 피 10파인트 로 머리를 주조해 냉동 실리콘에 담갔다. 이런 방식 을 통해, 조각의 물질성은 상징적이며 동시에 실제 기능을 갖게 되었다. 이 작품은 퀸이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 시절에 구상해 만들기 시작한 작품이다. '자 아'는 의존성의 개념을 담고 있는데, 냉동 상태로 남 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거나, 생존하기 위해 다른 무언가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자신의 피로 만든 조각과 손바닥을 떠 서 구운 빵 조각의 조합은, 기독교의 성혈(聖血)과 성체(聖體) 의식을 화기하는 대체물에 가깝다. 당시 일용할 양식인 빵을 미술 재료로 사용하는 일에 몰 두했던 작가는 1990년 열린 개인전에서 빵으로 제 작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같은 역사적 인 물의 흉상도 선보였다. 전통적으로 서양에서 흉상 이나 두상이 위대한 업적을 쌓은 인물을 기리기 위 해 제작됐다는 점을 떠올려보자. 그렇다면 빵에서 피로 재료를 전환한 두상 조각인 '자아'는 당시 20 대 중반이었던 작가의 '오늘'을 기념하고, 자신을 종 교적 역사적 인물과 같은 위치에 놓겠다는 선전포고 같은 것이었을까?

첫 '자아'는 찰스 사치가 구매했고, 이후 그의 소장품 전시에 대표작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1997년 영국왕립미술원에서 열린 〈센세이션(Sensation)〉 전을 통해 영국 현대미술의 아이콘이 되었다. 마크 퀸은 자신의 몸을 활용한 작품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자아' 연작을 5년 주기로 제작해왔다. 방식과 형식은 전작과 동일하다. 그는 몇 번에 걸쳐 몸에서 10 파인트(5리터 정도)를 채혈한다. 제 얼굴을 떠서 만

든 틀에 피를 부어 얼리고, 이를 냉동 실리콘에 넣는 다. 온도는 −18°C를 유지한다. 전체 크기는 냉동 장치를 포함해 높이 208cm에 가로×세로 63cm로 같았다. 2009년 스위스 바젤에 있는 바이엘러재단에서는 당시까지 제작한 '자아' 연작만을 모은 개인전이 열리기도 했다. 각각의 핏덩어리 형상은 언뜻 비슷해 보였지만, 제작연도와 보존 상태나 빛깔, 얼굴의 주름에 따라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앞서 언급한 아라리오뮤지엄의 소장품은 2001년 버전으로, 1964년생 작가의 37세 당시 모습이었다. '자아'는 작가의 설명대로, "지나간 시간의 누적된 흔적이자, 작가의 노화와 변화에 관한 현재진행형의 초상"인 셈이다.

마크 퀸은 '자아'가 "초상의 가장 순수한 형식" 이라 강조한다. 작업의 전제 조건이 피와 살로 이뤄 진 작가의 '살아 있는' 몸과 그 실존의 상태에 의지하 기 때문이다. '자아'는 오직 작가가 살아 있는 동안에 만 만들 수 있다. 동시에 '자아'는 죽음의 순간도 끊 임없이 환기한다. 냉동 장치가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 거나 코드가 뽑히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실제로 찰스 사치의 부인이 전원을 끄는 바람에 첫 번째 '자 아'가 녹아버렸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작가도 '자 아'의 존재 그 자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 소연한다. 이후 그는 갓 태어난 아들의 태반, 급속냉 동한 식물, 복제 DNA, 케이트 모스, 구족화가, 남성 에서 여성으로 혹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전환 한 사람, 과도한 문신과 성형수술을 한 사람 등을 소재로 삼고 작품을 제작했다. 그가 줄곧 생명의 유 약함. 기계 장치의 메커니즘. 강렬한 삶의 의지. 곳곳 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 신체 변형의 욕망과 아름 다움의 상대적 가치 등을 탐구해왔다는 점에서, '자 아' 연작은 마크 퀸 작품 세계의 출발점이다. 그것은 도발을 위한 기행이 아니라 살아 있음을 증명하려는 작가의 자화상에 가깝다. 🜒



## EDITOR YANG BOYEON PHOTOGRAPHER JO MUNHO

### SHADE OF RED LIGHT

붉은 조명 이래 서고 싶은 사람은 없다. RV **이지혜**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일당 아르바이트 모 집 공고를 보고 갔던 청량리. 도대체 무슨 일인지 써 있지도 않았던 일로 모인 열 명 남짓의 갓 스무여 살이 된 청년들은 대낮에 어떤 골목과 마주 했다. 허름한 건물에 붉은 조명이 켜 있고, 짙은 화 장을 한 여성들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골목 을 들어섰을 때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 으나, 인솔자는 골목을 지나 시장으로 데려갔다. 사 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여성이 성매매 업소를 방문 하게 되는 경험은 그리 적지 않다. 마사지 업소의 계 산원을 구하는 줄 알고 찾아갔으나 일을 가르쳐준 다는 종업원이 슬립만 입고 나와 황급히 빠져나왔다 고 말하던 중학교 동창, 고급 한식집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갔으나 저고리 없이 한복 치마만 입은 언니 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돌아왔다는 대학 동기의 이 야기. 사회를 이제 막 접한 풋내기 시절, 동성 친구들 이 한번쯤은 겪은 일이다. 집창촌으로 불리는 '청량 리 588'과의 첫 만남은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 서 벌어졌다. 당시에는 그곳이 그 유명한 '그곳'인 줄 도 몰랐고, '도대체 저 촌스러운 붉은 조명은 왜 쓰는 거지?'라 의문만이 스쳤다.

붉은색 조명이 익숙한 곳은 정육점이다. 하지 만 전통적으로 집창촌에서도 붉은 혹은 분홍 조명 을 쓴다. 붉은 조명은 세계를 막론한다. 한국에서 는 '홍등가', 중국에서는 '홍등구(紅燈區)', 미국에서 는 'Red Light District' 등으로 불린다. 그러나 조 무호 작가의 사진집 〈청량리 588〉에서 볼 수 있듯 대 낮에도 여성들을 비추는 붉은 조명은 (내 기준에서 는) 그들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진 않았다. 그보 다는 보통 집창촌이 늦은 시간에도 교통이 원활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 늦은 밤 도심 속 십자가만큼 눈에도 잘 띄고, 어떤 여성이든 일률적 으로 몸만 부각되는 효과를 주는 불빛에 가까워 보 였다. 하지만 붉은 조명을 쓰는 집창촌은 성매매특 별법 이후 단속과 개발로 인해 사라지는 추세다. 그 러나 붉은 조명을 쓰는 업소는 사라지지만, 성노동 자들 위의 레드 라이트는 사라지지 않는다. 장세희 한터여종사자연맹 공동대표에 의하면 "성매매특별 법 시행 이후 현재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 유흥주 점,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등 음성적 성매매는 오히 려 늘었다"고 한다. 일자리를 구하는 여성이라면 누 구든 원하든 그렇지 않든 성매매 업소를 찾을 수 있 다. 그리고 당장 돈이 필요하다면 더욱 쉽다.

올해 10월 한터여종사자연맹이 주최한 시위에 서 여성 1500여 명이 모여 "성매매 여성들을 범죄자 로 낙인 찍는 성매매특별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시위 했다. 그 외에도 SNS에서 성노동자들이 성매매를 하 면서 겪었던 각종 폭행들이 그들의 목소리로 가시화 됐다. 성노동자들은 강간을 당해도 인정받지 못하 고, 몰카를 찍혀도 '그럴만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몰 카 중 일명 '원정녀' 시리즈가 그를 방증한다. 국제엠 네스티에서는 그래서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주장한 다. 비범죄화는 성매매에 세금을 매기고 성노동자 등 록 및 관리를 하는 합법화와는 다르게, 성노동자들 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자는 이야기다. 성매 매가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되고, 범죄화 된 노동의 특성 때문에 성노동자는 계속 비밀스럽고 위험한 환 경속에서 안전이나 정부의 보호를 거의 기대할 수 없 는 채 일하게 된다. 그 결과, 성노동자는 폭력과 학대 의 위험에 보다 많이 노출되지만, 이 같은 범죄에 대 한 신고나 조사나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에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반대로 성노동자의 경우, 2014년 티켓다방에서 일하던 20대의 성노동자 가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창문에서 뛰어내려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그리고 올해 14 살 가출 청소년은 성매매를 알선 받아 조건만남을 했 고, 모텔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성매수자로 체포될 경우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성노동자들 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한 뒤가 대부분이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 네트워 크 '뭉치'에서 내놓은 의견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성 범죄가 성매매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서도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 과 악질적인 성범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 리는 늘 보아왔습니다.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이 너 무나 쉽게 성매매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국제엠네스티에서는 성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는데, 자발적인 성 노동자와 성구매자가 만났을 때 폭력이 일어나도 보 호해줄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가디언〉은 국제엠네스티가 말하는 성노동을 비범죄화하는 인 권당체 중 국제성노동네트워크프로젝트(NSWP)의 부대표 알레한드라 길이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혐 의로 15년형을 받은 범죄자라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포주 및 업소 운영자의 행위를 일반적 노동의 일종으 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었다. 뭉치 회 원들은 "성매매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여성을 소유하 는 성매수자와 알선업자에 의한 폭력에 무방비 상태 가 됩니다. 심지어 여기엔 공권력도 내통하여 이러한 폭력을 공유합니다. 성매매는 그 무엇을 위해 하든 상관없이 자유로이 선택하는 '직업'일 수 없습니다. 성 매수자들이 원하는 것은 섹스가 아닌 복종이었습니 다. 웃으며 모든 행위를 즐기는 듯 연기하며 우리의 몸과 시간에 마음대로 군림하는 것을 '돈'을 이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일이거나 노 동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한국의 성노동자들 은 스웨덴식 모델인 '성노동자만 비범죄화'를 하자고 주장한다. '2016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여성가족부) 에 따르면 응답자 50.7%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성 구매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인당 평균 성매매 횟수는 3년 전 6.99회에서 8.46회로 1.47회 증가했 다. 성노동자에 대한 설문에서는 70.7%가 자신의 건 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답했고, 63.2%는 부채가 있 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를 완벽한 '노동' 으로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성매매를 개인 간의 사적인 이야기로 볼 수 없는 이유기도 하다. 성 매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 문화에 맞는 법 유 형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성매수자가 대다수 '남성'이기 때문에 성매수자들만 처벌하는 것 은 차별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온 전하게 성평등이 이루어진 세상에서는 과연 대다수 의 여성과 성소수자가 성매매를 할까. 남녀를 떠나 온 전하게 '자발적'으로 그 붉은 조명 앞에 서고 싶은 사 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 떠한가. 🔞

문화에 대한 글을 쓰는 이지혜는 (ze)의 취재 팀장이며, 대체로 아침 일찍 일어나 기사를 쓴다. 하지만 반드시 전할 말이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원고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다. 끈질기게.



## EDITOR YOU JISUNG ARTWORK PYOKISIK

## 19금 앞으로

영화는 전진한다. 금기는 깨진다. 결국은 속도와 이해의 문제일 뿐이다. BY **송경원** 

영화의 역사가 120년이라면 규제와 검열의 역사가 그 절반은 차지할 것이다. 창작과 표 현의 자유를 외치는 쪽과 사회통념을 내세워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언제나 충돌해왔다. 하지만 영 화의 영토는 단 몇 밀리일지라도 멈추지 않고 확장되 어간다. 한번 표현의 영역을 확보한 영화가 다시 후퇴 하는 일은 거의 없다. 가령 1967년 유현목 감독의 〈 춘몽〉에서 살색 타이츠를 입힌 여성의 나체 장면을 시도했다.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닌 장면이지만 당시 엔 심지어 이 장면이 최종 편집에서 빠졌음에도 불구 하고 감독이 외설죄로 1년6개월의 자격정지형을 받 았다. 1996년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작 〈크래 쉬〉도 웃지 못할 사례를 남겼다. 당시 기자, 평론가에 게만 공개한다는 조건으로 무삭제 상영을 하기로 했 지만 결국 표현 수위 등을 문제 삼아 감독의 동의 없 이 10분가량 무단삭제를 한 것이다. 이를 두고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당신은 21세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표현' 이라고 느끼는 당신이야말로 영화에서 표현의 영역 이 끊임없이 넓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과연 몇몇 사람들의 믿음처럼 과도한 표현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일까. 만약 그렇다면 예전에 비해 표현의 영역이 대폭 넓어진 지금의 사회가 이전보다 훨씬 부도덕하단 뜻이 된다. 혹은 표현의 자유가확대될수록 사회는 문란해진다고 할 수도 있겠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지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문제는 금기의 폭이나 범위가아니다. 앞서 말했듯 표현의 자유라는 건 한번 사람들이 체험하고 받아들인 후엔 좀처럼 다시 후퇴하는일이 없다.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규제를 하려는 쪽

과 이를 거부하고자 하는 쪽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의 진짜 원인은 다름 아닌 속도에 있다. 한쪽은 좀 더빠른 속도로 영토를 넓히고 싶어 하고 다른 한쪽은 어떻게든 속도를 늦추려고 한다. 요컨대 외설과 금기, 혹은 19세 이하 관람가라는 딱지에 객관적인 근거라는 건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일종에 환상에 불과하다. 결국 사회통념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에 기댈 수밖에 없는 만큼 논란은 필수불가결하다. 아니어쩌면 논란이야말로 창작의 증거들이다.

영화는 기본적으로 금기를 넘고 규율에 저항 하고자 욕망이 있다. 대부분의 예술이나 창작 활동 의 에너지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좋다. 당대 에 논란을 일으킨 영화들은 작품의 기계적 완성도 와는 별개로 시대에 균열을 내는 에너지를 품고 있 다. 1996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사전심의가 위헌이라 는 판결이 나온 뒤에도 영화를 검열하려는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등급보류라는 문턱을 만들어 실질적 으로 영화 상영을 막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첫 타자 는 1999년 김유민 감독의 〈노랑머리〉였다. 두 번의 삭제를 거친 다음에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 을 수 있었던 〈노랑머리〉의 경우 등급보류라는 딱지 가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흥행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장선우 감독의 〈거짓말〉(2000)의 경우 표현 수위는 둘째치고 원조교제를 소재로 했다는 이유로 두 번째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영화가 됐다. 〈거짓말〉 역시 세 번의 수정 작업을 거친 후에야 극 장에 걸릴 수 있었는데, 이후 원조교제 등을 소재로 한 드라마와 영화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온 걸 보면 단단한 벽에 쐐기를 박고 균열을 내는 역할을 한셈이라볼수있다

〈거짓말〉을 둘러싼 논란은 위헌소송까지 이어져 결국 등급보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창과 방패의 대결은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다. 관료 집단은 2002년 영화진흥법을 개정해 제한상영등급을 만들어낸다. 제한상영관이 없는 와중에 만들어진 제한상영등급은 결국 상영금지나 다름없으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면피용 분류라고 할 수 있다. 70대 노인들의 성과 사랑을솔직하게 그린 박진표 감독의 〈죽어도 좋아〉(2002)가 그 표적이 되었는데, 최근에 성교육센터나 노인복지기관 등에서 이 영화를 교육용으로 자주 활용한다는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왠지 쓴웃음이 난다. 모든 작품이 그렇진 않겠지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영화적 영토를 넓히고 예술적 가치를 증명했다는 척도가 되는 걸지도 모르겠다.

다행히 2000년대 중반 이후엔 성적 표현을 금기

시 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완화되었다. 사회문화적으 로 복잡다단한 변화가 있었던 덕분이겠지만 앞선 영 화들이 제도와 충돌하고 끊임없이 균열을 낸 덕분이 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예술적인 표현의 일 환으로 녹아든 표현수위의 경우 파격적이라 할 수 있 는 표현수위도 과감히 받아들이는 경우를 종종 발견 한다. 가령 파울로 소렌티노 감독의 〈유스〉(2015)의 경우 전라노출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하지만 국내에 서 15세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인생의 황혼에 접어 든 노인들이 요양을 하는 스위스의 고급 호텔을 배 경으로 한 〈유스〉는 늙어가는 것에 대한 쓸쓸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담아낸 영화다 젊은 여성의 나신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고 경탄하는 배우 마이클 케인 과 하비 케이틀의 애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은 영화의 영토와 우리 사회의 식견이 넓어 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흥행을 생각할 때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은 일종 의 장벽과도 같았다. 가급적 많은 관객이 접할 수 있 어야 산술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히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영화 도 적지 않다. 작품의 의도와 창작자의 비전을 정확 히 구현하는 것을 우선시한 영화들은 높은 완성도 로 관객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민규동 감독의 〈간신〉(2015)의 경우 개봉 직후엔 선정성에 관한 크고 작은 구설이 있었다. 하지만 관객들도 그 것이 단순한 외설인지 영화의 서사적 필요에 따른 노 출이었는지 정도는 구별할 수 있다. 동성애적 코드가 담긴 〈아가씨〉(2016)도 비슷하다. 예전 같으면 동성 애적 소재가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겠지만 지금은 다르다. 박찬욱 감독 역시 〈아카 씨〉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맞서 싸우는 퀴어영 화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분명 〈아가씨 〉에는 파격이라 해도 좋을 동성애 장면들이 솔직하 고 아름답게 녹아 있다. 그런 〈아가씨〉가 단지 동성애 영화로 소비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소재 자체가 주 목의 대상이 되던 시대를 거쳐왔기에 가능했던 접근 이다. 박찬욱 감독 역시 "이런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 었던 것은 그동안 동성애 문제를 전투적으로 다루고 차별에 맞서 싸운 노력들이 있어서다"라고 밝혔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속도의 문제다. 금기는 지금이 순간에도 깨어지고 영화의 영토는 지금도 넓어지고 있다. 중요한 건 인간의 나체를 찍느냐 안 찍느냐, 음모가 나오냐 안 나오냐 하는 기계적인 판단이 아니다. 어떻게 규제하고 막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에 왜 찍고, 어떻게 묘사하여,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편이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 **SUPERCOLOR**

코카 콜라부터 슈프림까지, 짜릿한 흥분이자 통쾌한 반란으로서 빨강은 다른 색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BY **박은성** 

지난 11월 미국의 브랜드 컨설팅 기업 인터 브랜드가 '2017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리스트를 발표했다. 1위부터 100위까지. 그들이 발표한 리스트엔 100개의 브랜드 로고가 빼곡하다. 절반 이상의 로고가 빨강 혹은 파랑 빛을 띤다. 빨강과 파랑만 두고 비교하면 파랑이 우위다. 은행이나 보험사등 금융권 기업을 제외하면 빨강이 우위다. 소비재에선 단연 빨강을 주색으로 한 로고가 독보적이다. 혼다, H&M, 버드와이저, 켈로그, 캐논, 3M, 그렇다고한 브랜드의 융성과 쇠퇴를 색깔론으로 얘기할 생각은 없다. 사실 시대적 흐름에서 놓고 보면 색깔론은 오히려 쇠퇴하는 분위기다. 지금은 그야말로 중립과탈집단의 시대다. 빨강도 파랑도 아닌, 제3지대에 운신하며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개인'에게 색은 우선이 아닌 차선으로 자리한다.

그런 개인을 상대로 미래의 산업을 모색하는 세계적 IT 기업과 스타트업들의 행보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에어비앤비와 우버, 인스타그램. 이들은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색의 스펙트럼 전부를 활용하거나 빨간색처럼보이다가 주황색처럼보이기도 하는 중간 색을 과감하게 브랜드 컬러로 내세운다. 기존에 색으로 목소리를 높이던 기업들도 활용 범위를 축소하거나 채도를낮추는 추세다. 이들은 색이 주입하는 고정된 인상이 20세기적 산물처럼 여겨진다는 입장이다. 실제로구글의 브랜딩에 관여한 디자이너는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룰을 따르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다. 강렬한 하나의 색은 상징이자 권력, 그리고 카리스마다. 소비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스킨십을 늘리려는 브랜드들이 색에 매이지 않으러는 이유다

그렇다면 미래는 온통 무채색일까? 혹은 색으 로 범벅된 혼란일까? 올해 30년 만에 속편이 개봉 한 〈블레이드 러너 2049〉는 혼란 속에서도 브래드 의 색, 그 목소리는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예언하는 듯하다. 그중에서도 유독 코카 콜라의 레드는 두드 러진다. 디스토피아의 '한 줄기 희망'이라도 되는 것 처럼. 그리고 모호한 것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처럼, 앞서 언급한 글로벌 브랜드 리스트에서도 코 카 콜라는 여전히 상위권에 자리한다. 브랜드 가치 로 보면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뒤를 잇는 697억 달러 규모. 빨강의 저력. 코카 콜라 레드의 역 사는 구분의 필요에서 시작됐다. 1890년대 중반 병 입된 코카 콜라 제품을 보관하던 나무 박스를 빨간 색 페인트로 칠한 건 납세 관리자들이 주류 제품과 코카 콜라를 쉽게 구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후 빨강은 점차 코카 콜라의 정체성을 잠식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타클로스와 북극곰이 등장한 광고 를 선보인 이래 코카 콜라는 빨강과 동일시됐다. 소 비자들은 빨강의 자극만으로도 갈색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갈 때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직관적으로 인 식한다. 코카 콜라 브랜드 관계자 역시 "레드는 코카 콜라의 짜릿함을 표현한다"라고 대변하고 있다.

코카 콜라만큼은 아니지만 색과 브랜드의 경험 을 동일시하는 경지에 오르려는 또 하나의 빨강이 있 다. 바로 밀레니엄을 코앞에 둔 1997년 시작한 동영 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의 빨강이다. 사업 초 기 그들은 동영상이 아닌 우편으로 실물의 DVD를 고객에게 대여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DVD는 선 명한 빨간색 종이봉투에 담겨 미국 전역의 우체통으 로 배달됐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인들에게 넷플릭 스의 빨간 봉투는 무료한 삶을 깨우는 신호이자 각 성으로 통했다. 코카 콜라 병의 뚜껑을 따는 순간 살 아 있는 탄산의 짜릿함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들은 넷플릭스의 빨간 봉투를 뜯었다. 온라인 동영상 서 비스로 전환한 이후에도 넷플릭스의 빨강은 여전한 힘을 발휘 중이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제작물이 화 면 위에 재생되는 순간 서서히 드러나는 그들의 붉은 로고는 미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 신드롬처럼 확산 되고 있다. 코카 콜라의 빨강과 넷플릭스의 빨강이 겹치는 건 바로 이 지점 때문이다. 미국이 제공하고 전 세계가 소비하는 미국식 엔터테인먼트 코카 콜라 의 상징성은 이미 식음료 브랜드를 뛰어넘어 유희의 영역에 다다른 지 오래며, 넷플릭스는 기업이 운용할 수 있는 기술과 자본, 아이디어를 총동원해 엔터테 인먼트의 최전선에서 분투 중이다. 둘의 빨강은 제왕 적 엔터테인먼트의 표식인 셈이다.

더 많은 대중을 즐겁게 하는 엔터테인먼트로 빨 강은 유용했다. 그리고 적확한 표현이었다. 그런 빨 강의 기세에 모두 함락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런데 한편에는 그 기세에 항거하는 빨강이 있다. 매스미디어와 공산품의 복제를 경계하며 그들을 조 롱하는 방식으로 빨강을 사용하는 것이다. 대표 주 자가 바로 스트리트 브랜드 슈프림이다. 1994년 뉴 욕에서 제임스 제비아가 탄생시킨 슈프림의 빨강 로 고는 그들을 추종하는 많은 마니아를 선동시킨다. 대중의 흥미에 맞추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브랜드에 대중의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이 요동쳤다. 빨간색 박스 안에 흰 텍스트로 표현되 바바라 크루 거의 작품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의 형식과 스타일을 그대로 차용한 슈프림의 의도가 전혀 무색 하지 않을 만큼, 옷과 모자 등의 액세서리는 물론이 고 거리에 널린 벽돌이나 재떨이에 빨강 로고만 붙여 도 그 가치는 천정부지로 뛰다. 그래서 이들의 빨강 은 아이러니하다. 슈프림의 뜻은 '최고의'다. 최고엔 맹목이 따르는 게 당연한 귀결이다. 사람들은 L.A와 파리, 런던에 자리한 그들의 매장 앞에서 연신 슈프 림의 빨강 로고를 카메라에 담는다. 슈프림의 빨간 영혼이 자신에게 깃들기를 바라는 것처럼.

세상의 모호함에 붉은 깃발을 드는 건 '젊은 피' 로 대변되는 스트리트 패션뿐만이 아니다. 개인이 곧 미디어라는 다소 무책임한 프레임에 항거해 종이와 인쇄라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매체들 이 그렇다. 〈타임〉이나 〈뉴스위크〉, 영국의 〈이코노 미스트〉는 빨간색 프레임으로 시대의 무기력함과 무 지함에 경종을 울려왔다. 베를린에서 태어난 종합예 술 잡지 〈032c〉의 빨강도 크게는 같은 맥락이다. 다 른 점이 있다면 이들은 슈프림처럼 빨강이 가지고 있 는 초감각적 요소를 비주류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다는 것이다. 팬톤의 레드 계열 컬러 기호 중 하나인 '032c'를 이름으로 붙이고, 잡지 커버엔 늘 빨간 프레 임을 두른다. 창간호 표지엔 어떤 사진도, 메시지도 없이. 팬톤의 컬러 칩을 닮은 빨간색 사각형으로만 채웠다. 창립자 중 한 명인 외르크 코흐는 이를 두고 "보통의 상업적 잡지가 시작하는 방식은 아니죠"라 고 말한다. 빨강을 있는 그대로의 빨강이라 부르며 빨강을 상징 그 이상으로 전복시킨 이들의 실험에 많 은 디자이너와 사진가, 예술가들이 줄을 서서 동참 해왔다. 블랙과 화이트로 대변되는 헬무트 랭의 광 고마저 빨간색으로 뒤덮였을 정도니까, 엔터테인먼 트와 소비, 자본주의와 힘으로 상징되는 빨강과 빨 강 스스로를 뒤집고 빨강을 선동하는 빨강, 파랑과 노랑과 초록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❸

박은성은 한 달에 하나의 균형 잡힌 브랜드를 다루는 매거진 (B)의 편집장이다.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엮는 일이라면 경계를 두지 않고 뭐든 시도해볼 작정이다.



41-44

# PHOTOGRAPHER KIM JANDEE

### 우리들의 빨간 책

라디오 피디, 팟캐스트 〈씨네타운 나인틴〉의 진행자, 그리고 〈빨간 책〉의 저자 이재익, 이승훈, 김훈종을 만났다. 이들과 이른 아침부터 불온서적, 19금, 빨간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EDITOR KANG YESOL

PLAYBOY: 〈빨간 책〉을 포함한 책 세 권의 공동 저자이자 5년 동안 팟캐스트 〈씨 네타운 나인틴〉을 함께 이끌어온 세 분의 관계는 어 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재익: 15년 넘게 같은 회사의 같은 부서에서 매일같이 방송을 만드는 동료이자 친구죠. 그리고 책을 통해 좀 더 끈끈한 사이가 되었고요. 우리는 굵기가 다른 여러 개의 실로 묶여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PLAYBOY: 이 책을 검색하면 '지금의 나를 만들 어준 불온서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와요. 사실 〈빨 간 책〉에는 정부가 지정한 '불온서적'과 아닌 것이 뒤 섞여 있는데 말이에요

이재익: 마케팅이겠죠. 뭔가 야해 보이고, 불온해 보이고, 삐딱한 지점을 파고 싶었던 거죠

김훈종: 이 책은 〈플레이보이〉가 받는 오해의 지점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플레이보이〉를 두고 도색잡지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헤밍웨이같은 대작가의 글이 실려 있는 양면이 공존하는 잡지잖아요. 알고 보면 우리의 자양분이 됐던 책에 대한 얘기거든요.

PLAYBOY: 〈빨간 책〉에 소개된 31권의 책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데에 가장 큰 자극제 혹은 자양분이 된 책하나를 소개한다면요?

이재익: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플레이보이〉를 언급해야만 해요. 어릴 때는 워낙 성적으로 예민하고 상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서도 자위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친구가 있으면 더 좋았어요. 지금이야 스마트폰이겠지만, 그때는 책이 었어요. 보통은〈허슬러〉아니면〈플레이보이〉였죠. 그렇지만〈허슬러〉보다〈플레이보이〉와 함께 즐기고 나면 내가 실제보다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 이 들곤 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더 발전시켜준 책이〈채털리 부인의 사랑〉이에요. 주인공인 코니라 는 여자가 별장지기랑 나누는 첫 번째 정사 신은 그 묘시가 너무 섹시하고 아름다워서 외울 정도로 읽었어요. 그때 예술과 외설의 오묘한 경계를 깨우친 것같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이 책을 통해에로티시즘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된 거죠

PLAYBOY: 처음으로 접했던 충격적인 '빨간 책' 은 무엇인가요? 비디오일 수도 있고요.

이재익: 제일 처음 봤던 건 친구가 세운상가에서 구해다준 도색 잡지예요. 그 다음 단계는 포르노 테이프인데, 〈타부(Taboo)〉라는 제목의 굉장히 유명한게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X'까테이프예요. 고등학생 남녀가 섹스를 하는 걸 녹음한카세트테이프인데, 그게 저한테는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잡지나 영화는 다 연출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정말 날것이었던 거예요. 지금으로치면 몰래카메라인 셈이죠.

이승훈: 다른 의미에서 빨간 책이라고 느낀 건 이문열 작가의 〈사람의 아들〉이에요. 종교에 의문을 품게 된 계기가 된 책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왜?'를 가르치는 법이 없어요. 신앙 역시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믿는 것이고, 그게 좋은 것처럼 배웠어요. 그런데이 책에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다 맞는 거예요. 구약의 야훼는 원수를 무찌르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래요. 그런데 둘이 같은 존재인 거죠. 맹신으로 채워져 있던 그 엄청난 간극을 이 책이 처음으로 인지시켜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맞는 말인데 괜찮은가?' 좀 위험한 책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PLAYBOY: 왜 급진적이거나 야한 책을 '빨간 책'이라고 불렀을까요?

이승훈: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산주의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레드 콤플렉스, 그리고 또 하나는 피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해요. 피가 나온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결국빨간 색이라는 게 위험한 상태를 의미할 수밖에 없는 건조

이재익: 저는 홍등이라는 단어를 꺼내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색을 봤을 때 그 색이 끌고 오는 이미지와 관념과 이데올로기가 있단 말이죠. 빨간색이 가지는 속성 중에는 젊고 열정적인 속성도 있지만 섹스와 관련된 속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국 공통으로 홍등가라는 말을 쓰잖아요.

김훈종: 그럼 왜 홍등가라는 말이 생겼을까? 황등이나 녹등이 아니고? 그런 걸 생각하면 빨간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 하나에 생명도 있지 않을까 해요. 그게 곧 섹스하고도 연결성이 있고요. 이승훈: 그게 피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지. 생명의 탄 생부터 죽음까지.

PLAYBOY: 만약 지금도 빨간 딱지를 붙이는 불 온서적이 있다면, 어떤 책이 불온서적이 되었을까요? 이승훈: 불온서적이 뭔지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체 제 혹은 나에게 위협이 되는 게 불온서적이에요. 그 런 의미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불 온서적이라는 건 결국 독재를 찬양하는 거겠죠. 시 대마다 개인마다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게 달라서 불 온서적이라는 건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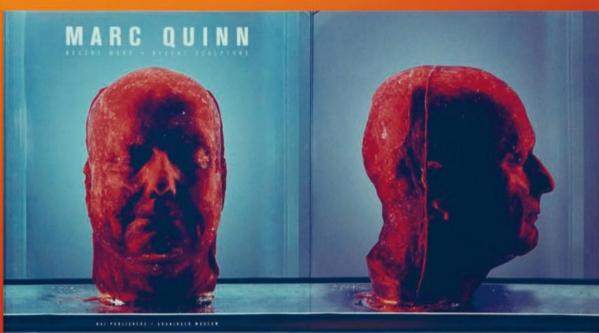
이재의: 일단 〈빨간 책〉은 그 정도 수위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성적으로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손쉽게 쾌락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경계하는 게 있다면 우리의 관념과 싸우는 문제겠죠. 항상 인간의 관념이 물적 토대를 못 따라가거든요. 언젠간 변하겠죠. 하지만 그 변하는 속도가 항상 물적 토대보다 늦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9금이라는 건 섹스보다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남은 금기의 영역은 정치겠죠. 이 시대에 검열이 있다면 성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주진우 기자는 아마 책을 내지도 못했을 걸요? 암살당했을 테니까요.

PLAYBOY: "우리는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잘못 배운다." 〈빨간 책〉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한 문장이에요. 세 분이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나요?

이재익: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말이 완전한 오역이거든요, 사실 이건 의술에서 나온 말이에요. 시대를 고려해볼 때 "외과적인 수술법에 아직 배우고 발전시켜야 할 게 많으니, 난 얼마 못 살겠구나"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글을 읽는다는 건 잘 읽어야지 잘못 읽으면 안에 담긴 저자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상해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저희 책이나 방송을 롤모델처럼 받아들이는 건 위험해요. 끄덕거리는 수준에서 멈췄으면 좋겠어요.

이승훈: 제가 제목을 보고 기접했던 게, 〈불광불급: 미치려면 미쳐라〉라는 책이에요. '이런 책이 유행을 하다니 미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말이 적당주의예요. 적당하다는 말이 '대강' 한다, 건성으로 한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사실 적당하다는 건 '알맞다'는 말이거든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우리나라는 무조건 미쳐야 좋은 것처럼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책도 적당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재익: 너 요즘 그 말 밀고 있더라? 적당히 해. ❸







#### 지누박(Zinoo Park)

지누박은 사람들이 쉽게 지나쳤던 물건이나 생각을 흥미로운 작품으로 구현해내는 디자이너 겸 아티스트다. 빨간색부터 초록색, 보라색, 노란색 등 쉽게 손대지 못했던 색도 그의 필터를 거치면 생경하지만 매력적인 작품으로 탄생한다.

스파게티 상들리에 2005년에 나온 저의 대표작이에요. 빨간 전선을 상들리에 골조에 토마토 스파게티처럼 늘어놓은 형태인데, 청계천에서 우연히 공사장에서 쓰는 작업등의 전선을 구해 잘라 쓰면서 시작한 작품이에요. 사실 요즘에는 디자인에 빨간색을 많이 쓰지만. 그때만 해도 작업에서 빨간색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그저 전선의 빨간색이 예쁜데 왜 공사장에서만 쓰는 걸까 싶어서 시작한 것뿐이에요.

NO MORE ART 얼마 전에 페인팅 작품으로 전시를 했어요. 미대를 가보면 일 년에 한 번씩 작업실 정리를 하거나 졸업할 때 학생들이 버리고 가는 작품이 많은데, 그걸 가져와서 위에 텍스트를 쓰고 'No More Art'라는 이름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 학생들에게는 예술로서 가치가 없어 갤러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려진 작품을 다시 재작업을 통해 갤러리로 끌고 들어간 거죠. 이처럼 요즘 사람들이 버린 것들. 그리고 버렸을 때의 감정 등에 관심이 많아요. 일종의 희한한 컬래버레이션인 거죠. 버린 사람이 저와 의도를 같이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걸 다시 살려내려면 원래 주인의 심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협업이라고 생각해요.

충돌 디자인을 할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 '충돌'이에요. 여기 있지 않아야 하는데 있는 것, 둘 다 친근한데 같이 있으면 생경한 것들이요. 사실 예술작품에 빠져 사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국내 주거 환경에 예술품이 어울리기가 쉽지 않아요. 어쨌거나 잘 안 맞는 건데, 저는 그 충돌이 생기는 지점을 즐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색하다'는 말 자체가 시작점인 거죠. 낯선 것들에서 오는 아름다움, 신선함은 생각보다 꽤 재미있거든요.

빛이 더해진 빨강 빨간색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쓰기 힘든 색 중에 하나예요. 이건 인식의 문제보다 염료의 문제가 더 커요.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빨간 염료가 안 나오거든요. 순수하게 디자이너 입장에서 빨간색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항상 빛이 필요해요. 빛이 없으면 굉장히 색이 탁해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탁한 빨강이 많아요. 그게 아쉬운 거죠. 완벽하게 빛을 받은 빨간색은 생동감이 넘치고 에너제틱하거든요. 그런 색이 필요해요.



#### 최중낙

꽉 찬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텅 빈 것 같지만 가득 차 있다. 아티스트 최중낙은 그렇게 우주를 만난다.

**우주의 태양** 처음부터 그림을 그렸던 건 아니에요. 20년째 도를 공부하고 있는데, 말이나 글로는 표현이 충분하지 않아 그리기 시작했죠. 지난 5년 동안 빨간색과 노란색으로만 작업을 했어요. 왜 빨강이냐고요? 우주가 담겨 있으니까요. 타오르는 태양의 불꽃을 빨간색과 노란색으로만 표현한 거예요. 마음이 짙어지면 빨강이 되고, 연해지면 노랑이 되는 거죠. **빨강** 지금은 흑백으로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빨갛게 타는 태양에도 흑점이 있잖아요. 오랜 시간 빨간색을 썼으니 그걸 중화시키려면 검은색과 백광을 표현하는 흰색을 써야만 해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제 그림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림 속 빨강, 노랑, 검정, 하양은 모두 태양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색이에요. 저는 그저 색을 이용해 태양을 표현할 뿐이죠. 본능적으로 의무적으로 작업을 하지도 않고, 많이 쏟아내지도 않아요. 하고 싶을 때만 해요. 이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저 저절로 가는 거예요. 예술은 관념이 아니잖아요. 본능이에요. 마음이 가고, 손이 가는 대로 하다 보면 언젠간 되게 되어 있어요. **안은미** 안무가 안은미 선생님과는 뭔가 통하는 구석이 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서로 범상치 않음을 감지했고,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는 중이에요. 지난여름에 부암동에서 〈하늘본풀이〉라는 전시를 했는데, 그때 선생님과 안은미컴퍼니의 안무가들이 오프닝 퍼포먼스를 맡아줬어요. 내년 봄에는 다시 선생님과 지금 작업 중인 작품들로 협업을 할 예정이에요. 꽤 기대하고 있어요. 관념 제 그림이 부적 같아 보여요? 그것도 관념이에요. 인간에게 이로운 모든 것은 다 부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피카소의 그림도 일종의 부적처럼 보이지 않나요?

무엇이든 관념을 갖고 바라보는 태도는 버리는

게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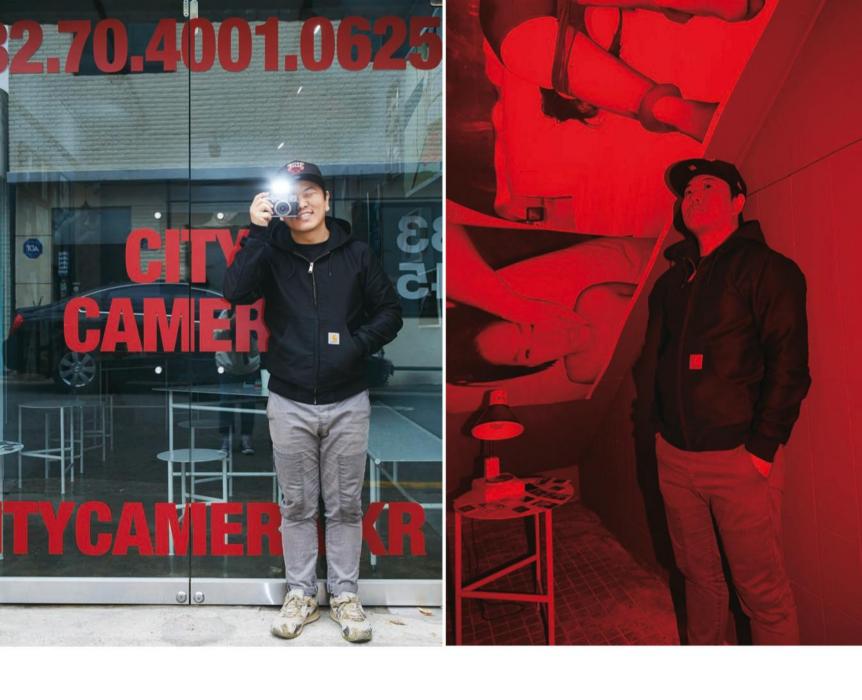
영화 〈로마의 휴일〉과 〈나를 책임져. 알피〉를 보고 베스파라는 브랜드에 빠졌다. 지금은 무려 7대의 베스파를 소유한 마니아이자 서울의 북서 권역을 담당하는 베스파 대표가 되었다.

NOT FOR EVERYONE 베스파에서 내건 올해의 슬로건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는 모두를 위한 바이크는 없다고 생각해요. 취향이 명확한 사람들 중 그 취향이 베스파와 맞닿아 있을 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마구잡이로 추천하지 않아요. 이번 슬로건을 내걸면서 오히려 베스파를 타는 사람들끼리의 연대감이 커졌다는 반응이 많아요.

946 레드 베스파는 매년 콘텐츠가 확실한 브랜드와의 컬래버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에는 패션 브랜드 아르마니와 진행했고, 그 외에 애플, 스타벅스, 코카 콜라와도 협업을 했어요. 올해 출시된 946 레드는 '프로덕트 레드'라는 에이즈 퇴치 기금을 마련하는 단체와의 현업으로 탄생한 제품이에요. 연말 기부에 중점을 두고 시작한 프로젝트로, 차량 수익금의 일부는 에이즈 퇴치와 아프리카 기아 후원에 기부할 예정이에요. 구동계 커버와 바퀴를 제외하고는 모두 새빨간 색으로 뒤덮인 이 매력적인 제품은 국내에서 28대 한정판으로 출시됐어요.

드라이브 코스 946과 잘 어울리는 드라이브 코스가 두 곳 있어요. 하나는 제주도 해안도로예요. 윈드 스크린이 있어 해안도로에서도 바람을 몸에 직접적으로 맞지 않아 피로도가 적고, 드라이브를 하는 기분은 한껏 낼 수 있거든요. 서울에서는 차 없는 시간대의 마포대교를 추천할게요. 해가 지는 6시쯤 마포에서 여의도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달리다 보면 반짝거리며 빛나는 콘래드 호텔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돼요. 짧은 순간이지만 멀리 여행을 떠나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로소(Rosso)'라고 불러요. 유독 아름다워 보이는 빨간색은 모두 이탈리아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로소 컬러'를 잘 만들어내는 나라가 이탈리아예요. 그곳에서 탄생한 브랜드 베스파 역시 마찬가지고요. 국내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 브랜드라면 이렇게 새빨간 색을 시도하는 것조차 무리였을 거예요. 색에 대한



#### 임영웅

사진가 임영웅은 남다른 시선으로 여자의 몸과 얼굴을 섹시하고 오묘하게 담아낸다. 아하지만 음란하지 않은 그의 사진은 자동카메라 시대를 조망하는 흥미로운 공간 시티카메라에서 전시 중이다.

PLASTIC LOVE 이번 전시의 제목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제목이기도 하고, 전시 공간인 시티카메라도 시티팝의 감성을 깔고 있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지었어요. 이번 전시는 오래된 데이터를 갈무리한다는 점에서 제게는 꽤 의미 있는 프로젝트예요. 보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저는 몇 년간 작업을 해오면서 스타일이 변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찍은 사진을 정리해놓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싶었는데. 이번 전시가 그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 공간이 크지 않음에도 사진이 많은 편이에요.

후지 X 시리즈 일회용카메라로 찍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후지에서 나온 X 시리즈의 첫 번째 카메라로 작업을 해요. 5~6년은 쓴 것 같아요. 살 때는 별생각 없이 가볍고 한 손에 들고 찍기 좋아서 고른 건데, 정도 들고 손에 익다 보니 지금은 망가져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카메라로 너무 많은 사진을 찍었거든요.

작업 철칙 스냅을 찍을 때는 중간중간 확인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찍는 게 좋아서 필름카메라만 사용해요. 그리고 되도록 밤시간에만 촬영을 해요. 조용하게 산책하면서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인물을 찍을 때는 작업을 방해하는 제3자 없이 진행해야 하고, 무조건일하는 스튜디오가 아닌 공간에서 찍어요. 일할 때는 제 마음이 편치 않아서 자유로운 작업이 어렵거든요. 일과 개인 작업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편이에요.

빨간에너지 빨간색 하면 아하거나 강렬하다는 이미지도 있지만, 저는 가장 먼저 에너지가 떠올라요. 아프거나 흥분을 하거나 열 받을 때 얼굴이 빨개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에너지가 분출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미묘한 감정의 변화일 수도 있고요.

빨간색 사진 색을 주제로 작업을 한 적은 없는데, 만약 '빨간색이 주어지면 해보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스타일을 모두 배제하고 완벽히 세팅된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과 배경이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요. 아니면 포트레이트를 전부 빨간 조명 아래에서 찍는 것도 생각해봤어요. 1차원적이고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설명이 많은 사진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 **빈집** BY 재건축

가난하다고 해서 비겁한 것은 아니었다. 마음은 부자였다. 나는 사랑으로 충만했고, 그녀는 75C였으니까.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으면 걱정이 사라졌다. 젊은 날의 고뇌란 하상 같은 것이었다. 실체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따위가 우울함의 근원이었다. 걱정을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점 잘 받고, 토익 학원을 다니면 된다는 것은알지만 그건 너무 귀찮지 않나? 솔직히 공부보다 여자가 좋았다. 아니 그녀가. 그녀의 포근한 몸에 파묻힌 이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않았다

젊음의 또 다른 그림자는 인화성이다. 그녀와 나는 빠르게 불타올랐다. 언제부터 사귀기로 했는지조차 서로 알지 못할 정도였다. 우리의 화기는 기억까지 태웠다. 너무 뜨거워서 열기를 감당할 수 없었던 우리는 옷을 벗거나 서로에게 몸을 비비면서 불을 끄려고 노력했다. 그러면 열이 떨어질 줄 알았나 보다. 하지만 되레 불난 집에 시너를 뿌리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연애의 화염 속에서 우리는 행복했다. 거슬리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돈이다.

경제는 언제나 인류의 문제였고, 우리에게도 다름없었다. 당시 우리는 학생회관에서 대한민국 GDP가 2만 불을 넘었다는 뉴스를 함께 보았는데, 밥값을 계산하는 내 지갑에는 2만 원도 없었다. 없는 형편에 연애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의 불은 식을 기미가 안 보였다. 불을 끄려면 모텔에 가야 하는데, 매일 모텔에 출근할 형편 은 안 됐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야 용돈 좀 아끼면 가능하지만, 우린 매일 섹스를 하지 않으면 재가 될 급박한 상태였다.

그리고 겨울밤이었다. 섹스를 못한 채 그녀를 집에 데려다주었다. 그녀의 풍만한 가슴과 넓은 엉덩이를 움켜쥐어야 하는 의무를 지녔음에도 바라만 봐야 하는 처지가 서글펐다. 가난한 남학생에게 서러움을 삼키는 건 일도 아니었지만, 그녀는 달랐다. 부조리를 참지못하는 정의의 소방관이었다. 그녀는 달려와 내손을 낚아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으로 다시 나를 끌고 갔다. 10여 분 동안 골목을 걸었다. 버스정류장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배회했다. 그러다 가로등이 없는 골목의 작은 탑차 뒤에 숨었다. 차가운 담벼락과 트럭 사이의 좁은 틈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녀는 내 재킷을 잡아당기며입을 맞췄고, 나는 혀끝으로 그녀의 입술을 벌렸다. 우리의 혀는 묶이지 않는 신발끈처럼 뒤엉켰고, 나는 그녀의 코트 안에 차가운 손을 넣었다. 그녀가 움찔거렸다.

슬쩍 눈을 뜨고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내 차가운 손이 니트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를 훑자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고, 가녀린 갈빗대를 건드리자 결국에는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이마를 맞댄 채 웃었다. 나는 입술에 묻은 침을 닦았고, 그녀는 웃음소리를 감추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여기까지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내 물건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어떻게 해?

텅 빈 방 침대에서 천장을 보며 홀로 해결해야겠지.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그녀는 나를 이끌었다. 버스정류장 쪽에는 공사 중인 건물이 보였다. 천막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4층짜리 작은 신축 빌라임을알 수 있었다. 그녀는 천막 사이의 빈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숨죽여 발걸음을 옮겼다. 건물은 골조와 벽만 세워진 상태로 창과 베란다 자리에는 거대한 구멍만 뚫려 있었다. 길 건너편에서도 한눈에 내부가 보일 정도로 큰 구멍이었다. 우리는 이웃주민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구멍을 피해 계단을 올랐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남의 집을 속살을 엿보는 기분이었으니까. 2층에는 은퇴한 집주인이 자식들과 살고, 3층에는 세 가족이 살며, 4층에는 신혼부가 입주할 빌라. 그들이 집을 비운 사이 좀도둑처럼 들어와 섹스할 자리를 찾아다닌다. 훔치려는 게 아니다. 남기려는 것이지.

재건축은 대중문화에 대한 글을 쓴다. 한번 연애하면 오래 하고, 30대 후반임에도 매일 아침 잘 선다.

공사장은 골조뿐이었지만 화장실과 안방, 거실을 구분할 수 있었다. 우리는 가구 배치를 상상하며 신혼부부처럼 행동했다. 그러고는 안방에 들어가침대가 놓일 위치에서 옷을 벗었다. 우리는 말 없이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렸다. 약속이나 한 듯 상의는 턱 밑까지 끌어 올려 꼿꼿하게 선 채 서로의 유두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치부를 보인 상태로 다시키스를 이어갔다.





그녀의 커다란 가슴과 밋밋한 음부가 내 단단한 몸에 닿았다. 우리는 맞닿은 몸을 비벼 체온을 나눴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세는 하나밖에 없었다. 그녀는 엉거주춤 뒤로 돌아 두 손으 로 벽을 짚었다. 그리고 상체를 숙여 자신의 둥글고 하얀 엉덩이를 크게 부풀렸다. 나는 그녀의 엉덩이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는 귀두 끝으로 그녀의 구멍을 찾아 음부를 문질렀다. 축축한 그녀에게 물 건을 넣자 창문도 없는 안방에 온기가 감돌았다.

이곳은 아직 집이라고 부를 수 없다. 우리는 비겁한 짓을 하는 게 아니다. 단지 가난할 뿐이다. 침묵의 피스톤질을 하며 생각했다. 그녀 또한 소리 내지 않으려 참고 견뎠지만 폭발하는 불길을 따라 신음이 입 밖으로 터져 나왔다. 살과 살이 부딪치는 소리, 척척한 물질 소리 그리고 그녀가 내뱉는 거친 숨소리가 빈집에 메아리쳤다. 그 순간 창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의 크고 둥근 엉덩이가 하얗게 빛났다. ❸

#### 하드코어 로맨스의 시작

BY **현정** 

엄지와 검지, 단 두 손가락만을 사용했을 뿐이었다. 남자가나의 유두를 살짝 잡고 비틀었을 때 지금까지 섹스를 하며내 몸에 맞게 남자들을 교정하는 데 소모한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기도 했고 나름의 의미도 있었지만지금 이 순간을 지속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모두 지워야 한다면 망설이지 않고 삭제 버튼을 누를 것이다. '좀 더 세게', '아니 그건 너무아프잖아' 같은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남자의 손가락은 언제 부드러워야 하는지, 어떤 순간 힘을 줘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나를 만지는 강도가 잘 조절되는 것만으로도 이토록 황홀해질 수 있다니 만족스러움에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16세기 화가 브론치노가 그런 '미와 사랑의 알레고리'를 보았을 때 비너스와 큐피드의 나체. 그 자체에 직관적으로 본능이 반응했

다. 불편해 보일 정도로 뒤틀린 상태로 서로를 포용하고 있는 둘의 자세는 기묘하게 음탕했다. 비너스의 가슴과 머리를 감싸고있는 큐피드의 양손 끝은 그것이 내 몸에 닿았다고 상상하기만 해도 짜릿해질 만큼 공감각적으로에로택했다. 남자가 내 몸을만질 때 큐피드의 손이 실체화된 것 같았다. 큐피드가 검지와 중지 사이에 비너스의 유두를 끼운 채가 숨을 애무하는 장면이 그

대로 재현되자 60조나 된다는 몸속의 세포가 모조리 새롭게 각성한 것 같았다. 정신이 몸에 붙어 있을 수 없을 만큼 나를 녹신녹신하게 만든 남자는 머리를 쓰다듬던 손으로 볼을 감싸고 내려와 내 턱에서 움직임을 멈추더니 검지를 이용해 턱을 들어올렸다. 남자와 시선이 마주치자 "내 강아지, 말을 잘 들어야지?"라고 말했다. 똑바로 쳐다본 남자의 눈은 야하다는 표현 말고는 떠오르지 않았고 어떤 거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위엄 같은 게 어려 있었다.

그렇다 한들 평소대로라면 그 말에 "응? 뭐라고? 강아지?" 같은 반발심이 나의 눈빛과 굳은 표정에서 드러났을 것이다. 지배와 복종으로 구성된 섹스에 거부감이 있어서는 아니었다. 오히려 호기심이 발동되는 영역이었다. 그러나 남성이 관계를 지배하는 플레이에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여자를 발정 난 암캐 취급하며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여기면서 그것이 BSDM(결박, 구속, 지배, 복종, 사디즘, 마조히즘을 뜻하는 약어) 플레이라고 여기는

남자는 결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스스로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걸 감추기 위해 여자 앞에서 오만해지는 남자들은 너무나 위험했다. 특히 성 엄숙주의와 잘못된 성교육, 성의식이 미묘하게 뒤틀려 있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지배하고 통제하는 섹스는 여성에게 해볼 만한 좋은 경험이 되기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이 남자의 시도는 의외의 면모를 드러낸 것이었다. 전형 적이지도 않았다. 이런 플레이를 콘셉트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슈트 를 잘 갖춰 입은 남자와 벗은 혹은 관능적인 란제리 차림의 여자가 등장한다. 경제적인 성공이나 부유함이 마치 여성을 지배할 수 있는 조건처럼 그려지고 젊고 아름다운 여성은 돈에 굴복해서 기꺼이 성 적 대상화가 된다는 인상을 준다. 남자는 나보다 여덟 살이나 어렸 다. 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 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내게 신경 질적인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다. 데이트를 하는 내내 혹여나 어린 자 신이 미흡해서 내게 실수라도 할까 봐 조심스럽다 못해 조심했다. 상 대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서 기분 상하게 만들진 않을까 결정이 필요 한 일은 언제나 상의를 했다. 예쁜 말을 골라서 썼고 과하지 않은 애 교로 관계에 달콤함을 첨가할 줄도 알았다. 무해해 보이는 얼굴은 상냥했다. 그런 모든 태도에서 자신의 남성성이 혹시나 훼손될까 봐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런 기질을 바탕으 로 한 가학적이고 지배적인 욕구라면 안전하게 느껴졌다.

남자는 내가 거절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었다. 자신의 욕구를 이기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었다. 거절 당할 수도 있지만 나라서 자신의 그런 욕구를 드러내 보여도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도해본 것이었다. 내 직관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남자에게 휩쓸려도 좋을 것 같았다.

두 손은 주먹을 쥐어 강아지의 앞발처럼 만든 뒤 주인의 관심을 간절히 바라며 강아지처럼 낑낑거렸다. 내가 동의를 표하는 순간, 남자는 밀어붙였다. 뒤엉켜 있던 몸을 빼 둘 사이에 거리를 만들더니 자신에게 기어오라고 명령했다.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상대의 요구에 복종하는 것임에도 아이러니하게 자유로워진 기분이 들었다. 남자가 가지고 있는 힘은 내가 그에게 기꺼이 준 것이었다. 이 관계를 실제로 지배하는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었다. 남자와 함께라면 무엇을 하든 내가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았다. 남자에게 네 발로 기어다가가자 그는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척추를 따라 내 몸을 몇 번 쓰다듬더니 갑자기 미끈거리는 내 몸의 틈새로 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여전히 강아지처럼 엎드린 자세라는 점에서 밀려오는 부끄러운 감정과 동시에 남자의 손가락이 만들어내는 쾌감에 몸이 자연스럽게 뒤틀렸다. 강아지 자세가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남자는 다른 손으로 내 엉덩이를 찰싹 하고 때렸다. 그것은 단지 우리 둘의 시작일뿐이었다. ❤️EDITOR KANG YESOL



## 거짓말

여기 짜릿한 두 섹스 중 하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가짜 같은 진짜와 진짜 같은 가짜 사이에서 당신은 진짜 섹스를 가려낼 수 있을까? 답은 뒷장에 숨겨져 있다.





현정은 〈사랑만큼 서툴고 어려운〉, 〈자립명사:연애〉의 저자로 홍익인간의 정신을 이어나가고 있다.

## **DECEMBER SONGS**

서른한 번의 낮과 밤이 남았다. 흥분과 후회. 숙취와 다짐을 반복하며 맞이하는 12월의 노래들. EDITOR YOU JISUNG

'初雪白夜(첫눈 쌓인 밤)' 기타리스트 신대철은 송명관의 음반 속지에 이렇게 썼다. "근간의 그의 음악적 방향은 '현대음악'의 표현기법을 사용하여 동양의 정서와 자연을 표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뉴에이지'적인 뉘앙스를 주고 있다. 마치 겨울 저녁 달빛 아래에 비치는 눈 덮인 들녘을 바라보며 명상 하는 것 같은 독특한 세계를 표현하고 있었다." 1988년. 올림픽과 유로 댄스의 물결

ARTHUR RUSSELL 'THIS IS HOW WE WALK ON THE MOON' '리버브'의 잔향 효과는 때로 입김 같다. 발음으로 노래한다. 첼로를 끌어안은 아서 러셀의 가장 개인적인 순간.

THE ROLLING STONES 'WINTER' 롤링 스톤스에게도 겨울이 있었다.

UKU KUUT 'I FEEL LOVE' 우쿠 쿳은 구소련(지금은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태어났다. 일 년 내내 바람이 불고, 흐린 날이 많은 탈린은 겨울이 아니어도 매일이 겨울 같은 곳일 터. 그는 유년 시절 스웨덴을 거쳐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지만. 그의 음악에 늘 탈린의 서늘함이

배어 있는 듯한 기분은 왜일까.

14

현대(음률)

TREY SONGZ **'NEIGHBORS KNOW MY NAME'** 

속에서, 송명관이 기타와 신시사이저로 창조한 또 다른

경찰이 올 때까지만큼의 결기는 아니지만, 이웃이 내 이름을 알 때까지.

15

**BOBBI HUMPHREY 'CHICAGO, DAMN'** 

꼭 시카고 불스와 마이클 조던 때문이 아니더라도, 시카고는 캔디바 같은 차가운 하늘색과 흰색 바탕에 빨간 별을 그린 깃발을 사용하는 도시다. 그것을 한기를 품은 도시의 열기, 쯤으로 해석해보면 어떨까. '윈디 시티'란 시카고의 별명처럼, 세찬 바람 소리로 포문을 여는 곡.



160



**GIGI MASIN 'TALK TO THE SEA'** 차갑고 텅 빈 바다를 바라보며

말을 거는 일.

THE SALSOUL ORCHESTRA

'NICE N' NASTY' 섹시하다는 뜻이든, 끝내준다는 뜻이든 파티는 '내스티'하게. 살소울 오케스트라는 (Christmas Jollies)란

음반을 내기도 했지만, 관현악단의 벅찬 기운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21

디바 '12웤의 드라마'

커플링을 하고 애인을 군대에 보내고("니가 없는 나의 두 번의 겨울은 변하지 않아") 편지를 나누고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시즌 송'의 낭만과 구체적 가사가 어떤 시대풍경으로서 남아 있는 좋은 예. 가요란 응당 그런 게 아닐까.



27



SADE

**'THE SWEETEST TABOO'** "매일이 크리스마스이고 매일

밤이 새해 전야야, 날 계속 사랑해줄래?"라는 샤데이의 구애라면 속수무책 무장해제.



예지를 빼놓고 2017년을 논할

TATSURO YAMASHITA 'CHRISTMAS EVE'

일본에선 매년 이맘때면 타츠로 아마시타의 'Christmas Eve'를 들을 수 있다. 이 곡을 BGM으로 사용한, 매년 다시 봐도 가슴 뛰는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 JR 도카이 철도 광고와 함께라면 더욱 뭉클한 성탄전야. 시티팝은 여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PET SHOP BOYS

'IT DOESN'T OFTEN SNOW AT CHRISTMAS'

1997년, 깜짝 선물 같은 팬클럽 한정 싱글로 처음 나왔다. 2009년 신보 (Yes)와 함께 화려한 컴백으로 박수갈채를 독점하더니, 불쑥 크리스마스 EP를 내놓으며 정식 공개했다. 펫 숍 보이스와의 총천연색 크리스마스만으로도 더없이 행복할 텐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드물다는 그해 런던의 성탄절엔 눈이 내렸다. "빙 크로스비. 듣고 있나요?"





로맨스의 시작은 진짜

#### 6

#### XTC 'SNOWMAN'

방귀 소리 같은 드럼 킥과 '지질한' 가사. 포스트펑크와 뉴웨이브가 겨울도 오기 전에 춥다고 장난스레 엄살을 부리며 들뜨는 연말을 자축하는 방식.

#### 7

#### **BRIAN ENO & KEVIN** SHIELDS 'ONLY ONCE AWAY MY SON'

겨울엔 앰비언트. 앰비언트는 브라이언 이노. 그리고 무려 마이 블러디 발렌타인(의 케빈 실즈)

'WALKING ON THIN ICE' 존 레논이 총을 맞고 쓰러진 닐 그의 손에는 이 노래의 최종 믹스본이 들려 있었다. 12월



#### **MAXWELL ...TIL THE COPS** COME KNOCKIN'

섹스하면 떠오르는 노래는 많지만, '경찰이 문을 두드릴 때까지'라는 각오만큼은 넘어설 수 없다.



#### 11

#### **BOYS II MEN** 'IN THE STILL OF THE NIGHT'

성가대 소년 같은 목소리로 합을 맞추던, 데뷔의 설렘을 흠뻑 간직한 보이스투멘의 젊은 날.



#### 12

77

#### ANIMAL COLLECTIVE 'WINTER'S LOVE'

모닥불이나 캠프파이어와는 상관없는 방식으로 '노이즈'를 만드는 기타에 비치 보이스가 겨울에 부른 듯한 하모니. 기괴한 애니멀 컬렉티브식 낭만.



2017년 '올해의 노래'를 살펴보며 한 해를 차분히 정리하는 밤.



#### 18

#### 윤상 '새벽'

윤상이 말하는 새벽은 아직 밤의 여흥이 가시지 않은 순간이라기보다 아침을 맞이하기 직전, 그 아쉬움을 담고 있다. 어제 좀 더 잘할걸. 새벽을 깨우는 교회당 종소리 같은 전주로 시작해 번쩍 눈이 뜨이는 신시사이저 연주까지, 올해 좀 더 잘할걸.



#### **ROY AYERS UBIQUITY** 'EVERYBODY LOVES THE SUNSHINE



**LUTHER VANDROSS** 

몸이 뜨거워지는 목소리. 소리통이라는 게 정말 있다면, 루더 밴드로스의 소리통이야말로 별일 다 있던 한 해를 기꺼이 품을 만큼 커다란 게 아닐까, 막 중년에 접어든. 화려한 파티와 뜨거운 사랑 노래라면 지겹도록 해본

**'LITTLE MIRACLES(HAPPEN EVERY DAY)'** 

그가 매일을 감사하며 부른 노래.



#### **LIL LOUIS 'FRENCH** KISS'

완벽한 섹스엔 말이 필요 없다. 레이브의 기운을 품은 4분의 4박자 몽환의 하우스 드라이브.



#### THE ELECTRIC CHAIRS **'FUCK OFF!'**

내내 미웠던 사람들에게 고함. 꺼져!



#### **THE KINKS**

계절은 끝나지 않았지만, 한 해가 저무는 날, 출렁이는 연말의 흥분이 가시면 찾아오는 진짜 혹독한

'END OF THE SEASON'

날들을 맞이하는 부드러운 각오. 일단 내일이 없는 파티부터 끝내고.





#### **78**

#### **DEAN MARTIN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뭐니 뭐니 해도 구관이 명관.



#### 79

#### DAVID BOWIE 'LET'S DANCE'

한 해는 끝나도 파티는 끝나지 않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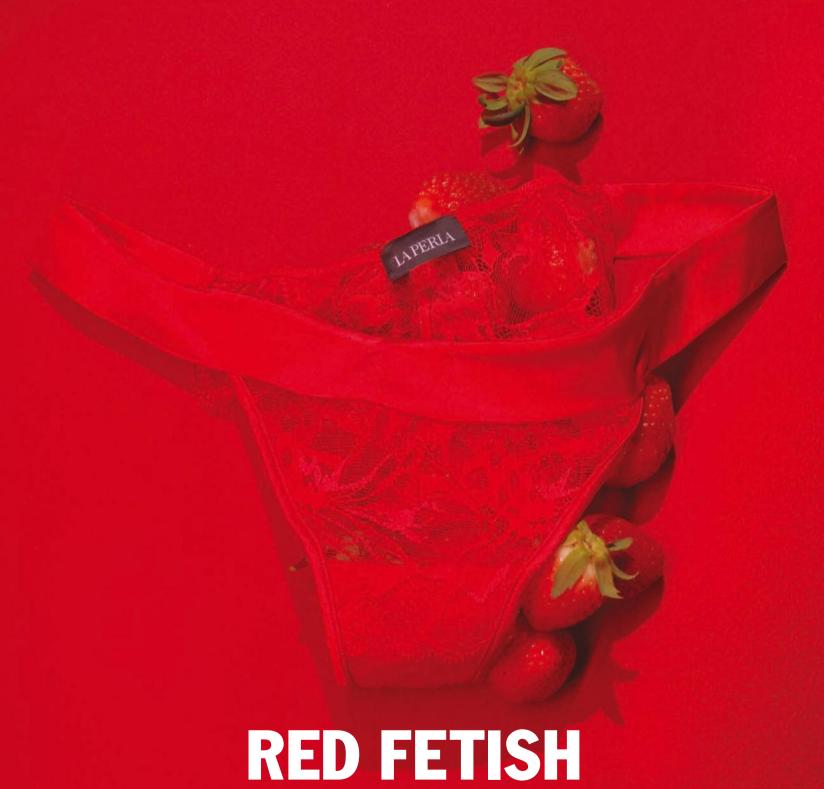


#### **ELBOW BONES AND THE** RACKETEERS 'A NIGHT IN NEW YORK'

관악기가 불<mark>을 뿜는</mark> 빅 밴드가 뉴욕과 디스코를 만났을 때. 옛날식 슈트를 멋지게 차려입는 마지막 주말.







빨강에 빨강을 더해 만든 또 다른 빨강의 세계.

GUEST EDITOR LEE SUNYOUNG PHOTOGRAPHY BY PARK JAEYONG

흐드러진 등나무의 꽃무늬를 섬세한 실크 리버 레이스로 재현한 '위스테리아 브라질리언 브리프'는 LA PERLA 제품













## Femme Fatale

한 시대를 뒤흔들고 인류의 역사를 바꾼 여인들. 팜므 파탈의 치명적인 색을 5명의 사진가가 다시 밝힌다.

EDITOR YANG BOY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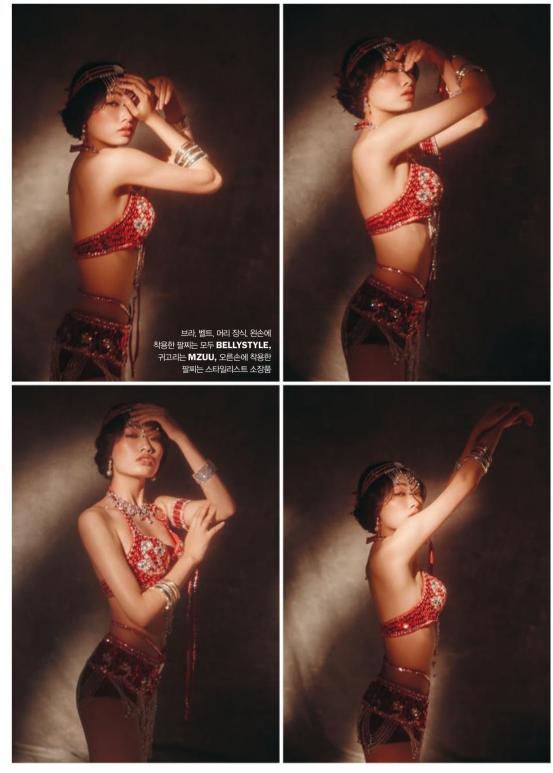


PHOTOGRAPHY BY **AN HAJIN** 

## Lou Salomé

철학자 파울 레와 니체는 종종 편지를 나눴는데, 거기엔 루 살로메를 향한 찬사가 가득했다. 파울 레는 그 편지에 살로메를 보면 영감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다고 자주 썼다. 루 살로메는 그런 여자였다.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데다 신비로워서 볼 때마다 다른 느낌을 주는 미개척지 같은 여자. 루 살로메에게 반한 당대 지성인은 평생을 바쳐 구애한 시인 릴케,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 등이 있다. "(루 살로메는) 지식인으로서, 창조적 영감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여자다." 프로이트가 남긴 애절한 한마디는 살로메를 둘러싼 세기의 스캔들을 설명하기에 제격이다. 하지만 루 살로메를 단지 남자들이 좋아한 여자로만 볼 순 없다. "남자들이 원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라.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주인, 신만이 허락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주체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평생 신앙과 철학에 대한 책 그리고 소설까지 총 16권의 책을 냈다. 그러니까, 루 살로메의 학술적 재능은 남달랐다는 얘기다. 당대 지식인들이 훔치고 싶었던 게 살로메의 마음뿐이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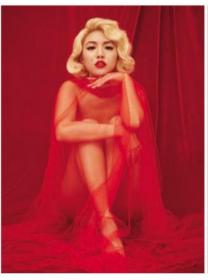
PHOTOGRAPHY BY SHIN SUNHYE

## Mata Hari

1905년, 파리의 한 클럽에서 미모의 여성이 매혹적인 춤을 추고 있었다. 동양적인 외모의 여자는 노출이 많은 옷을 입고 있었다. 천천히, 몸으로 유려한 선을 그리는 여자. 이 우아한 움직임의 춤은 벨리댄스라고 했다. 지켜보는 남자들은 움찔거렸다.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한 기쁨에 몸을 주체할 수 없던 거다. 댄서의 이름은 마타 하리. 인도네시아어로, '여명의 눈동자'. 깊고 짙은 갈색 눈을 가진 이 여자는 유럽 사교계 남성들 사이에서 단숨에 유명해진다. 이후 유럽 각계각층의 주요 인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마타 하리는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영어까지 4개 국어를 구시하며 식민지 쟁탈전이 한창이던 유럽에서 값진 정보를 캐낼 수 있는 주요 인물이 됐다. 그의 미모와 언변은 스파이로서 제격이었다. 그는 아름다웠고, 무엇이든 훔칠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었다. 10년 넘게 간첩으로 활동하다 체포된 그에게는 결국 총살형이 내려졌고, 사형대에 오른 마타 하리는 눈가리개를 거부했다. 눈을 감는 순간까지 그는 당당했고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었다.











PHOTOGRAPHY BY KWAK KIGON

## Marilyn Monroe

곱슬거리는 금발머리, 육감적인 보디라인, 깊고 농염한 눈, '섹스 심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단연 메릴린 먼로다. 그가 활동하던 1950년대 미국 영화 산업은 전례없는 호황기를 맞았고 배우를 향한 대중의 관심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먼로의 인기가 절정에 달한 건, 1955년 개봉한 〈신사는 금발을 좋이해〉 직후다.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아름다운 쇼걸 로렐라이 역을 맡은 먼로는 새침데기처럼 총총 걷다가도 누군가 말을 걸면 물기 어린 눈으로 응수했다. '예쁘다, 귀엽다'는 식의 흔한 단어로 담기엔 먼로의 매력은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이었다. 당시에도 예쁘고 섹시한 배우는 많았지만, 메릴린 먼로가 '세기의 여자'로 불리는 이유는 남성이 욕망하고, 바라고, 꿈꾸는 여성의 매력을 한데 모은 집합체 같았기 때문이다. 이후 먼로와 관련한 모든 콘텐츠는 흥행했다. 메릴린 먼로 하면 떠올리는 유명한 몇몇 사진 중 1953년 미국 〈플레이보이〉 창간호에 실린 빨간 벨벳 위의 누드 사진은 대중적으로 유독 짙은 인상을 남겼다. 카메라 앞에서 아름다운 몸을 드러낼 때, 누구에게도 유해하지 않은 멋지고 건강한 누드 사진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지금도 여전히 〈플레이보이〉가 유지하는, 카메라 앞에서 즐겁게 뛰노는 여자들을 담아내는 방식을.









## Pattie Boyd

20세기 팝 음악 역사에 선명하게 남은 전설의 삼각관계가 있다. 바로 런던 출신의 미녀 모델 패티 보이드를 놓고 에릭 클랩튼과 비틀스의 조지 해리슨이 벌인 한 판 승부가 그것이다. 1964년에 시작해 1989년에 막을 내린 세 사람의 연애사는 그야말로 영화나 다름없다. 단순한 사랑 싸움을 넘어 음악 역사에 길이 남을 명곡 'Something'(비틀스), 'Wonderful Tonight'(에릭 클랩튼) 등을 남겼으니 말이다. 당대 최고의 로커 두 사람에게 음악적 영감을 준 패티 보이드는 당시 록 음악을 좋아하던 이들 사이에서 '음악의 여신'으로 불리기도 했다. 패티 보이드는 평소에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에릭 클랩튼, 조지 해리슨과 함께하는 사적인 순간에 주로 셔터를 눌렀다. 당시 사진을 보면, 전설적인 로커의 모습보다 남자의 일상이 보이는 이유다. 두 남자는 한 여인을 사랑해 음악을 남겼고, 한 여자는 밖에선 알 수 없는 두 남자의 단면을 남겼다. "나는 특별한 삶을 살았다." 지난 4월 한국에서 열린 패티 보이드의 전시엔 이런 말이 써 있었다. 맞다. 이 세기의 러브스토리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음악으로, 사진으로.

PHOTOGRAPHY BY YOON SUKMU









PHOTOGRAPHY BY KIM HYUNSUNG

# 가면, 레더 본디지, 소매 밴드, 레더 팬티, 가터 스타킹은 모두 BUNNYROOM 제품 MODEL XOXOSOPHIA

### Madonna

알 만한 사람들은 안다. 섹스 심벌이자 세기의 팜므 파탈 혹은 요즘 말로 걸 크러시를 대표하는 마돈나가 가장 그다웠던 시기는 단연 1980년대라는 걸. 백옥처럼 하얀 피부에 커다란 라이더 재킷을 걸치고 살랑살랑 춤을 추다가도 성에 대해 도발적으로 외치던 성 혁명가, 마돈나. 화려한 팝의 여왕인 그를 둘러싼 요란한 수식어는 셀 수 없을 정도다. 새빨간 입술에 갈색머리, 섹시한 이미지와 파격적인 퍼포먼스는 당시 팝계에 수많은 '마돈나 워너비'를 낳을 정도였다. 또한 마돈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스캔들이다. 배우 숀 펜, 감독 가이 리치와 결혼했다가 이혼했고, 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맨, 장 미셸 바스키아, 프린스 등과는 연인이거나 섹스 파트너였다. 당시 마돈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이 사실에 솔직하거나 당당했다. 마치 뭐든지 고를 수 있고, 원한다면 어디든 정복할 수 있는 여왕처럼. "아빠가 말했어. '그렇게 말했건만… 왜 다른 여자 아이들처럼 될 수 없는 거니?' 난 대답했지. '그건 내가 아니니까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2015년 발표된 마돈나의 'Rebel Heart' 가사다. 지금도 변함없이 마돈나는 그 누구와도 닮을 수 없다.

STYLIST KIM YOUNGJIN HAIR ARTIST LEE YOUNGJAE MAKEUP ARTIST JANG HAEIN ASSISTANT EDITOR KIM SUNHEE, KIM YEUNYOO



## PLAYBOY LOVES:

겨울의 온도를 높이는 뜨겁게 섹시한, 12월의 〈플레이보이〉가 사랑하는 여자들.



Muta

플레이메이트 최석영의 세계는 밝고 아름답고 낭만적인 것으로 가득하다.

PHOTOGRAPHY BY **LEE JUNGHOON** 

12월의 플레이메이트 최석영. 그녀의 몸에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가는 걸 애써 막을 필요는 없다. 얼마든지 감탄해도 좋다.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는 걸 좋아해요. 가끔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냐고 물어봐요. 전 좋던데요? 잠깐 캐나다에 산 적이 있는데 그때는 남자들이 길에서 휘파람을 부는 건 기본이고, 프리 허그를 한 적도 있어요. 심지어 제 복근을 만져봐도 되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재미있었죠. 전 누가 예쁘다고 하면 마냥 좋아요. 너무 단순한가? 그런데 그게 살기 편한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의 1년여 유학 생활을 마치고 심리상담사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인 그녀가 가진 또 다른 매력은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이다. 그녀에게 상대가 하는 말의 속셈을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만큼 불필요한 일은 없다. 누가 어떤 말을 하든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다 사소한 농담에도 크게 웃는 덕에 사람들은 금세 그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친구가 된다. 다만, 그녀의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면 준비해야 할 게 하나 있다. "몸 좋은 남자가 좋아요. 영화 〈공조〉에 나오는 현빈 씨가 멋있더라고요. 솔직히 몸 좋고 키 크면 그저 좋아요."











## **CHOI SEOKYEONG**

**나이** 24세 **별자리** 물병자리 **혈액형** A형









겨울보다 여름 당연히 겨울보단 여름이 좋아요. 여름엔 옷도 위아래 달랑 두 개만 입으면 되잖아요. 여름과 겨울의 패션이 극명하게 달라요. 여름에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은 허리가 드러나는 크롭트 톱에 쇼츠를 매치하는 거고, 겨울엔 스티브 잡스처럼 터틀넥에 청바지를 입어요. 겨울에는 따뜻한 게 최고잖아요. 추운 건 정말 싫어요.

지금 빠져 있는 것 요즘 빌 에반스의 음악에 빠져 있어요. 우울할 때마다 음악을 듣는데, 최근에는 재즈만 들어요. 피아노 치는 것도 좋아하는데, 재즈 연주를 배워보고 싶어요. 빌 에반스의 음악은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해요. 가끔은 그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니까요. 오늘도 자기 전에 들을 거예요

골프 선수가 됐다면? 8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골프를 쳤어요. 사실 부모님이 시켜서 억지로 했어요. 가면 친구도 없고, 어른들이랑 같이 배우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냥 부모님이 제가 치는 모습을 좋아해서 참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취미로 종종 치는데, 오히려 더 재미있어요. 이 재미를 그때 알았으면 선수가 됐을지도 모르죠

엄마가 그랬으면 골프 선수 중에 제일 예쁜 선수가 됐을 거라고 했어요. (웃음)

당만을 위하여 한동안 캐나다 몬트리올에 살았는데, 그곳의 친절하고 낭만적인 사람들에게 반했어요, 1년 중엔 5월을 제일 좋아해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그 시간이 설레거든요, 어린이날도 있고, 꽃도 피고, 날씨도 좋고, 아름답잖아요, 언젠가 크리스마스를 호주같이 더운 나라에서 보내는 것도 제가 가진 낭만적인 꿈 중에 하나예요.

외모지상주의에서 벗어나기 우리나라 시람들은 왜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쓸까요? 제가 요즘 살이 5kg 정도 쪘더니 다들 살쪘다고 성화예요. 여드름이나면 그것 갖고 또 뭐라고 하고요. 길가는 사람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도 이상해요. 요즘 SNS에 빠져 사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산타의 선물 산타가 없다는 것쯤은 알지만, 그래도 선물은 받고 싶어요. 무엇이든 받을 수 있다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와의 하루를 달라고 할래요. 한 번도 뵌 적 없는데, 할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좋은 분이셨다고 했거든요. 궁금해요. 시골집 앞에서 만나서 주변의 산과 들을 둘러보면서 종일 수다를 떨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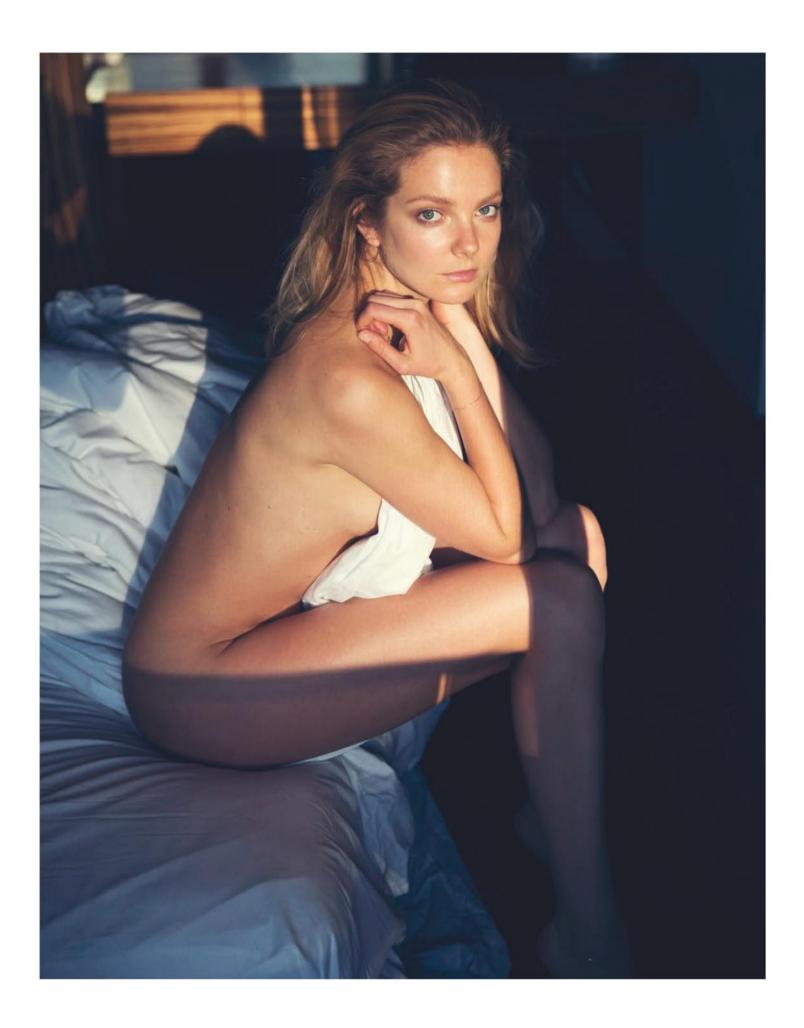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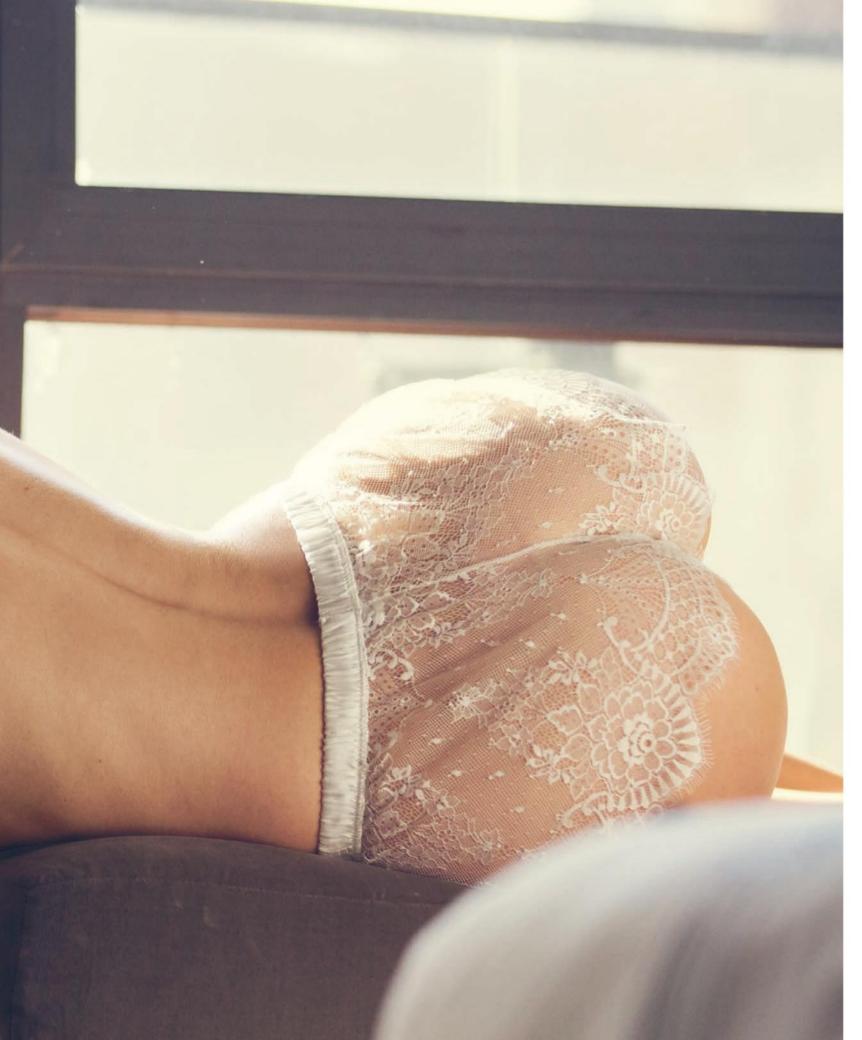












#### **ENIKO MIHALIK**

**나이** 29세 **태어난 곳** 헝가리 베케슈처버 **사는 곳** 뉴욕







@MRENIKO @ENIKOEVA

크리스마스는 고향에서 매해 크리스마스에는 헝가리로 돌아가요. 전 제 고향의 모든 걸 사랑해요. 내 손바닥 보듯 속속들이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도 친근해요. 매년 같은 사람들을 보거든요. 심지어 슈퍼마켓 계산대에 앉아 계시는 아주머니도 그대로죠. 고향의 모든 건물과 거리가 그곳에 얽힌 추억을 떠올리게 해요. 거기선 언제나 행복해요. 지루해 죽을 것 같긴 하지만요.

좌우명 언젠가 할머니께서 "절대 사내놈들 꽁무니 쫓아다니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10대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뭐가 문제인지. 그 조언에 담긴 진짜 의미를 이해하기까지 한참이 걸렸죠. 할머니가 하시고 싶었던 말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거였어요. 누군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그것에 맞춰 자신의 기준을 낮춰선 안 돼요.

**돌아온 〈스타워즈〉** 아빠하고는 부녀지간이라기보다는 거의 남매 같은 사이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20대 초반이었어요. 다섯 살 때 아빠가 〈스타워즈〉 시리즈를 처음 보여줬죠. 사실 그때는 지루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친구가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를 보자며 극장에 데려갔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빠른 전개가 매력적이었어요. 시리즈 전편을 다시 다 보고 싶어졌죠. 아빠한테 물어봐야 하나?

댄스, 댄스, 댄스 친구들하고 기끔 날을 잡아서 '댄스 나이트'라는 이름의 작당 모의를 해요. 그날 밤엔 다 같이 올드스쿨 힙합을 트는 클럽에 가죠. 술은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아요. 단화에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으로 계속 춤만 추면서 땀에 젖은 채 밤을 지새우죠.

세계시민 미국 시민권을 신청해볼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이 나이에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엔 전 지나치게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시민권을 신청한 친구도 많은데, 그런 확신이 대단하다 싶기도 해요. 하지만 전 아직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요. 언젠가 가방을 꾸려서 낯선 도시의 아파트를 임대한 다음 2년 정도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어딘가에 정착해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ASSISTANT EDITOR KIM YEUNYOO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 파리에서 날아온 미국 플레이메이트 이네스 라우. BY ANNA DEL GAIZO PHOTOGRAPHY BY DEREK KETTELA

눈 밝은 〈플레이보이〉 독자나 패션에 관심이 많은 이라면, 이네스 라우(Ines Rau)라는 이름이 그리 낯설지 않을 것이다. 유명 디자이너들의 런웨이에 오르고 이탈리아판 〈보그〉에 등장했으며 현재 발망 캠페인에 출연 중이다. 프랑스 출신 모델 이네스는 이전에도 〈플레이보이〉에 등장한 적이 있다. 그녀가 나온 미국 〈플레이보이〉 2014년 5월호의 특별 부록 〈플레이보이 A-Z〉는 그녀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라이언 맥긴리의 카메라 앞에 전라로 선 이네스는 '에볼루션(Evolution)'이라는 제목이 붙은 스프레드 기사를 장식했고, 그 기사는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남녀라는 이분법적 차원에 갇힌 사회를 꾸짖었다. 이네스에게도 그 기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저는 그 기사를 통해 제 커밍이웃을 자축했어요. 그건 커다란 기회였고, 전 그 기회를 잡았죠. 그 후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게 됐어요."

이제 이네스는 전 세계를 누비는 모델이 됐다. 요즘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진솔한 삶을 사는 것이다. "전 제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긴 세월을 살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많은 데이트를 하면서 그 사실을 거의 잊고 지내다 시피 했죠. 사실을 밝히면 남자친구를 사귀지 못할까 봐, 사람들 눈에 괴물로 비칠까 봐 겁이 났거든요. 그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야. 나는 내 본연의 모습 그대로 살아야 해.'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건 일종의 구원이에요. 젠더가 됐건 성적 취향이 됐건, 그 무엇이든지요. 나의 존재를

거부하는 이들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죠. 남에게 사랑받는 건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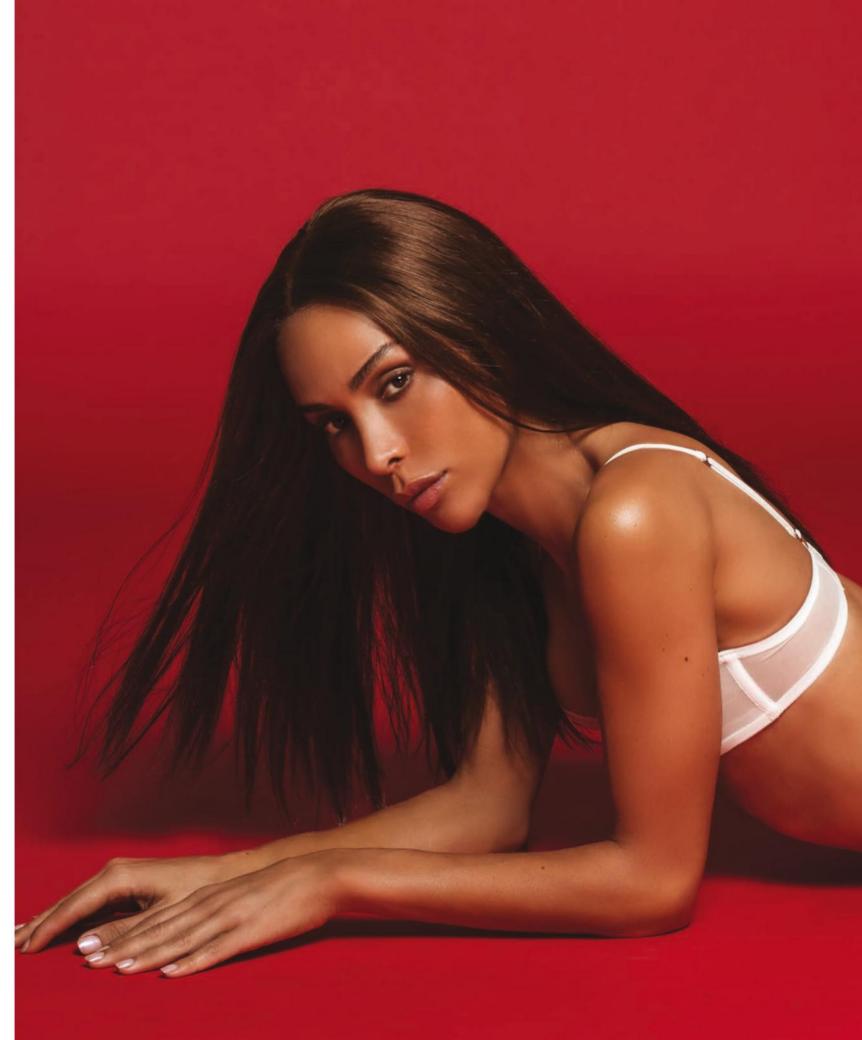
이네스를 만나면 눈길이 닿기도 전에 느껴지는 존재감이 있다. "여성이 된다는 게 항상 지극히 여성스러운 존재여이만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녀는 파리지엔 특유의 매력적인 쇳소리가 나는 목소리로 자신의 견해를 당당하게 밝혔다. "여성이 된다는 건 그냥 한 사람의 여성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조각 같은 골격과 비수처럼 날카로운 광대뼈가 주는 인상에 비해 이네스는 훨씬 자그마한 여인이다. 그렇지만 그녀에겐 다사다난한 인생을 견뎌낸 사람 특유의 침착성이 있다. "전 어릴 때 빈민가에 살면서도 근사한 운명이 절 기다리고 있다는 걸 항상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녀는 회상했다.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길이 없네요. 아무튼 제 머리속에서 누군가 계속 속삭이고 있었어요. '잘 견뎌보렴. 그러면 멋진 운명이 펼쳐지는 걸 보게 될 거야."

그 직감은 옳았다. 열여덟 살 때, 그녀는 스페인 이비사에서 유명 디제이들을 위해 춤을 추기 시작했다(그 시절 만난 데이비드 게타(David Guetta)는 그녀의 친한 친구로 남아 있다). 현재 20대 중반인 이네스는 패션계 너머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이제 막 책 출판계약서에 사인했고, 영화 촬영도 마쳤어요. 그리고 정말 액션 스타가 되고 싶어요!" 그녀가 복싱, 킥복싱, 무에타이, 종합격투기를 가리지 않는 무술광이란 걸 감안하면, 냉혈한 암살자나 타이트한 라이크라 재질의 복장을 입은 슈퍼히어로로 변신한













# INCLEAN



#### **INES RAU**

나이 26세 태어난 곳 프랑스 파리 사는 곳 뉴욕과 파리





있는 그대로 저는 남들의 평가나 거부반응이 두렵다는 이유로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길 꺼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지지해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존재가 되는 걸 거부하면서 자신과 남들의 차이점에서 힘을 얻어야 마땅해요.

이상형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예요. 전 감수성이 예민하고 진국인 남자, 또는 대단히 강인하지만 여자를 지배하려고 들지 않는 남자, 꾸밈없으면서도 세련된 방식으로 자신감을 표출할 줄 아는 남자를 좋아해요. 예의 바른 신사들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미국적인 매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예요.

프렌치 파티 걸의 팁 전 파티 걸이고, 앞으로도 늘 그럴 거예요. 제게 파티는 술에 취해 정신 나간 짓을 벌이는 그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인생을 축하하고 사람들을 사귀는 자리죠. 전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게다가 파티 참석자들이 약간 알딸딸해지면 세상만사는 더 매끄럽게 돌아가요.

음악을 끊지 말아요 딥 하우스 장르에 푹 빠졌어요. 힙합도 무척 좋아하고요. 아, 클래식과 오페라도. 영혼에 유익한 음악들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모델이라고 늘 자신감에 차 있진 않아요. 완벽하지도 않죠.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요. 살다보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이 있어요. 물론, 마음에 쏙 드는 좋은 날도 있죠. 하지만 모델은 헤어와 메이크업, 보정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요. 제가 여성들에게 하고픈 조언은 느슨해지라는 거예요. 자신을 몰아붙이지마세요. 자신을 받아들이고 완벽하지 못한 그 모습에 자긍심을 가지세요. 모두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알몸의 필요성 누드를 터부시해서는 안 돼요. 제게 누드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전 제가 원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전환기를 거친 사람이니까요. 누드는 과잉이 조금도 없는 인간의 존재를 축하하는 행위예요. 남성이건 여성이건, 중요한 건 섹슈얼리티가 아니라 인체의 아름다움이에요.

스포트라이트 아래 유명해지면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나는 많은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명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나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유명해지면 세상에 유익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나는 명성을 그런 식으로 봐요. 자존심과는 관련 없어요. 나 스스로 섹시함을 느끼는 데 명성이 필요했던 적은 결코 없어요.

알몸이 되면 세상을 속일 수가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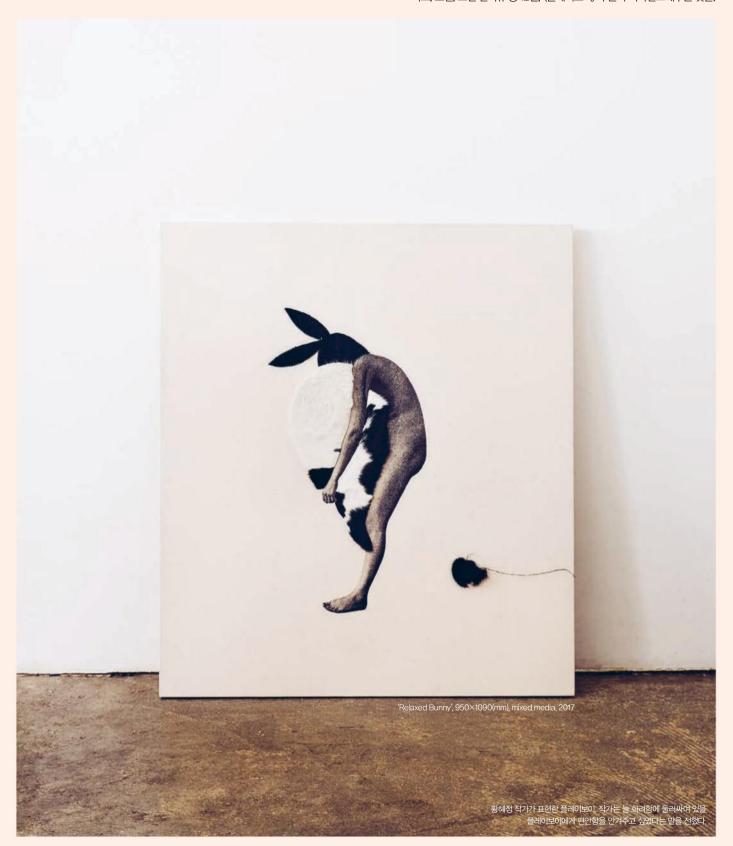
천생 여자 사람들은 트랜스젠더가 되는 건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짓이라고 말해왔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한 그 사람들은 정작 자연을 돕는 일은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성별을 바꾸고 싶어 할 경우, 그건 나 자신과 내 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나는 내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감출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죠. 사람들을 존중하니까요. ASSISTANT EDITOR KIM YEUNYOO





## PLAYBOY Reminds:

아트, 소설, 고전 인터뷰 등 12월, 〈플레이보이〉가 문득 리마인드해주는 것들.



PHOTOGAPHER KIM JANDEE

### Alter Ego HWANG HYEJUNG

작가 황혜정의 작업은 몰랐던 자신의 이면을 찾으면서 시작되었다.

내가 보고 있는 게 남자일까? 한 사람일까? 두 사람일까? 성별도 정체도 알 수 없는 나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황혜정의 작품에 쏟아지는 질문들. 작가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저만의 경계가 있어요. 누구나그렇잖아요. 여기까지만 해야 한다거나, 여자 혹은 남자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거나. 그걸 허물고 싶었어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나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경계를두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곤게 뻗은 눈썹을 반대 방향 으로 쓸어 올릴 때 손에 닿는 까 슬까슬한 감촉, 푹신한 베개에 얼 굴을 파묻었을 때 느껴지는 숨막 히는 편안함, 두툼한 옛날 솜이

불을 덮을 때 온몸을 짓누르는 육중한 안정감 등 황혜정 작가는 자신이 좋아하거나 집착하는 촉감에 관해 말을 꺼냈다. 보는 눈에 따라 이상하거나 아름다운 그의 작품은 모두 어릴 적부터 유독촉감으로 쾌감을 느끼거나 위로를 받았던 작가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작업의 시작 역시 색보다 '텍스처' 기반이다. 대비되는 촉감을 나란히 두었을 때의 이질감, 혹은 비슷한 촉감끼리 결합했을 때의 시너지를 연구해보는 식이다.

"그렇다고 만질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촉감을 눈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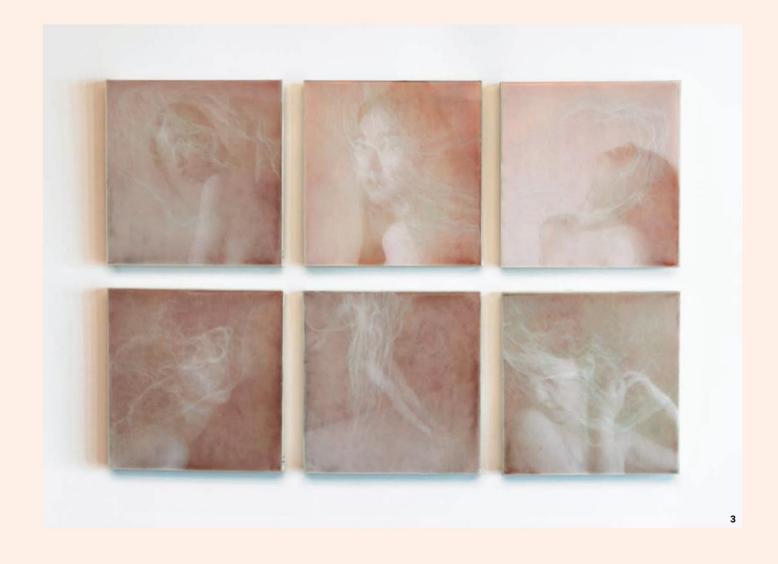
품에 등장하는 수많은 몸에는 모 두 눈이 없어요. 이상하게 들리겠 지만 사람들이 그 눈을 보고 무 언가를 알아채는 게 싫더라고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 다 아는 것도 싫고. 아무것도 모르 는 것도 싫어요. 사실 평소에도 이 런 상반된 감정이 들어요. 진짜 내 모습을 알아채는 순간, 반가 우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 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만큼은 더 솔직하고, 자연스럽고, 자유롭 게 하려고 해요. 종종 애초에 알 지 못했던 제 모습이 작업 안에 드러날 때가 있을 정도로요." 결 국 우리가 보는 건 혼돈과 혼란 을 통해 찾아낸 작가의 진짜 자 아이자 비슷한 흔들림 속에서 나 타나는 우리 자신의 이면일지도

모르겠다. 종종 드러내고 싶지 않던 감정을 표출할 때 진짜 자신을 만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작가가 〈플레이보이〉의 이면을 떠올리며 흥미로운 작품을 보내왔다. "퇴근 후의 '플레이보이'를 생각했어요. '플레이보이'를 떠올려보니 늘 화려하고 멋있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고, 항상 긴장된 모습을 유지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어딘가에 기대거나 파묻혀 편안한 감촉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작업을 하던 중에 창립자 휴 헤프너의 부고 소식을 들었던 것도 영향이 있었고요. 다 내려놓고 편안해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이제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❸















- 1 'An Escape', Mixed media, 300×150(mm), 2016
- **2** 'An Escape', Mixed media, 455×379(mm), 2016
- 3 각각 'An Escape', 209×200(mm), 2016 4 'Ambiguous Lines', 2128×1000(mm), Pencil on paper, 2017
- 5 'Ambiguous Lines', 2128×1000(mm), Pencil on paper, 2017 6 'Ambiguous Lines', 500×500(mm), Pencil on paper, 2017

황혜정 작가는 현재 카라스갤러리의 전속 작가로 활동 중이다.

### **CART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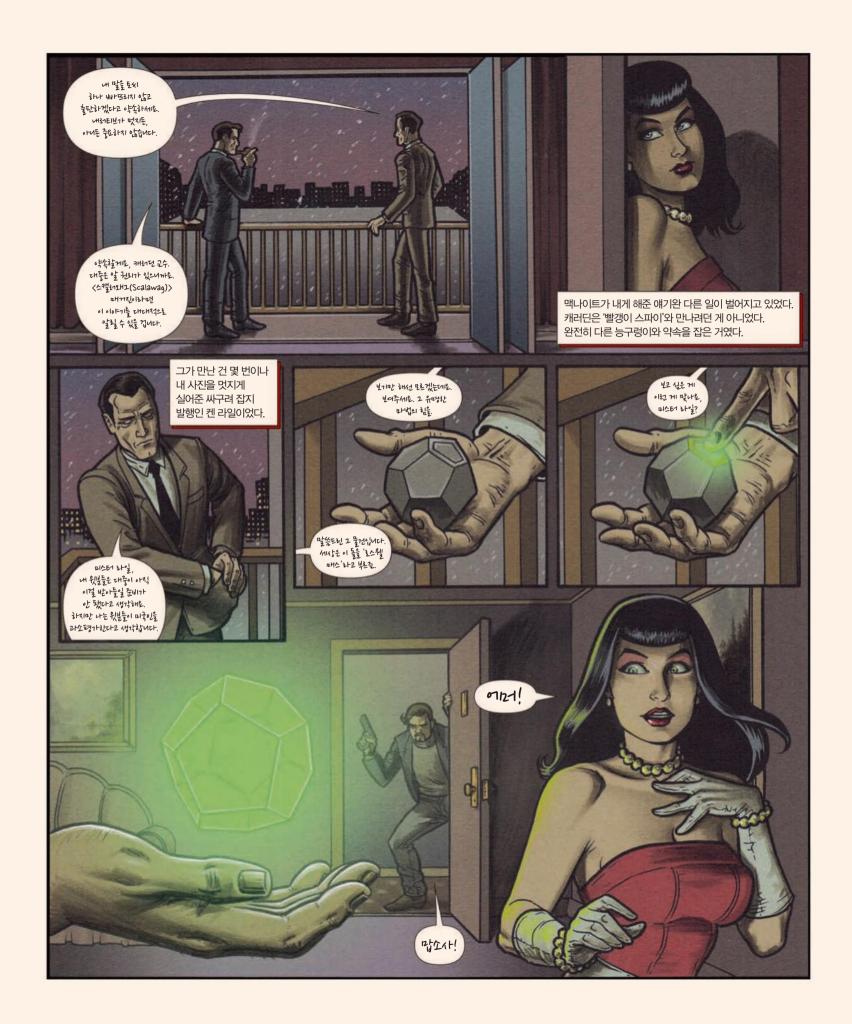






























### FROZEN JOURNEY

필립 K. 딕이 창조한 섬뜩한 상상의 세계에서, 빅터 케밍스는 희미한 기억의 우주를 항해한다. BY PHILIP K. DICK

이륙 후, 우주선은 냉동 캡슐 안에 잠든 탑 승객 60명의 상태를 일상적으로 감시했다. 그러던 중 9번 탑승객에게 오류가 발생했다. 뇌전도 그래프가 그의 뇌 활동을 감지했다. 제기랄, 우주선 은 혼잣말을 했다. 우주선이 9번 탑승객에게 접속을 시도했다.

"약간 깨어 있군요," 그의 의식 경로로 진입한 우주선이 말했다. 9번 탐승객을 완전히 깨우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여정은 아직 10년이나 남아 있었으니까. 의식은 거의 없지만 불행히도, 생각은 할 수 있던 9번 탑승객은 누군가 자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여기가 어디지? 아무것도 안 보여."

"당신은 지금 오작동 중인 냉동 수면 캡슐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할 텐데."

"오작동이라고요. 내 말이 들리는군요, 당신 이름을 기억하세요?"

"빅터케밍스. 나좀 꺼내줘."

"우린 비행 중입니다."

"그럼 다시 잠들게 해줘."

"잠깐만요." 우주선은 수면 장치를 점검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얼마 후, 빅터 케밍스는 아무 감각도 느낄 수 없지만 여전히 깨어 있었다.

"체온을 낮춰줘"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아마 말을 하고 있다고 상상하고 있는 건지 도 모른다. 여러 색깔이 눈앞을 떠다니다 그를 향해 돌진했다. 그는 그 색깔들이 좋았다. 어린 시절 물감 통이 떠올랐다. 200년 전 학교 다닐 적에 써봤지.

"다시 잠들 수 없습니다." 우주선의 목소리가 케 밍스의 머릿속에서 들렸다. "너무 복잡한 오작동이

필립 K, 딕은 1954년 〈솔라 로터리〉이래, 44편의 장편과 100편 이상의 단편소설을 썼다. 상상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SF 작품을 연거푸 내놓으며, SF와 관련된 모든 대중문화와 철학 등에 큰 영향을 끼쳤다. 〈Frozen Journey〉는 미국〈플레이보이〉 1980년 12월호에 처음 공개됐고, 훗날 《 Hope I Shall Arrive Soon》이란 이름으로 출간됐다. 〈마이너리티리모트〉 〈블레이드 러너〉 등은 그의 원작을 영화하한 것이다.

에요. 수정도 수리도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깨어 있어야 해요." 수많은 색깔이 다시 그에게 돌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사악한 느낌이다. 그자신의 공포가 투영되어 있었다.

"하느님 맙소사, 10년이라니!" 색깔들이 어두워졌다. 빅터 케밍스가 음울한 조명의 반짝거림 속에마비 상태로 누워 있는 동안, 우주선은 그에게 계획을 설명했다. 이 같은 사고에 대비한 계획은 이미 프로그램되어 있었다.

"지금부터 저는." 우주선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에게 감각 자극 프로그램을 실행할 겁니다. 심 각한 감각 상실이 우려돼요. 앞으로 10년 동안 감각 을 상실한 채 의식만 유지한다면, 당신의 정신 건강 은 매우 악화될 겁니다. 우리가 LR4 항성계에 도착 할 무렵에 식물인간이 되어 있겠죠."

"내게 뭔가 투여하는 건가?" 케밍스는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TV 드라마 같은 거 없어? 그냥 날 깨 워봐. 한번 걸어볼 테니까."

"이 우주선엔 산소가 없어요. 음식도, 얘기할 사람도. 다들 수면 중이니까요."

"너랑 얘기하면 되잖아. 체스나 두자고."

"10년 동안은 안 돼요. 음식도 공기도 없다니까요. 지금 그 상태로 있어야 해요. 어쩔 수 없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당신에게 옛 기억을 주입하는 거예요. 좋은 기억 위주로요. 당신의 206년간 기억 대부분은 무의식 속에 잠겨 있어요. 그 자체가 훌륭한 감각 자극물이 되는 거죠. 힘내세요. 처음 있는일이지만, 역시나 문제가 생길 경우 대처 프로그램이마련돼 있습니다. 진정하고 저를 믿으세요."

"내가 이민에 동의하기 전에 이럴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얘기했어야지." 케밍스가 투덜거렸다.

진정하려 해봤지만, 케밍스는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론적으로 그는 깨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성공적으로 냉동 수면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새로운 행성, 식민지 행성 말이다. 우주선에 탑승한 다른 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다. 오직 케밍스만이 예외였다, 마치 고약한 운명의 장난이 이유도 없이 그를 괴롭히고 있는 듯했다.

최악은, 그가 모든 걸 우주선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주선이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그를 괴물로 만들 수도 있었다. 앞으로 10년간 지배를 받으며 공포의 나날을 보낼 수도 있다. 항성 간우주선에 그런 취미가 있던가? 토양미생물학자인 그는 항성 간우주선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 어디생각해보자. 내 첫 번째 부인 마르틴은 빨간 크롭트

티와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귀여운 프랑스 여자였지. 그녀가 만든 크레페는 정말 일품이었어.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선이 말했다. 주위를 맴돌던 색깔들이 일정한 형태로 모여들었다. 그가 열아홉 살 때 살던 와이오밍의 아담한 노랑 통나무집.

"와우, 이 집은 기반이 좀 물렀어. 비도 새고." 이어서 주방이 보이고, 케밍스가 직접 만든 식탁이 보였다. 그는 기뻐했다.

"이제 곧 자각하지 못할 겁니다." 우주선이 말했다. "제가 당신의 기억을 찾아 주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완전히 잊고 있던 집이야." 낡은 커피포트, 그 옆의 필터… 그는 생생한 광경에 한껏 도취되어갔다. 그리고 새로운 집이 불쑥 그려졌다. "마르틴!" 케밍스가 큰 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잠깐만, 지금 통화 중이야." 거실에 있던 마르틴 이 대답했다.

"비상시에만 중단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는지 계속 관찰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가스불 좀 꺼줘" 마르틴의 목소리 케밍스는 부 엌에서 나와 거실로 갔다. 마르틴은 친오빠와 통화 중이었다. 그녀는 반바지를 입고 맨발로 서 있었다. 거실 창문을 통해 바깥 거리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참 따뜻한 날이었지. 그는 생각했다. 에어컨을 켜야 겠군. 마르틴이 통화하는 동안 그는 낡은 소파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가장 아끼던 길버트 셸턴의 '팻 프 레디(Fat Freddy, 못 말리는 괴짜 털보 형제들이라 는 1970년대 만화의 주인공)' 포스터를 물끄러미 바 라보는 자신을 발견했다. 완전 맛이 간 얼굴의 프레 디가 온갖 종류의 각성제를 손에 쥐고 "죽도록 밟아 라"라고 외치는 그림인데, 그와 마르틴의 결혼식 때 케밍스의 가장 친한 친구 레이 토렌스가 선물한 것 이다. 포스터의 가치는 어마어마했다. 빅터 케밍스와 마르틴이 태어나기 한참 전인 1980년대, 길버트 셸턴 이 직접 사인한 것이니까.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하 다면, 그 포스터를 팔 수도 있었다. 마르틴은 진심으 로 그 포스터를 아꼈다. 못 말리는 괴짜 털보 형제들. 그 옛날 까마득한 황금기의 유물. 케밍스는 그런 마 르틴의 모습을 사랑했다. 자연과 옛것을 좋아하던 여자 포스터를 액자에 끼워 벽에 건 것도 그녀의 생 각이었다. 사실 케밍스는 그냥 테이프로 벽에 붙이려. 했으니까

"무슨 생각해?" 마르틴이 전화를 끊었다.

"문득, 네가 사랑을 계속 키워가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 케밍스가 말했다.

"원래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지. 저녁 먹을래? 레

드와인좀 따줘 카르베네로"

"2007년산이면 될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를 안고 싶어졌다.

"2012년도 괜찮아."

그는 지하 와인 셀러로 내려가 병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케밍스는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그곳을 좋아했다. 그러나 바닥에 반쯤 파묻힌 삼나무 널빤지를 발견하고 생각했다. 아, 저걸 평평하게 갈아야하는데. 그는 와인은 까맣게 잊은 채 모종삽으로 널빤지를 꾹눌렀다. 어, 이 모종삽은 어디서 났지? 방금전까지 없었는데. 널빤지는 금세 바스러졌다. 집이 무너지고 있었다. 이럴 수가. 마르틴에게 알려야 해.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지만, 마르틴은 보이지 않았다. 가스렌지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주전자도, 냄비도. 놀라서 렌지 위에 손을 대보니 차가웠다. 그 녀가 요리를 하고 있지 않았나?

"마르틴!" 케밍스는 크게 외쳤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 스르르 주저앉았다. 세상에 이를 어쩌나. 가까스로 식탁에 걸터앉으니 의자가 살살 녹는 느낌이다.

두렵다. 그녀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마르틴은 거실로 돌아갔다. 혹시 옆집에 양념이나 버터를 빌리러 간 걸 수도 있어. 그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그렇지 않으면 공황 상태에 빠질 테니까. 다시 포스터를 바라봤다. 액자가 사라지고 그림만 남아 있었다. 가장자리가 찢어진 채로. 가만, 색이바랬어. 작가의 사인도 희미하게 변해 있었다. 우리집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인데!

그는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 눈물이 그를 놀라게 했다. 마르틴이 사라졌다. 포스터는 손상됐다. 집은 무너지고 있다. 렌지 위엔 아무것도 없다. 커밍스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우주선은 이해했다. 빅터 케밍스의 뇌파는 우주 선에 의해 면밀히 분석되었고, 이것은 오류였다. 뇌파 그래프가 불안과 고통으로 요동쳤다. 죽을 수도 있 겠군. 뭐가 잘못된 거지? 신호를 좀 더 세게 해야 하 나? 무의식적인 불안함이 커밍스를 지배하고 있었 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그의 심리 구조 문제군. 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사용해보자.

커밍스는 뒷마당에서 거미줄에 걸린 벌한 마리를 관찰하고 있었다. 거미는 거미줄로 벌을 칭칭 감았다. 이건 옳지 않아. 벌을 풀어줘야겠군. 커밍스는 팔을 뻗어 벌을 잡고 면밀히 살펴본 뒤, 거미줄을 풀기 시작했다. 그러다 벌에 쏘였다. 왜 나를 쏜 거지? 그는 궁금했다. 살려주려 한 건데.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엄마에게 말했다. 하지

만 엄마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벌에 물린 손 가락이 아팠다. 그러나 그보다도, 왜 벌이 구해주려 는 사람을 쏘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시는 안 구 해주리라 다짐했다.

"약 좀 발라라." 마침내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는 울기 시작했다. 이건 불공평한 일이다. 당혹감과 실망감을 느끼며 작은 생물에 대한 적대감이 생겨났다. 멍청한 것들.

그는 집을 나와 한참 동안 그네와 미끄럼을 타고, 모래집을 만들고, 차고로 갔다.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침침한 차고 안에서 새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이고 있었다. 그 아래엔 고양이 돌키가 폴짝폴짝 뛰며 새를 잡으려 했다. 그는 고양이를 들어 올렸다. 단숨에 새를 낚아챈 고양이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케밍스는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돌키가 새를 잡았어요!"

"저런, 망할 고양이 같으니." 엄마는 창고에서 빗 자루를 꺼낸 뒤돌키를 찾으러 밖으로 뛰어나갔다. 고 양이는 빗자루가 닿지 않는 딸기나무 덤불 속에 숨어 있었다. "저 고양이 내다 버려야겠어." 엄마가 말했다.

케밍스는 자기가 고양이를 도와 새를 잡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돌키는 새를 어기적거리며 씹고 있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이상 한 기분을 느꼈다.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할 것 같은 기분. 하지만 그러면 벌을 받을 것 같았다. 다시 는 이러지 말아야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엄 마가 눈치채면 어떡하지? 다행히 돌키는 말을 못하고, 새는 이미 죽었다.

하지만 그는 기분이 나빴다. 그날 밤, 밥이 목구 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부모님은 그가 아픈 줄 알 고 체온을 쟀다. 케밍스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마 디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아빠에게 돌키 이야기를 했고, 돌키를 내다 버리기로 결정했다. 식탁에서 듣 고만 있던 케밍스가 울음을 터뜨렸다.

"알았다." 아빠가 점잖게 말했다. "버리지 않으마, 고양이가 새를 잡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다음 날, 그는 모래집을 지으며 놀고 있었다. 새 파랗고 맑던 하늘에 어느새 구름이 몰려왔다. 그림 자 하나가 다가오는 듯해 고개를 들어 쳐다봤다. 알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감이 느껴졌다. 그 새의 죽음은 네 탓이다. 케밍스는 거대한 존재감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알아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거대한 존재감이 그 를 꾸짖었다.

"죄송해요." 케밍스가 눈물을 훔쳤다.

### 뇌파 그래프가 불안과 고통으로 요동쳤다. 죽을 수도 있겠군. 뭐가 잘못된 거지? 신호를 좀 더 세게 해야 하나? 무의식적인 불안함이 커밍스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그의 심리 구조 문제군.

신경증이 심한 사람이군. 우주선은 생각했다. 케밍스에겐 행복한 기억이 드물었다. 두려움과 죄책 감으로 가득 찬 삶이었다. 어디서 위안거리가 될 만한 기억을 찾지? 10년간 버틸 만큼의 추억을 찾아야하는데, 아니면 그의 정신이 망가질 거야. 본인 스스로 추억을 선택하게 해볼까? 그것은 환상을 불러일으킬 요소를 허용하는 일이었다. 일반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한 번 더 첫 결혼의 기억을 써봐야겠군. 케밍스 는 마르틴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이게 진짜 길버트 셸턴이 사인한 거라 생각해?" 포스터 앞에서 팔짱을 낀 마르틴이 진지하게 물었다. "위조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지. 셸턴이 살아 있을 때 든 죽고 나서든."

"보증서가 있잖아."

"아, 맞아!" 그녀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레이가 보증서를 같이 줬어. 아, 그 보증서도 가짜인가? 보증서를 보증할 보증서가 하나 더 있어야겠네."

"결국은 길버트 셸턴에게 직접 감정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겠지."

"자기도 모를 수 있어, 그 얘기 있잖아. 피카소한 테 가서 가짜 그림을 보여주며 진품이냐 물으니 거기 바로 사인을 척 하고는 '이제 진품 맞습니다' 했다는 얘기." 마르틴이 케밍스의 목에 팔을 두르고 그의 뺨에 키스를 했다. "진품이야. 20세기 반체제 미술 전문가인 레이가 우리에게 가짜를 줄 리 없어. 그거 알아? 레이는 진짜 마약을 한 봉지나 보관하고 있었어. 특별 제작한 보관함이—."

"레이는 죽었어."

"뭐라고?" 그녀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우리가 레이를 만나고 나서 그사이에 무 슨 일이 있었다는—."

"죽은 지 2년 됐어. 내가 그 동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경찰도 그냥 지나쳤지. 내 잘못이야!"

"레이는 화성에 살고 있어!"

"내 잘못인 거 알아.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어. 미안해. 창문에서 날개를 퍼덕거리고 있었지. 돌키가 그걸 노려보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돌키를 들어 올 려서—."

"앉아봐, 빅터." 마르틴은 푹신한 의자에 그를 앉혔다. "뭔가 잘못됐네."

"알아. 끔찍하게 잘못됐지. 내가 생명을 앗아간 거야.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미안해. 어떻게 든 보상하고 싶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마르틴이 말했다. "레이에 게 전화해봐"

"그고양이가—"

"무슨 고양이?"

"저기." 케밍스가 포스터를 가리켰다. "프레디 무를 위에. 저게 돌키야. 돌키가 레이를 죽였어. 거대한 존재감이 그랬어. 그건 신이었지, 그땐 알아채지 못했지만, 신이 내가 죄를 짓는 걸 보고 있었던 거야.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지."

마르틴은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다.

"신은 모든 걸 보고 계셔." 케밍스가 말했다. "참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 다만 이번 경우엔 떨어져 죽은 게 아니야. 잡힌 거지. 신은 이 집을 붕괴시키고 있어. 이 집이 내 몸인 거야. 내 죗값을 치르게하는 거지. 집을 사기 전에 건축 전문가에게 감수받아야 했어. 지금 이 집은 무너지고 있다고. 1년 안에전부 조각나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을 거야. 무슨말인지 알겠어? 잘 봐." 케밍스는 벽을 향해 걸어가더니 팔을 뻗었다. 그의 팔이 벽을 통과했다. 마르틴은비명을 질렀다.

우주선은 추억 송환을 즉각 중단했다. 하지만 이미 문제가 생긴 뒤였다. 그는 어린 시절 경험한 두 려움과 죄책감을 합쳐 양탄자처럼 짜인 하나의 기억을 만들어내는구나. 내가 그에게 좋은 추억을 공급해도 바로 오염시키고 만다. 이건 심각한 상황이다. 정신병의 징조, 10년의 여정이 막 시작된 것뿐인데. 우주선이 다시 빅터 케밍스에게 접속했다.

"케밍스 씨."

"미안해. 망칠 생각은 없었어. 넌 정말 잘해줬는데, 내가—."

"심리 치료에 적합한 장비는 탑재하고 있지 않아 요. 난 단순한 기계일 뿐입니다. 원하는 게 뭔가요? 가고 싶은 곳이나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목적지에 닿고 싶군, 이 여행을 끝내고 싶어."

우주선은 생각했다. 그것이 해결책이구나, 한 명 씩 수면 장치가 해제됐다. 사람들이 깨어났다. 케밍 스도 함께. 놀랍게도, 그는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없었다. 수면 캡슐로 들어가 자리에 누운 후, 덮개가 그를 감싸고 온도가 떨어지는 걸 느꼈는데—

그리고 그는 지금 외부 착륙 플랫폼에 서 있다. 신록이 우거진 행성의 풍경을 바라보며, 여기가 LR4 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식민지

"좋아 보이네요." 그의 뒤에 서 있던 덩치 좋은 여 자가 말했다.

"그러네요." 그는 눈앞의 새로운 풍경을 감상했다. 약속된 시작이 거기에 있었다. 지난 200년보다나은 무언가가. 난 새로운 곳의 새로운 인간이다. 기쁨이 밀려왔다.

아이들의 물감통에서 튀어나온 듯한 색깔들이 그를 향해 달려왔다. 세인트 엘모스 파이어(악천후 에 돛대나 비행기 날개에 생기는 밝은 빛). 그는 알아 챘다. 이 행성의 대기는 완전히 이온화돼 있었다. 20 세기 지구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자연의 조화.

"케밍스 씨." 한 중년 남성이 말을 걸었다. "혹시 꿈을 꾸었나요?"

"냉동 수면 중에 말입니까? 기억 안 나는데요." "난 꾼 것 같아요. 부축 좀 해줄래요? 어지럽네 요. 산소가 희박한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그는 중년 남성의 팔을 잡았다. "제가 하선을 도와드리죠. 저기 가이드가 오네요. 저 사람이 알아서 절차를 밟아줄 겁니다. 그것도 패키 지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리조트 호텔 특실에 묵을 거고요. 안내 책자를 보세요." 그는 불편함을 느끼는 중년 남성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10년이나 냉동 수면 상태였으니, 온몸의 근육 이 흐물흐물해진 것 같네요"

"냉동식품 같은 거죠." 케밍스가 중년 남성의 팔을 잡고 승강대를 내려갔다.

"전 셸턴입니다."

"뭐라고요?" 케밍스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돈 셸턴입니다." 중년 남성은 악수를 청했다. 케 밍스도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케밍스 씨, 괜찮아요?"

"그럼요. 근데 배가 고프네요. 먹을 걸 좀 찾아 봐야겠어요. 샤워하고 옷도 갈아입고 싶네요." 짐을 내리는 데만 한 시간은 족히 걸릴 것이다. 이 우주선 은 별로 똑똑하지 않으니까.

셸턴이 비밀스럽게 말했다. "와일드 터키 한 병을 가져왔죠. 지구 최고의 버번이오. 이따 당신 방으

로 가져갈 테니 같이 한잔합시다"

"저는 와인만 마십니다." 이 머나먼 식민지에도 좋은 와인이 있을까, 그는 궁금했다. 아, 이제 지구가 머나먼 곳이지 와인 몇 병 챙겨올걸

셸턴.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어릴 때였던 것 같은데. 예쁘고 착한 여자가 구식 주방에서 크레이 프를 만들던 기억.

그는 호텔 침대 옆에서 슈트케이스를 열고 옷을 꺼내 옷걸이에 걸고 있었다. 홀로그램 TV에선 뉴스가 나왔다. 사람 목소리가 듣기 좋아 계속 켜놓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꾼 전가? 지난 10년 동안? 그는 손에 통증을 느꼈다. 빨갛게 부은 자국이 있었다. 벌에 쏘였구나, 그는 알아차렸다. 근데 언제 그랬지? 냉동수면 중에? 불가능하다. 하지만 상처가 보였고, 통증이 느껴졌다. 뭔가 좀 발라야겠는데. 이 호텔엔 로봇 의사가 분명히 있을 거야. 특급 호텔이니까.

로봇 의사가 도착해 상처를 치료했다. "새를 죽 인 벌로 쏘인 겁니다." 케밍스가 말했다.

"진짜요?" 로봇 의사가 되물었다.

"내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마르틴, 포스터, 와인 셀러가 있던 통나무집. 우리에겐 모든 게 다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마르틴 은 새 때문에 나를 떠났어요."

"당신이 죽인 그 새요."

"신이 벌을 준 거예요. 그건 돌키 잘못이 아니에 요. 내 잘못이죠."

"하지만 어린애였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케밍스가 물었다. 그는 황급히 손을 빼냈다. "뭔가 잘못됐어. 그걸 당신이 알 수는 없다고."

"당신의 어머니가 말해줬어요." 로봇 의사가 말했다.

"우리 엄마도 모르는 일이라고!"

"엄마는 눈치채셨어요. 고양이가 당신 도움 없이 새를 잡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럼 내가 크는 동안 계속 알고 계셨던 거군. 내 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잊어버리세요."

"넌 진짜가 아닌 거 같아. 그 일을 알 리 없어. 난 아직도 냉동 수면 장치 안에 있고, 우주선이 내게 기 억을 주입하는 거지. 감각 상실로 미치지 않게끔." "당신에게는 이 여정에 필요한 만큼의 추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원 성취 프로그램인가 보군, 다 마찬가지야. 내가 증명해보지. 드라이버 있어? 내가 TV 뒤판을 열 테니 잘 보라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부속도, 기판도, 전선도."

"드라이버는 없어요."

"그럼 작은 칼이라도. 거기 수술 도구 가방에 있는 거." 케밍스는 몸을 구부려 작은 수술용 메스를 집어 들었다. "이거면 되겠군. 보여주면 믿을 텐가? 만약 TV 내부에 아무것도 없다면—." 케밍스는 쭈그리고 앉아 나사를 돌려 TV 뒤판을 떼어냈다. 그속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홀로그램 TV는 계속호텔방 한쪽 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입체 영상 속아나운서는 계속 뉴스를 읽었다.

"네가 우주선이라고 인정해." 케밍스가 로봇 의 사를 다그쳤다.

아, 이런, 우주선은 혼잣말을 했다. 앞으로 10년 간 써먹을 거짓말을 준비했는데, 구제불능이군. 어 떤 기억이든 어린 시절의 죄책감으로 오염시켜버린 다. 심지어 자기 부인도 고양이가 새 잡는 걸 도와준 일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마르틴이 돌아오는 것 외에는 해결이 안 나겠군.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녀가 살아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녀가 살아 있다면,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 지금도 이런데 10년 후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나 혼 자선 안된다.

목적지 도착이라는 소원 성취 프로그램을 반복 하는 것 외에는 우주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몇 번이고 그의 기억을 지우고, 식민지에 도착하는 기억 을 주입시킬 것이다.

"혹시 꿈을 꿨나요?" 외부 플랫폼에 모인 승객 중 덩치 좋은 여자가 그에게 물었다.

"저는 안 꾼 거 같은데요." 케밍스가 대답했다. 그는 빨리 호텔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사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면, 새로운 의욕이 생길 것 같았다. 좀 우울한 기분이지만,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저기 우리 가이드가 오네요. 숙소까지 우리를 안내해줄 거예요."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죠." 케밍스는 계속 우울 했다. 다른 이들은 모두 의욕적이고 생기 넘치는 모 습이지만, 그는 피로에 절어 있었다. 새 행성의 중력 때문인가? 안내서에 따르면, 이 행성의 중력은 지구 와 같은 수준인데. 바로 그 점이 이 행성을 택한 이유 중하나니까.

얼떨떨한 상태로, 그는 한 발짝씩 승강대를 내

꿈을 꾼 건가? 지난 10년 동안? 그는 손에 통증을 느꼈다. 빨갛게 부은 자국이 있었다. 벌에 쏘였구나, 그는 알아차렸다. 근데 내가 언제 그랬지? 냉동 수면 중에? 불가능하다. 하지만 상처가 보였고, 통증이 느껴졌다. 려왔다. 내가 이런 새로운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을까. 난 다른 이들과는 달라. 뭔가 잘못됐어.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뭔가 있어. 내 안의 쓰디쓴 고통. 살가치도 없는…

벌레 한 마리가 케밍스의 오른손 위에 앉았다, 잘 날지도 못하는 늙은 벌레. 그는 멈춰 섰고, 벌레는 손등으로 기어올랐다. 이걸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겠네. 어차피 오래 못살 운명. 그는 벌레를 죽였다. 그리고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곳에 오자마자 한 생명을 없애버렸구나. 이게 새로운 시작인가?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우주선의 감지 장치에서 또다시 탄식의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다. LR4로 향하는 10년 동안, 우주선은 마르틴을 찾아낼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녀는 시리우스 항성계의 거대 자전 돔에 살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아 지구로 귀환 중이었다. 우주선의 얘기를 골똘히 듣던 그녀는 LR4식민지에서 전남편을 만나기로 동의했다.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아요." 마르틴이 우주선에게 말했다. "난 나이를 먹었거든요. 노화 중 지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가 뭐 하나라도 알아볼 수 있다면 다행이지, 우주선은 생각했다. 항성 간 우주 정거장에서, 마르 틴은 우주선 탑승객이 외부 플랫폼으로 나오가를 기 다리고 있었다. 과연 그녀가 전남편을 알아볼 수 있 을지 의문이었다. 마르틴은 약간 두려워했지만 시간 맞춰 도착한 것에 기뻐했다. 일주일만 늦었어도 그는 케밍스의 우주선과 접선할 수 없었을 것이다. 행운은 내게 있어, 그녀가 되뇌었다.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나왔다. 그가 보였다. 케 밍스는 변한 것이 없었다. 힘없이 우주선 승강대를 내려왔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갔다. 부끄러워하며.

"안녕, 빅터."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는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은, 분명 히 아는 사람인데."

"마르틴이야."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우주선에서 무슨 일 이 있었는지 들었어?"

"우주선이 나한테 연락을 했어.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마르틴이 케밍스의 손을 잡았다.

"기억의 무한 반복이라니. 내가 네 살 때 거미줄에 걸린 벌을 구해주려던 얘기 한 적 있던가? 그 바보 벌이 날 쐈어." 그는 몸을 굽혀 그녀에게 키스했다. "다시 만나서 기뻐."

"우주선이 벌써 얘기—."

"네가 이곳에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

터미널로 걸어가며 마르틴이 말했다. "운이 좋았 어. 군용 수송기로 갈아탈 수 있었지. 미친 듯이 날아 가는 초고속 우주선이었어."

"난 오랫동안 무의식 상태로 지냈어. 20세기 초 반 정신분석학보다 더 끔찍한 경험이었지. 똑같은 소 재가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는. 내가 우리 엄마 무서 위했던 거 알아?"

"나도 당신 엄마가 무서웠어. 여기 참 좋은 행성 인 것 같아. 내가 있던 곳보다 훨씬. 그동안 전혀 행 복하지 않았거든"

"우주가 다 그런 거 아닐까." 케밍스가 활짝 웃었다 "너 좋아 보인다"

"늙었지."

"의학으로—"

"내가 내린 결정이었어. 난 나이 든 사람들이 좋아." 그녀는 그를 살펴봤다. 눈동자가 부서져 있었다. 피로 때문에 조각난 눈. 옛 기억은 그의 의식을 파괴했다. 하지만 이제 다 끝났다.

터미널의 바에서 두 사람은 술을 마셨다. "어떤 노인이 와일드 터키를 권하더군. 세계 최고라던데. 지 구에서부터 한 병 가져온…"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 아졌다

"그래, 새나 벌에 대해서는 그만 생각해도 돼." "그러면, 섹스?" 케밍스가 웃었다.

"모두 과거일 뿐이야."

"그 고양이는 벌써 182년 전에 죽었어. 냉동 수면 장치에서 나올 때 생각했지. 살인 고양이 돌키. 뚱보 프레디의 고양이와는 전혀 다르지."

"그 포스터는 어쩔 수 없이 팔았어. 기억해? 우리 헤어질 때 그걸 나한테 줬잖아."

"얼마에 팔았어?"

"비싸게.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네게 200만 달 러쯤 줘야 할 것 같은데."

"포스터 값 대신 나와 같이 시간을 좀 보내줄 수 있어? 이 행성에 익숙해질 때까지?"

"응" 그녀는 진심이었다. 아주 많이.

그들은 술잔을 비운 뒤 호텔로 향했다. "좋은 방이네. 저기 홀로그램 TV도 있고, 켜봐."

"소용없어." 케밍스는 옷장에 옷을 걸었다. 안이 텅 비어 있거든."

마르틴은 TV를 켰다. 마침 방송 중인 하키 게임 에선 시끄러운 함성 소리가 났다. "잘 나오는데?"

"기다려봐. 손톱 칼 같은 거 있어? 뒤판 열어서 보여줄게."

"하지만 내가—."

"자, 내 손이 벽을 통과하는 걸 보라고." 케밍스

의 손은 벽을 통과하지 않았다. 원래 손이란 벽을 지나갈 수 없는 것이므로, 벽을 밀고 있을 뿐. "그리고 지반도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

"이리 와서 옆에 앉아봐." 마르틴이 그를 불렀다.

"몇 번이고 이 장면을 반복했어. 이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다 알 만큼 많이. 냉동 수면에서 깨어난다, 승강대를 내려온다, 짐을 찾는다, 바에서 술을 마시거나 곧바로 방으로 온다, TV를 켠다…"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벌에 쏘인 자국 보이지?"

그녀의 눈에는 아무 자국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 는 그의 손을 잡았다.

"범에 쏘인 자국 같은 건 없어"

"로봇 의사가 오면 내가 도구를 빌려 TV 뒤판을 뜯는다고,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서야. 그러면 우주선이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해버리지"

"빅터, 네 손을 잘 봐."

"그런데 네가 여기 있던 건 오늘이 처음이네."

"좀 더 가까이 앉지 그래?"

"그럼 너무 슬퍼질 거야. 난 항상 네 생각을 해. 진 심으로 널 사랑했어. 이게 현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현실이 될 때까지 네 옆에 앉아 있을게."

"내 진짜 실수는 너와 헤어진 거였어. 자, 여기 내 손으로 널 통과해볼게."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팔에 갖다 댔다. 케밍스의 팔은 우람했다. 마르틴은 물리 적 무게를 느꼈다. "봤지? 그냥 통과해버리잖아."

"그럼 이 모든 게 네가 어릴 때 그 새를 죽였기 때 무이라 거야?"

"아니. 냉동 수면 장치의 온도 유지 기관이 고장 났기 때문이지. 온도가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서, 뇌 세포가 활동할 정도의 약한 온기가 남아 있었거든. 우리 저녁 먹으러 갈까? 이 지역의 해산물 요리를 먹 어봐야겠어. 안내서에 진짜 맛있다고 나와 있거든. 아, 이따 아래충 약국에서 약을 사야 해. 손이 슬슬 부어오르기 시작했어. 통증도 심하고. 오늘이 제일 심한 것 같아." 그는 그녀에게 손을 보여줬다.

"내가 정말 네게 돌아왔으면 좋겠어?" 마르틴이 말했다.

"진심이야?"

"응. 원하는 만큼 네 곁에 있을게. 맞아. 우린 절 대 헤어지지 말아야 했어"

"포스터가 찢어졌네." 케밍스가 말했다.

"뭐라고?"

"액자에 넣어야 했는데. 찢어져버렸잖아. 그리고 작가는 죽었지."♥

EDITOR YOU JISUNG



# King of Jazz MILES DAVIS

재즈의 지평을 넓혔을 뿐 아니라 대중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마일스 데이비스. 위대한 업적만큼 그를 둘러싼 소문도 무성했다. 1962년, 재즈계 최고의 우상 파괴자가 〈플레이보이〉에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BY **ALEX HALEY** 

마일스 데이비스가 모던재즈에 가장 자극적인 영향을 미친 건 그가 보여준 트럼펫 연주의 기교와 감성 덕분이다. 얼마 전, 뉴욕 허드슨강 근처 웨스트 77번가에 위치한 그의 집에서 이틀을 보냈다. 원래 러시아 정교회 건물이었다는, 조금은 유별난 5층짜리 주택에서. 때마침 마일스는 공연 사이 짧은 휴식을 취하는 중이었고, 우리는 쉴틈 없는 그의 일상을 함께하며 질문을 던졌다. 지하실의 체육관에서 운동할 때, 가족을 위해 송아지고기 요리를 준비할 때, 동료 음악가와 변호사, 주식중개인의전화를 받을 때, 세 아들에게 복싱 레슨을 해줄 때, TV를 볼 때. 기타 입문자용 코드 연습을 할 때. 그리

고 당연히 마틴 트럼펫으로 반음 계를 엄청난 속도로 불어젖힐 때처럼 적당한 순간에. 자신의 집을 피난처 삼은 마일스와 시간을 보내며 그가 여가 생활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대중적으로 알려진 냉정하고 공격적인 이미지와는 잘 겹쳐지지 않았다. 이 관점에서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이 시작됐다.

PLAYBOY: 당신은 음악적 명성뿐 아니라 무례하고 불같은 성격으로도 유명한데, 이에 대해 한말씀 해주시겠습니까?

MILES DAVIS: 대체 사람들은 나에 대해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지? 내가 뭐 그리 중요한 사람이라고, 귀찮게시리. 할 일 없는 평론가가 내가 꼭 소개를 안 한다는 등, 관객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등, 인사랑 멘트도 생략한다는 등, 그런 터무니없는 말이나 해대서 그래.

이보슈, 나는 그냥 트럼펫 연주자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야. 나발 부는 것. 그게 전부라고. 뮤지션일 뿐이지, 연예인이 아니고 그렇게 될 생각도 없어. 나에 대한 소문은 일단 대부분 사실이 아니야. 내 행동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 곡 제목 소개를 안 하는 건 순서를 정해놓지 않아서야. 애초에 사람들이 내가 연주하는 곡이 어떤 곡인지도 모른다면소개를 하든 말든 뭔 상관이래?

내가 가끔 무대에서 사라지는 건 다른 연주자의 솔로 타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남 연주하는데 옆에 가만히 서 있으면 괜히 방해되니까. 뭐 하러 서 있어?

내가 모델도 아니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 도 아닌데. 실실 쪼개는 검둥이 광대는 더더욱 아니 니까. 가끔 드럼이나 파아노 옆에서 악기 소리를 듣기 도 하지. 다시 내 차례가 될 때까지 무대 근처에서 밴 드의 합주를 감상하기도 하고.

그럴 때면 사람들은 내가 관객을 무시한다, 어쩐다, 그딴 소리를 지껄여. 아, 나는 언제나 관객을 잊지 않아. 단지 내 트럼펫 소리를 먼저 신경 쓰느라 그런 거지. 그리고 멘트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개소리야. 얼마나 자주 떠드는데. 공연 분위기가 즐겁고 나도 즐거우면 말이야. 하지만 밴드와 관련된 문제나 다른 게 마음에 걸리면 당연히 멘트 따위는

알토색소포니스트 재키 맥민과 마일스 데이비스

안 하지. 난 연주를 할 때면 언제나 집중해. 만약 내가 어떤 새끼의 심장을 꿰매고 있는 외과의사라면, 아무도 내가 수술 도중에 떠드는 걸 원하지 않겠지? 나에 대한 무성한 소문을 믿고 싶다면, 믿으라고 해.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니까. 나는 사람을 좋아해. 사람을 사랑한다고! 직접 티를 내지는 않지만, 내 방식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 트럼펫으로 말이야. 내가 열살짜리 꼬마일 때 신문 배달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서 배달해야 할집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어. 그래도 난 그냥내 방식대로 일했고, 내 할 일만 신경 썼지. 내가 나발부는 방식처럼. 그런데 요즘엔 진짜 짜증 나는 사

람들이 너무 많아.

PLAYBOY: 특히 어떤 사람들요?

MILES DAVIS: 그러니까, 내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바라면서 계속 귀찮게 구는 사람들이 있다고. 바라는 게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대로 따라 하지 않으면 화를 내면서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그런 일이 오백 번은 있었지. 얼마 전 한 클럽에서 공연할 때 있었던 일이야. 나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는데, 어떤 신문기자가 계속 다가와 알짱거리더라고. 뭔가 건지고 싶었던게지. 그러더니 다음 세트가 끝났는데도 또 집적대는거야. 술에 취한 건지. 취한 척하는 건지. 저리 꺼지라

고 했더니, 금세 멀쩡해지더라. 그 러고는 다음 날 신문에 내가 꺼지 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써댄 거야. 왜 그랬는지는 쏙 빼놓고.

그리고 어디든 흑인 차별 같은 게 나오면 꼭지가 돌아버려. 그런 편 견은 어딜 가나 있다고, 똑같은 말 을 몇 번이나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봐, 당신이 그렇게 색안경을 끼 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 어? 그냥 건드리지 말고 돌아가." 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의 기분까지 신경 쓸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그럴 때마 다 그자들은 내가 얼마나 나쁜 새 낀지 떠드는 무리에 합세해 다 함 께 내 휴을 보더라.

내 마음이 바뀌진 않을 거야. 뮤지션을 존중하지 않는 자와는 엮일 생각이 없거든. 요즘 웬만한 재즈 뮤지션은 클래식 뮤지션 못지않 은 트레이닝을 받는다고. 클래식

공연 중인데 무대에 올라와 귀찮게 하는 사람 있나? 물론 재즈에서도 연주자가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하면 아무도 꽥꽥거리지 않아. 백인 단장이 있다면. 하지만 흑인이 끼면 얘기가 달라져. 흑인 연주자는 뭔가 문제가 있는 놈이 돼버리지. 결국 내가 춤 대신 트럼펫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야.

PLAYBOY: 당신에 관한 불평이 인종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MILES DAVIS: 당연히 인종 문제가 많지. 백인 이 흑인 뮤지션에게 원하는 건 정해져 있어. 흑인 모두에게 낙인을 찍어놓은 것처럼. 노예 시절부터 쭉그래왔지. '검둥이 광대 짓'을 보고 싶은 거라구. 어릴

때부터 그런 광경을 보고 자란 흑인 아이들은 백인 과 어울리려면 광대 짓을 해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인식하지. 그래서 백인이 아직도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야. 심지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악기만 연주하는 게 아니라 싱글벙글 웃고 춤추머 그들을 즐겁게 해주길 바라지.

PLAYBOY : 흔히 말하는 '인종 문제'라는 단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MILES DAVIS: 그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말조차 꺼내고 싶지 않아. 난 친구들이 색깔별로 있어. 제일 친한 친구 중 하나는 백인이라고. 차별하는 백인이 싫은 거지. 쥐뿔도 모르는 것들. 흑인뿐 아니라중국인, 푸에르토리코인, 그리고 모든 다른 인종에겐 예의와 존중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말이야.

물론 흑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 땅의 소금처럼 소

중하다는 뜻은 아냐. 개 같은 검둥이도 많지. 특히 백인에게 빌붙어 사는 것들. 광대보다 못한 것들이지. 편견에 빠진 자들은 피부가 하얗지 않으면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아. 백인이 은행을 털면 그냥 은행 강도지만, 흑인이 털면 '끔찍한 검둥이'가 되는 거야. 백인이 붙여놓은 딱지 때문에 고생안 해본 사람 거의 없을걸. 예전엔 흑인이면 죄다 의욕 없고, 태평스럽고, 게으르다고 했지. 요즘 들어서야 사실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지만. 흑인이 백인이랑 한 침대에 누우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터무니없는 말이야. 그냥 백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지. 흑인이 원하는 건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야. 백인은 "네 동생이 검 등이와 결혼한다고 하면 어쩌겠어?" 따위의 말이나 지껄이지. 애초부터 개소리야. 웬 검둥이가 갑자기 나타나 주례 선생 앞으로 끌고 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백인 여자가 어디 있나? 그딴 소리를 들으면 토 나온다고. 모든 검둥이가 네 동생을 원하진 않을 텐데. 백인 여자가 먼저 흑인 남자를 원했다 해도 모든 비난은 검둥이의 몫이야. 그러면 반대로 노예 시대부터 백인 남자가 흑인 여자를 가까이해온 건 괜찮나? 허여멀건 흑인을 보면 조상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가지. 처음 노예로 데려올 땐 피부색이 어두웠을 테니까.

정말 열 받는 건, 백인 중 흑인의 고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야. 대다수 백인은 똑똑한 흑인과 가까이 지내본 적이 없어. 스스로 흑인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백인은 찾기 힘들

걸 특히 백인 남자들은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할지언정, 흑인과 지낸 경험을 과시하는 타입일 거야. 어떤 이야기를 풀어놓을지는 보나 마나 뻔해. 할 얘기가 넘쳐나도, 결국 어릴 때가 까이 지낸 흑인 친구랑 있었던 얘기를 하지. 그 흑인 친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아마 진절머리가 날걸. 얼마나 많은 백인이 나한테 흑인이랑 함께 자랐다고 말했는지. 하지만 그자들 중 그 흑인 친구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는 백인은 한 명도 못봤어.

PLAYBOY: 그렇다면 당신은 어릴 때 백인 친구가 있었나요?

MILES DAVIS: 친구는커녕 대화를 나눌 상대 도 없었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있었지만. 고 등학생 때 내가 전교에서 트럼펫을 제일 잘 불었고, 그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어. 하지만 1등은 언제나 파란 눈의 소년이었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모든 백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말할 수는 없지.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난 내 생각을 이야기할 뿐이야. 하지만 흑인 대다수에게 자신의 기분에 대한 선택권조차 없다는 건 알지. 흑인이라고 전부 장님은 아니잖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똑바로 알아야지. 크고 작은 차별을 수천 번 맞닥뜨렸어.

인을 능가하는 나발잡이가 되겠다고 작정했어. 아마그 사건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진 않았을 거야. 그 이후에도 그때 기억을 자주 떠올렸어. 그런 편견, 그리고 내가 가진 호기심이 내 음악을 만들어 온 본질이라고 할 수 있지.

PLAYBOY: 그 호기심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MILES DAVIS: 항상 새로운 음악을 하려는 호기심이 있었어. 신선한 소리를 찾거나, 다른 방법을 시도해봤지. 하지만 자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아나? 이 나라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야! 영화나 TV를 봐. 죄다 백인이잖아. 다음에 영화볼 때백인이 아닌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나오는지 한번세어봐. 하지만 거리로 나가보면 다양한 사람이 섞여 있는 게 현실이라고. 그런데 이 나라를 대표한다는 영화의 등장인물은 전부 백인이야. 흑인은 지나가는 행인 중 한 명으로 나올까 말까지. 영화사에서 굳이

흑인 엑스트라를 쓰지는 않을 테니까

흑인은 줄곧 하인이나 광대 역할을 맡아왔지. 하지만 그 짓거리를 때려치우니 주요 배역은 1년에 네다섯개 던져주고는 끝이야. 그것마저 다른 인종의 배우가 연기해도 문제 되지 않을 역할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그 영화는 민주주의를 몸소 실현하는 영화가 되는 거야. 물론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죄다편견 덩어리라는 말은 아냐. 내가 모르는 얘기는 할수 없지. 그런데 그런 영화가 자꾸 눈에 보이잖아. 많은 흑인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불편해한다는 걸제작진이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야. 언젠가 한 대형방송사에서 내게 TV 쇼 진행을 제의한 적이 있어. 싫다고 했는데도, 쇼에 출연한 뒤 유명해진 여러 흑인가수를 보라고 하더라. 떠오르긴 누가 떠올라? 그리고 무슨 백댄서를 18명이나 세워놓는다고. 한 명도빠짐없이 모두 백인이더라. 나중에 방송사 관계자한

테이 문제를 지적하니 놀라서 어쩔 줄 모르더군. 생각지도 못했다고 하길래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해줬지. 아무도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느끼는 심정에 대해 깊이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정작 본인도 광고를 본 뒤 구매를 하는데도 말이야. 모든 사람은 자기와 피부색이 같은 사람을 TV에서 보고 싶어 해. 스타가 아니라도. 만약 피부색이 제각각인 아이들이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난 거기서 나발을 불고 있을 거야. 나와 유색인종 친구들의유일한 차이점은 내겐 행운이 따랐다는 점이니까. 이런 '흑백 비즈니스'는 말하기 예민한 문제야. 분명 채널을 돌릴 때마다 흑인을

보고 싶지는 않겠지. 그건 백인 말고 아무도 안 나오 는 상황만큼이나 싫을 테니까. 그런데 방송이랑 영 화가 정말 이 나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면, 그리 고 이 나라가 민주주의국가라면 왜 사실대로 보여주 지 않는 거지? 인종과 상관없이 춤추고 연기하는 걸 보여주자고. 학교에서는 모든 인종의 아이들이 춤추 고 연기하는데, 왜 방송이나 영화에서는 보이지 않 지? 백인들만 일하고 있잖아. 자, 보라고. 음악도 마 찬가지야. 내 앨범 중 (Some Day My Prince Will Come〉이 있어. 커버 모델이 누군지 알아? 내 아내 프랜시스야, 흑인들이 레코드판을 많이 사 가는데 도. 가수 이외의 흑인 여자가 앨범 재킷에 등장하는 경우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쁜 의도가 있었 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백인 여자를 모델로 데 려다 쓴 거지. 내 앨범이니까, 그리고 나는 프랜시스 의 왕자니까, 내 아내가 모델이 되면 좋겠다고 제안 했더니 그렇게 하자고 하더군. 하지만 백인이 다른 인종에 대한 배려를 잊은 게 전부 실수는 아냐. 의도적으로 차별하기도 하지. 음악에서도 그렇고. 흑인을고용조차 하지 않는 회사가 많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자기들끼리 몇 명만 골라내서 쓰려고 하지. 방송국과 브로드웨이의 밴드, 클래식 오케스트라, 영화사까지 모두 피부색에 따라 차별해.

내가 왜 이렇게 시스템을 강력하게 비판하는지 말해 주지. 유럽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이야. 잊을 수 없 는 사건이지. 어떤 노인이 제2차 세계대전 중 흑인 군 대를 보고는 너무 놀랐다는 얘기를 하더군. 미국 잡 지나 영화에서 죄다 백인들만 봐와서 그래. 루이 암

스트롱이나 조 루이스, 제시 오언 스 정도만 겨우 알았지, 하인이나 노동자 이외의 흑인은 본 적이 없 다고 하더라고.

PLAYBOY: 다른 흑인이나 유 색인종도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할 까요?

MILES DAVIS: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말할 수는 없지.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난 내생각을 이야기할 뿐이야. 하지만 흑인 대다수에게 자신의 기분에 대한 선택권조차 없다는 건 알지. 흑인이라고 전부 장님은 아니잖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똑바로 알아야지. 크고 작은 차별을수천 번 맞닥뜨렸어. 영어도 못하는 이민자들이 이 땅에 나타나고, 그들의 자식이 태어나고 자라서흑인이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위치에 다다르는 걸 얼마나 많은 흑인이 봐왔는지 알아? 이봐. 얼마

전 어느 유명 잡지에서 읽었는데, 남부의 한 트럭 운전사가 고속도로 주변 식당에서 "검둥이를 손님으로 받으면 차라리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더군. 그자가 어디서 뭘 처먹든 중요하지 않아. 뱉은 말이 문제인 거지. "검둥이에게 손가락 하나를 주면 팔뚝을 뜯어간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늘어놓고. 알겠어? 자기들이 '인권 프랜차이즈'라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그리고 말이야, 이렇게 세상이 개판으로 돌아가는 상황인데도 어떻게든 우리 아프리카인, 아랍인, 인디언, 중국인에게도 영향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백인이 아니란 거 알아? 그런데도 백인

은 흑인에게만 온갖 지적을 해대면서 스스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

또 한 가지. 흑인을 손님으로 받지 않는 식당은 그동안 어떤 비난도 받지 않고 멀쩡히 장사를 계속해왔어. 그러다가 아프리카에서 여행 온 어느 흑인을 돌려보낸 사건을 계기로 마침내 문제가 됐지. 이 나라의 모든 흑인 중 '검둥이 사절 식당'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을까? 흑인이 이곳에 정착한지 400년이 됐지만, 그 여행객을 내쫓기 전까지는 아무말도 못하고 있었지.

PLAYBOY: 당신은 유명한 흑인인데도, 그런 편견

색소포니스트 지미 히스 , 베이시스트 팩시 히스 형제와 녹음 세션을 준비 중인 마일스 데이트스

을 직접 경험했나요?

MILES DAVIS: 말했잖아. 어떤 형태로든 겪지 않을 수 없다고. 흑인이라면 누구든 마찬가지야! 자, 들어봐. 전기수리공을 우리 집에 부른 적이 있어. 초 인종을 누르길래 문을 열어주니 날 벌레 보듯이 쳐다 보면서 "집주인 데이비스 씨를 불러주시오"라고 하더라. 내가 하인 비슷한 건줄 알았나 봐. "지금 눈앞에 있는데요"라고 말했더니, 얼굴이 시뻘게지더군. 괜히혼자 흥분하고 쪽팔려하더라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지? 그냥 일거리를 준 건데.

며칠 뒤 동네 바에 갔는데, 유난히 육군사관학교 학생이 많이 보이더군. 그래서 한 친구에게 무슨 일인

지슬쩍 물어봤어. 그런데 참나, 그냥 아무 대답 없이 일어나더니 다른 자리로 옮기더라. 그러다가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는 내 이름을 부르니까 그 친구 얼굴이 그 전기수리공처럼 빨개지더라고. 잠시 후 나한테다시 오더니 내 앨범도 가지고 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 "내가 너 육사 다닐 수 있게 세금 많이 내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고 한마디 던지고는 나와버렸어. 아마 지금쯤 내가 얼마나 개새끼인지 흉보는 무리와 함께 있지 않을까? 그런 일을 겪고 나니 기분이 상해서 며칠 동안 아무 일도 못하겠더라고. 몇년 후 큰아들 그레고리가 군대에 갈지도 모르는데, 그런 자식 밑으로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러고는 순회공연을 위해 프랜시 스와 함께 캘리포니아행 기차름 예약했지. 그런데 내 표와 신분증 을 본 역무원이 그 육사생처럼 날 빤히 쳐다보더군, 무슨 문제가 있 느냐고 물으니. 위조한 게 아니냐 며 따지는 거야! 간덩이가 부은 놈 이었지, 내가 그놈에게 뭐라고 했 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어. 잡지에 는 실을 수도 없는 소리니까, 곧장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버렸 지, 철도는 파산 직전이고 그 역무 원 놈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 이었어. 내가 친히 사비 털어 이용 해주겠다는데, 그 자식 눈에는 내 가 흑인이란 것만 보였나 봐. 날모 욕해도 괜찮다고 생각했겠지. 그 이후로는 절대 기차 안 타, 비행기 를 싫어하지만, 적어도 비행기에서 는 그런 차별주의자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PLAYBOY: 반면 당신의 영역

인 음악에서도, 흑인 재즈 뮤지션이 백인 뮤지션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MILES DAVIS: 역차별이라는 게 있긴 하지. 흑인이 만든 음악을 백인이 연주하는 건데도 좋은 일자리는 주로 백인이 차지하는 현실에 분노하는 흑인 뮤지션이 많아. 하지만 나는 달라. 나도 똑같은 놈이 될수는 없거든. 편견은 누구를 향하든 언제나 나쁜 거야. 나는 편곡을 길에번스에게만 맡겨. 우린 형제나다름없는 사이지. 한번은 리코니츠가 왜 흰둥이랑작업하느냐고 투덜거리길래 "누구든 너만큼 연주를할 줄 알면 얼굴이 초록색이든 빨간색이든 색소폰자리에 세울 거다"라고 얘기해줬지.

PLAYBOY : 당신이 밴드의 리더라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나요?

MILES DAVIS: 밴드의 간판이 된다는 건 재미없는 일이야. 보통 사람들은 음악이 비즈니스라는 사실을 모르지. 얼마나 힘들고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데. 음악을 하면서 겪어온 일들, 지금도 해나가야 할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 나는 모든 걸음악에쏟아부었어. 리허설을 잘 마쳐도 허무할 때가 있지. 내 파트도 해야 하고, 밴드도 이끌어야 하고, 공연도중에 생기는 문제도 많아. 내 가족도 신경써야 하고,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가족까지 챙겨야 하

지. 한번은 공연이 끝나고 무대에 서 내려오는데 어떤 백인 여자가 다가오더니 자기 테이블에서 남편 이랑 같이 한잔하자고 하더군. 그 걸 거절했더니 갑자기 소릴 지르 는 거야.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다들 그러던데, 그 소문이 사실이 군요!" 순간 트럼펫을 바닥에 내던 지고 발로 차버릴 뻔했어.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커플 한 쌍이라 도 교육을 시켜야겠더라고. 그래 서 그 테이블로 다가가 말했지. 예 술가의 첫 번째 책임은 스스로를 돌보는 거라고. 다른 사람이 자신 에게 요구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한다면, 더 이상 예술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내가 얼마나 노력해 서 이만큼 연주를 할 수 있게 됐 는지, 어떻게 밴드를 만들고 관객 이 돈을 내가면서 들을 만한 음악 을 하게 됐는지 가르쳐주고 싶었 어. 클럽에서 사람들이 내게 말을 걸면 그 얘기를 해줄 때가 많아.

난 밴드에 대해 걱정할 일이 많다고. 그러면 대개 이 해한다는 반응을 보이는데 부디 진심이길 바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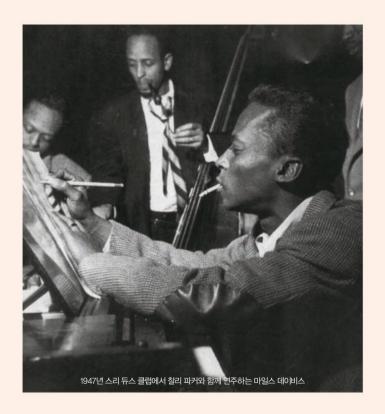
PLAYBOY: 당신이 재즈 콘서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왜죠?

MILES DAVIS: 콘서트에서는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서. 뮤지션도, 관객도 전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뿐더러 물을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니까. 뮤지션은 모든 걸 내려놓고 관객에게 다가가야 해. 내가 굳어 있는데 어떻게 관객에게 느낌을 제대로 전할 수 있 겠어. 재즈는 느낌이 전부야.

PLAYBOY: 잼 세션과 합주할 때,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경우도 있나요? MILES DAVIS: 그럴 만한 잼 세션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런 건 없어. 적어도 대도시에는. 예전에 세인트루이스와 브루클린, 일리노이 주변에서 끝내주는 잼 세션에 낀 적이 있지. 다음 날 오후까지 불어 젖히곤 했어.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작은 블루스 밴드랑 함께하고 싶어. 분명 그들만의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야.

PLAYBOY: 트럼펫 연주자 투표에서 1등을 휩쓸었죠. 그 밑에 있는 다른 트럼펫 연주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MILES DAVIS: 밑이라니! 나뿐 아니라 그 누구



의 밑에도 서지 않을 트럼펫 연주자가 널렸는데! 그 래서 내가 평론가를 싫어한다고. 어찌나 아티스트를 비교해대는자… 10명이 연주를 하면 10가지 다른 스타일이 나와. 테크닉을 마스터하고 나면 각자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거라고. 예술이란 그런 거야. 그런데 평론가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거나 선호하지 않는 음악을 들으면 그 아티스트를 향해 함부로 혹평을 하지. 그런 점이 뮤지션을 짜증 나게 하는 거야. 트럼펫이고 뭐고 다 관두고 싶게 만든다고.

다른 악기처럼 트럼펫도 연주자의 아이디어와 스타일에 따라 각양각색이야. 재즈 아티스트를 평가하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표현해내는지, 아이디어를 가

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겠지. 디지 길레스피가 트럼 펫을 들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다 쏟아져 나온다고. 다른 연주자도 마찬가지야. 클라크 테리나 레이 낸스, 케니 도햄, 로이 엘드리지, 해롤드 베이커, 프레디 허버드, 리 모건, 바비 해켓…. 셀 수도 없지. 저기뉴올리언스에 있는 양반, 알 허트. 그 양반도 당차게 불어버리지!

PLAYBOY: 루이 암스트롱을 언급하지 않는 특별 한 이유라도 있나요?

MILES DAVIS: 아, 우리 아재?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내가 지금껏 모던재즈에 대해 말했기 때문

이야. 난 우리 아재를 사랑해. 그 창법이며, 트럼펫 연주며… 뭐든 다 좋아하지만 모던재즈에 반감 을 갖는 것만은 동의하지 않아, 본 인 스스로 모던재즈에 한몫한 인 물이란 걸 깨달아야 할 거야. 내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은 아 니었어. 그가 내 트럼펫 연주를 마 음에 들어한 적이 있지, 그가 기억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아직도 생생해. 내가 스스로에게 빠져 있듯이. 관 객은 우리 아재에게 빠져 있지. 루 이는 해외에서 개성 넘치는 연주 로 눈부신 성공을 거뒀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유럽 말고 남부의 조지아나 앨라배마. 미시시피 쪽 으로 보내려 했지. 무슨 친선대사 처럼 말이야.

PLAYBOY: 아까 평론가에 대한 날카로운 반감을 내비쳤는데, 뮤지션을 비교한다는 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MILES DAVIS: 글쎄, 그것 말고도 온갖 칼럼에 미사여구만 잔뜩 늘어놓고 결국 중요한 건 다 빼먹는 것들이 태반이야. 자신이 하고 있는 음악을 이해 하고 다른 아티스트의 음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평론가가 얼마나 헛소리를 잘하는지 금세 알 수 있다고.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평론가들이 나에 대해 뭐라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제일 엄격한 평론가는 바로 나 자신이니까. 나는 나만 신경 쓰면돼. 내 음악은 이미 나를 초월했고, 내가 듣기에 좋지 않은 것을 연주하기엔 난 너무 잘났으니까. 내가 싫어하는 평론가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을 거야. 다만

존중할 만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알려줄 수 있지. 냇 헨토프, 랠프 글라즌, 그리고 레너드 페더. 더 있 는데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네. 많진 않고.

PLAYBOY: 혹시 연주하고 싶지 않은 클럽이나 공연장이 있나요?

MILES DAVIS: 많지! 남부에는 안 가. 말했지? 인종차별하고는 상종도 안 해. 그래서 남쪽으로는 안 내려가. 북부도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는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니까. 관객 수준이 낮아서 연주할 때 필요한 숨조차 아까운 곳에서는 절대 연주하지 않아. 회사 경비로 공연을 보러 와서는 마음껏 과시하며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는 사람들 말이야. 음악을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음악을 즐길줄도 몰라. 술이나 처마시고 시끄럽게 뛰어다니면서 주목받으려고 애쓰지. 매너라고는 없어. 함께 온 여자를 배려하지도 않고 흑인 밴드가 나오면 '꿈둥이 광

대 짓이나 보고 싶어 하지. 그런 자들은 고 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족속이거든. "야 인마, 스위트 조지아 브라운이나 불러봐!"라고 하면 방긋 웃으며 불러줘야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위해 연주하느니, 차라리 가진 돈으로 건물 하나 사서 월세나 받으며 살고말지. 음악을 들으러 오는 다른 관객을 존중하지 않는 머저리는 도저히 상종할 수가없어. 어떤 때는 그런 손님 하나 때문에 기분을 잡쳐 공연마치고 호텔로 돌아와서도잠 못들고 방안을 서성이게 된다고. 흑인이가지 않는 남부의 공연장에서 연주하지않는 이유는 2가지야. 들여보내주질 않아서, 아니면 평소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이 싫어서. 흑인은 백인처럼 클럽에서 탕진할 돈이 없어. 그러니까 흑인이 가는 클럽은 정말 좋은 음악이나오는 곳이란 걸알 수 있지.

PLAYBOY: 유럽의 재즈 관객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요?

MILES DAVIS: 유럽은 미국에 비해 관객이 재즈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여기서는 전혀 유명하지 않은 음악이 유럽에서 인기를 끄는 경우도 있고. 이 나라에선 개성을 더 추구하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 클럽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말에 따르면 사람들이 돈 내고 내 공연을 보러 오는 건 음악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래. 그냥 나를 보려오는 거지. 내가 워낙 나쁜 놈으로 소문이 나서. 좆같지 않아? 그래도 이 나라엔 좋은 팬이 많아. 노력하는 걸 인정해주고, 그래서 뮤지션은 자극을 받아 더 많이 노력하지. 재즈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진짜

뮤지션처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PLAYBOY: 유럽 순회공연 계획이 있나요?

MILES DAVIS: 아마도, 유럽에서 연주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 집을 오래 비우고 싶지는 않아. 내 매니저인 잭 위트모어가 투어 일정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스케줄을 잘 조율해주지. 난 여기서아이들이랑 프랜시스와 함께 지내는 게 좋아. 그냥이런저런 고민이나 하면서. 정부가 또 전쟁을 치르겠다고 지랄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좀 하면서. 그래도 케네디 형제는 좋아하지. 스윙을 좀 아는 사람들이니까.

PLAYBOY: 당신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을 악당으로 보지 않는다면 기뻐한 거가요?

MILES DAVIS: 글쎄, 아무도 자기가 하지 않은 일로 욕을 먹고 싶지는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길 원

나는 나답게 살 거고, 나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이미 질리도록 삶을 헤쳐왔으니까. 마약쟁이 시절을 되돌아보면, 벌써 몇 번은 죽은 거나 다름없어. 터프한 척하거나 흑인우월주의자 행세를 하지도 않을 거야. 나는 내 생각을 말할 뿐이고, 그 말을 듣기 싫은 백인이 많을 뿐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야. 나는 나답게 살 거고, 나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어. 그누구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이미 질리도록 삶을 체쳐왔으니까. 마약쟁이 시절을 되돌아보면, 벌써 몇 번은 죽은 거나 다름없어. 터프한 척하거나 흑인우월 주의자 행세를 하지도 않을 거야. 나는 내 생각을 말할 뿐이고, 그 말을 듣기 싫은 백인이 많을 뿐이야. 그들이 내 눈에서 두려움을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그제야 비로소 우리가 동등하다는 걸 알게 되겠지.

PLAYBOY: 자신이 흑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민감하게 여기나요?

MILES DAVIS: 어린 시절, 한 백인 남자가 "검둥 아! 검둥아!"라고 소리치면서 쫓아온 기억이 있어. 아 버지가 총대를 메고 그를 잡으러 갔지. 우리 집안은 노예 시대 때부터 흑인 의식이 강했어. 노예 데이비스 가문은 대농장에서 클래식 현악기를 연주했지. 우리

아버지는 흑인이 해방된 지 6년 후 태어나셨어. 음악을 하고 싶어 하셨지만,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백인을 위한 연예인보다 나은 직업을 갖기를 바라셨지. 결국 아버지는 노스웨스턴 대학에 진학했고, 치과의사가 되셨어. 환자가 끊이지 않는 대단히 비싼 치과의 수술 전문의라고. 아버지는 나보다 수입이 많아. 그리고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데, 족보 있는 돼지만 기르시지. 굉장히 유별난 종자인데, 기억이 나진 않지만 꽤나 웃긴 이름이었어.

PLAYBOY: 당신은 돈을 가장 잘 버는 대중음악 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맞나요?

MILES DAVIS: 글쎄, 다른 뮤지션의 통장을 들여다본 적은 없지만, 나에게 가난하다고 할 사람은 절대 없겠지. 난 손톱만 한 용돈을 받고, 엄청난 양의 신문 배달을 하면서 자랐어. 돈이 필요한 유일한 순간은 음반을 구매할 때였지. 내가 집을 떠나 뮤지션

의삶을 시작했을 때는 버는 대로 다 써버렸어. 마약에 빠졌을 땐 빚을 져가면서 약을 샀고.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미친듯이 돈을 모았지. 지금은 주식 투자도 하고있고,이 집도 샀어. 무려 방 6개짜리에 모든 옵션이 포함된 집이야. 아이들도 4명모두 잘 자라고 있지. 학교에 다닐 만큼 크면지하실에서 샌드백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항상 열심히 운동하고,아이들에게 복싱을 가르쳐주기도 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말이야. 아비로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으로는 그게 최고지. 그리고 내겐 음악이 있고, 프랜시스가 있고, 페라리도 있어. 그리고 내 친구들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졌어. 그 쓰레기 같은 편견만 빼고. 백인을 증오하는 건 아니야. 그저 눈앞에 놓인 현실을 보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을 뿐이지. 인종차별이란 것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할 때마다 내가 느끼는 걸 말할 거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편견 쓰레기를 모조리 처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뱃속의 염증을 떼어낸 것 같은 기분이겠지. ❖

ASSISTANT EDITOR KIM SUNHEE



#### 마일스 데이비스

세상을 떠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팬들은 여전히 그의 트럼펫에서 흘러나오던 선율을 기억한다. 평전 〈마일스 데이비스〉는 언제나 재즈와 함께한 마일스의 삶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그를 좀 더 가까이서 느끼게 해주는 가족과 동료의 인터뷰도 담겨 있다. 존 스웨드 지음, 그책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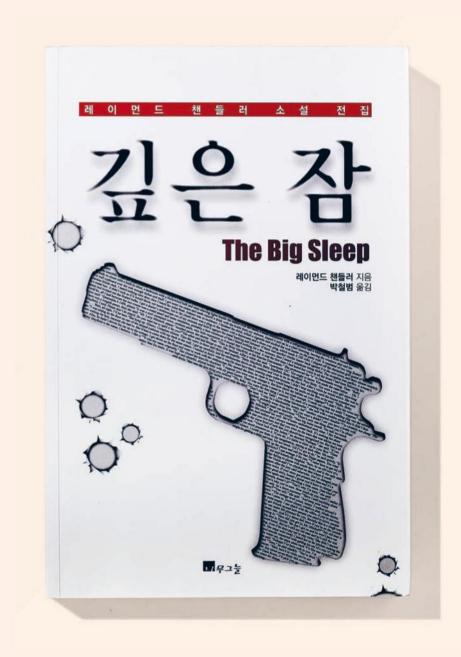


## Raymond Chandler THE BIG **SLEEP**

〈깊은 잠〉으로부터 레이먼드 챈들러를 추적한다. EDITOR YOU JISUNG

이건 언제지? 이건 어디일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둘은 잘 어울릴까? 레이먼드 챈들러 의 소설에서 궁금한 건 결말뿐만이 아니다. 건조하다 못 해 종이에 베일 것같이 냉랭한 '하드보일드'의 세계, 그는 끝을 향해 질주하기보다 내내 사람과 주변을 살피고 그것 을 그린다. "비비언 리건은 갈색 반점이 있는 트위드로 만 든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처럼 셔츠에 타이를 매 고, 수제 워킹 슈즈를 신고 있었다. 전날처럼 비치는 스타 킹을 신었지만, 전날처럼 다리를 많이 드러내지는 않았다. 로빈 후드 스타일의 갈색 모자 아래, 검은 머리카락은 윤 기가 흘렀다. 50달러는 족히 주고 샀을 것 같은 모자는,





책상에 있는 종이를 한 손으로 접어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깊은 잠〉은 레이먼드 챈들러가 51세에 낸 첫 장 편소설이다. 강직한 어른이자 노련한 중년으로서, 말하기 보다 주의 깊게 듣고 관찰하는 습관이 이미 그의 문장에 배어 있는 게 아닌가 추측하게 된다. 어쩌면 화자이자 주 인공인, 그가 창조한 냉소적인 멋쟁이 사설 탐정 필립 말로가 그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 얽히고설킨 살인 사건을 추적하며, 막 사람을 죽인 남자를 간신히 찾은 뒤 "이봐, 성냥 있나?"란 서늘한 인사를 건네고, 총구 앞에서 "내가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말해봐"라며 한술 더 뜨는 남자. 레이먼드 챈들러의 소설은 〈깊은 잠〉을 비롯해 영화화된 것

이 많고(〈깊은 잠〉은 무려 두 번이나〉, 나아가 그는 앨프리드 히치콕 감독의 〈열차 안의 낯선 자들〉의 각본을 쓰기도 했는데, 이 또한 금세 수궁이 간다. 이미 완성된 각본이나 다름없는 생생한 대화와 상황 묘사, 무엇보다 완성된 '캐릭터'가 거기에 있으니. 앞뒤 안 가리고 푹 빠지게 되는 보편적 추리소설의 매력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멋진 구두를 신은 신사가 땅바닥도 보지 않고 걸을 수는 없는 노릇. "비비언 리건은 나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였다. '내 몸도 봐야 하는데.'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다. (중략)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짐승 같은 인간들 중에서, 가장 차가운 피가 흐르고 있어요, 말로 씨."♥

## MERRY CHRISTMAS, PLAYB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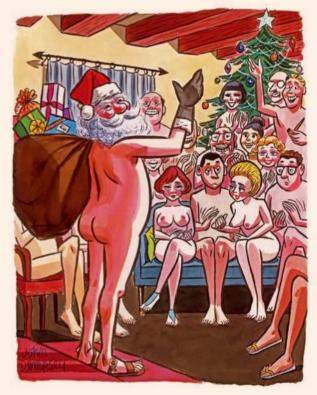
플레이보이의 유머러스한 클래식 카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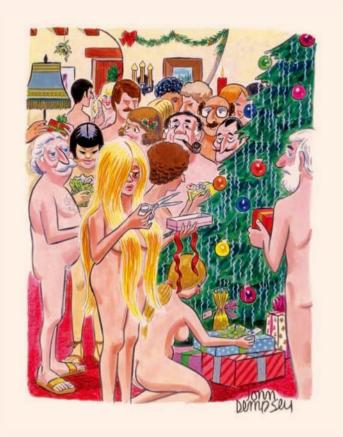
"가만 있자, 잘못 온 거 같은데. 선물 못 받았다던 소년은 어디 있지?"



"우리도 할 만큼 했어요. 최저임금직은 때려치우고 모두 독립하기로 했어요."



"헬렌, 니 말이 맞네. 정말 대박이야."





"올해는 선물 대신 이거다!"



"뉴욕에 산타클로스 클론 공장이 새로 생겼대다나 봐."



"아무리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좀 봐주시죠."

## **PLAY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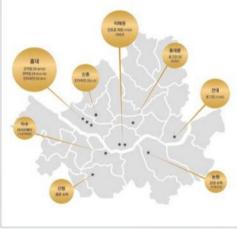
〈플레이보이〉가 주목한 그냥 지나치기 아까운 여러 소식.

#### THE PRESTIGE OF CIGARETTE

일본 담배의 명작이 한국에 상륙했다. JTI 코리아에서 출시한 세븐스타는 1969년부터 한결같은 맛과 향을 지켜온 프레스티지 담배 브랜드, 일본 최초로 숯 필터를 적용했고, 오랜 노하우가 담긴 오리지널 블렌딩은 클래식한 매력을 살렸다. 패키지 또한 처음 모습 그대로 소프트 팩에 별 패턴을 섬세하게 새겼다. 일곱 개의 별이 모여 반짝이는 북두칠성처럼, 흡연자의 가까이에서 빛나고픈 세븐스타의 기치를 담았다. 일부 JTI 이미지 숍과 담배 소매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 080-777-7727 **(** www.jti.com/korea





서울 판매 소매점 지도





#### **GLO'S NEW SPACE**

BAT 코리아의 히팅 디바이스 글로를 만나볼 수 있는 세 번째 공간이 강남역 근처에 오픈했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감성을 담은 이곳에서는 글로를 직접 피워보며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용 스틱인 던힐 네오스틱을 비롯한 액세서리도 구매 가능하다.

**3** 02-2112-7100 **3** www.discoverglo.co.kr



### MURDER ON THE ORIENT EXPRESS

S.T. 듀퐁이 영화〈오리엔트 특급 살인〉개봉에 맞춰 새 컬렉션을 출시했다. 등장인물인 드라고미로프 공작부인이 실제 사용했던 트렁크 케이스를 선버스트 브라운 래커 칠로 변형시킨 후 라이터와 필기구로 채웠다.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마스터 장인의 기술력이 조화를 이뤘다.

**3**02-2106-3596

#### BMW의 새로운 X3

전 세계에서 150만 대 이상 팔리며이미 인기를 입증한 BMW의스포츠 액티비티 자동차 X3가 더욱 향상된 모습으로 돌아왔다.최근 공식 출시된 3세대 뉴 X3는온로드와 오프로드를 가리지 않고 편안함을 선사하며, 첨단 자율주행시스템까지 갖췄다. 역동적인 디자인또한 고급스러움을 더해준다.

**3**02-3441-7800

www.bmw.co.kr



## A LITTLE IS A LOT

작지만 강한 궐련형 전자 담배 '릴'.



담배 한 모금이 간절해지는 순간은 문득 찾아온다. 하지만 중요한 회의나 데이트를 앞두고 있을 때면 살짝 망설여진다.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고 향수를 뿌려도, 짙게 밴 냄새는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흡연의 쾌락을 쉽 사리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현명한 대안은 바로 궐련 형 전자 담배. 불을 붙이지 않고 가열해서 얻은 니코틴 증기 를 흡입하는 방식은 확실히 냄새가 덜하다. 언제나 매너를 지키기 위해, 일반 담배에서 전자 담배로 '갈아타는' 사람들 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런 환승 행렬을 반기며, KT&G가 새로운 궐련형 전자 담배를 출시했다. 적은 냄새와 연기로 큰 만족을 주는 '릴(iii)' 엔 'A little is a lot'을 줄여 지은 이름이 제법 잘 어울린다. 한손에 쏙 잡히는 크기, 스마트폰보다 가벼운 무게의 릴은 버튼 하나로 모든 조작이 가능하고, 충전해두면 연속으로 20개비 이상 흡연이 가능하다. 전용 스틱인 펫(iii)에는 궐련형전자 담배 최초로 캡슐을 넣어 상쾌한 맛도 즐길 수 있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모두 갖춘 릴은 가격까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공식 웹사이트에서 성인 인증 후 회원 가입을 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전용 케이스와 충전 거치대도 받을 수 있다. 애연가라면 놓치기 아까운 기회. 더 이상 매캐한 냄새 걱정은 하지 않아도된다. 주머니에 담뱃갑 대신 릴을 넣어둔다면, 비흡연자와의 오붓한 시간이 더욱 은밀해진다. ❸



정가 9만5000원, 홈페이지(www.its-lil.com)에서 할인 코드 발급 시 특별 구매가 6만8000원

